2012년에 보는
10.4선언

평 양 출 판 사
주체101(2012)년

책머리에

《성난 하늘아, 천둥치여 너의 그 노여움으로 저 저주할 분계선일랑 때려부수어라. 천지를 진동하면서…》

필자가 어느 책에선가 본 구절인데 이 말이 심장에 와 배긴것 같다.

잠간 머리를 돌려보자. 분단의 그해에 태여난 해방동이가 이제 3년만 지나면 고희연을 차려야 한다. 조상들앞에 죄송스러운 후손이 되였고 후대들에게 면목없는 선배로 되였다. 앞의 말처럼 하늘이 노해서 벼락을 칠 일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중이라는 위기의식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된다. 이로 인해 평화와 통일의 절박성 또한 절감한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낳게 한 원인이 있기마련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그 원인과 책임이 미국과 남쪽당국자들에게 있다고 날선 언어로 비판했다. 그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그 옳고그름의 절대적기준은 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다. 우리 조상의 뼈가 묻혀있고 후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평화와 안정, 통일과 번영을 위하는데서 6.15와 10.4선언에 대한 자세가 문제로 되는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리명박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중요한 원인이 내재하고있는것이다.

리명박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한쪽이였던적이 한번도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도살자일뿐이다.

리명박집권 5년은 끔찍한 악몽이였다. 이제 도살의 원흉은 날자세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수명을 다할 때까지 온갖 못된짓을 다해가며 살것이다.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량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력사의 심판은 결코 피할수 없다.

현재 《한》반도는 급변하고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통일에 한발 가까워지는것으로 남북, 해외는 기대하고있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북이 비상히 세련되고 의지가 강한 새로운 수뇌부에 의해 지도되고있다는 바로 그 점에 있다. 북의 새로운 수뇌부는 판단이 빠르고 결심이 단호하고 타격이 무자비한것으로 인정되였던

김정일국방위원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것이 세인의 평이다. 북의 현 수뇌부의 정책저변에 거대한 산악처럼 놓인것은 다름아닌 민족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통일성업에 대한 끝없는 존중이며 그 실천의 시발점은 언제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는 점 또한 정평이다.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에는 민족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대한 평화의 세계, 민족의 심장에 파고드는 희망찬 전망이 비껴있다.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21세기 인류사의 대전환의 주인공으로서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세계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멀지 않아 이룩되고야 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은 세계평화와 인류자주위업의 금자탑으로서 찬란한 빛을 뿌릴것이다.

이 위대한 성업을 위해 남북, 해외의 겨레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평화와 통일은 마음속 념원만으로는 부족하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상황과 조건에 맞는 작은 일부터 하는것이 필요하다. 작은 물방울은 힘이 없지만 모여지면 큰강과 바다로 되여 거대한 힘을 발휘하지 않는가? 10.4선언실천이 곧 그 힘이라고 말씀드리고싶다.

10.4선언발표 5주년에 즈음하여 선언의 력사적의미를 재음미하며 부족한 이 책을 내놓는다.

끝으로 필자는 이 작은 책자가 거암처럼 큰 10.4선언을 리해하는데 티끌만큼이라도 보탬이 되였으면 한다. 아울러 통일문제를 연구하는분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이국의 하늘아래에서

2012년 8월

현 정 룡

차 례

1. 10.4선언이 나오게 되기까지 ····· 7

7.4공동성명에서 10.4선언까지 ····· 8

10.4선언의 전야 ····· 17

2.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청사진 ····· 34

력사적인 10월남북수뇌상봉,
10.4선언의 발표 ····· 35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바른 인식 ····· 57

력사의 증명 ····· 74

3. 《한》반도평화와 안정에 대한 로정도 ····· 85

평화와 통일 ····· 86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 ····· 98

10.4선언은 부정될수 없다 ……127
《한》반도에서의 핵전위험 막자……150

4. 10.4선언과 선군 ……169

5.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주인공이 되자 …… 204
—결언을 대신하면서—

1. 10.4선언이 나오게 되기까지

7.4공동성명에서 10.4선언까지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

6.15를 기점으로 하여 도도히 굽이치기 시작한 통일대하는 반통일의 극성스러운 방해에도 굽힘없이 기어이 통일의 종착점에 가닿을것이라는 확신이 민족의 가슴속에 새겨져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과 통일운동은 깊은 뿌리와 원천을 가지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7.4공동성명에서 10.4선언까지 35년간 민족의 통일운동은 자기의 운동도상에 빛나는 리정표들을 세워놓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흘러왔다.

1972년에 갓 대학생이 되였던 청년은 잊지 못할 력사의 증견자로 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였다. 전국 도심의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환호성을, 서울시청앞 광장의 인파를 당시의 그 청년은 아직도 기억한다.

1972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남북의 쌍방

고위급대표들사이의 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남쪽 당국의 정보부장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게 되였고 주석께서는 그 자리에서 민족공동의 통일 강령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였다.

5월 3일 밤, **김일성**주석께서는 남북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리후락정보부장을 접견하시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접견이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접견석상에서 조국통일의 절박성에 대하여 언급하고나서 마디마디에 뜻을 담아 이렇게 언명하시였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워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남북이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이 **김일성**주석의 깊은 의중의 뜻이였다.

리후락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바로하고 **김일성**주석이 제시하신 세가지 원칙을《통일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을것을

확실히 맹세합니다.》라고 다짐했다.

력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런 일을 두고 한 말인것 같다. 그리하여 남북쌍방의 합의하에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우리 민족이 통일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선포되였던것이다.

그때로부터 22년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스무살의 청년은 마흔두살의 중년이 됐다.

조미관계가 개선되여가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 시작하던 때인 1994년 6월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가 서울과 판문점을 거쳐 평양을 방문했다.

그 기회에 카터는 **김일성**주석과의 상봉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한 **김일성**주석의 반응은 뜻밖에도 매우 긍정적이였다.

이미전부터 통일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바가 있었던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는 김영삼을 만나지 않겠다고 한적이 없다, 우리가《특별사찰》을 받지 않으면 그가 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기때문에 나도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핵무기를 내놓지 않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과 무엇때문에 만나겠는가, 그러나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고 오겠다고 하면 만나주겠다는

대답을 주시였다. 그때 카터는 즉석에서 김영삼《대통령》과 만나겠다고 결단을 내리시는 **김일성**주석의 민족단합의 뜻과 포옹력에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지고있다.

그후 카터는 분계선을 넘어 서울에 도착하자 청와대에 들려 김영삼《대통령》에게 **김일성**주석의 뜻을 그대로 전했다.

이렇게 되여 평양에서 력사적인 첫 남북수뇌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합의서가 채택되였다.

7월 25일로 예정되여있던 그날은 앞으로 불과 얼마 남지않았는데 이 중대사변을 앞두고 **김일성**주석의 서거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김일성**주석의 서거이후 김영삼《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유다보다 더 철면피한 배신행위를 하였다.

그는 대화상대방의 불상사앞에 조의방문을 하거나 최소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것이 례의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는 고사하고 남녘의 각지에 분향소를 꾸려놓고 조의를 표시하는 남쪽국민들을 체포투옥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것이야말로 초상난 집에 불질하는것과 같은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였다.

멍멸과 부침이 반복되는 다사다난한 통일의 길에서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통일이 되고 통일행사가 TV로 남북전역에 생중계되는 날이 올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통일운동을 해왔다.

그런 날이 왔다. 2000년 6월 15일이였다.

온 겨레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000년 6월 13일 세인의 예상을 뒤집어엎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평양공항영접행사로부터 시작된 남북수뇌들의 극적인 상봉이 6.15공동선언채택으로 이어졌다.

이 기간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대중《대통령》과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여러 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담에서는 민족의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방도에 관한 문제,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과 리산가족들의 방문단교환문제, 각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당국대화재개문제 등 남북대화와 통일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이고도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폭넓고 진지하게 론의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련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이것은 통일의 원칙과 방도에서 남과 북이 합의점을 찾고 민족생활의 제 분야에서 련대련합해나갈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것이였다.

55년의 분단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직접

서명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이렇게 되여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평양상봉기간 남쪽의 전지역에서 회사원, 로동자, 대학생, 가정주부, 운전사 등 모든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거의다 일손을 멈추고 TV앞에 모여들어 시청률도 력사상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현장을 지켜본 미국 CNN방송은《력사가 만들어졌다.》는 함축된 문구로 평양발 첫 보도를 날렸다.

6.15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은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대전환점을 마련하고 반세기 분단력사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초석을 쌓았다는것이 남쪽정계의 숨길수 없는 평가였다.

지난 시기 대북관계문제에서 늘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던《동아일보》6월 15일부는《새로운 력사적기원을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수식을 붙여도 부족하지 않을듯싶다.》고 하였으며 다음날에는《7천만겨레에게는 상상을 뛰여넘어 질풍노도처럼 몰아닥치는 평양발 뉴스의 홍수속에서 모두의 가슴깊이 응어리졌던 한의 올을 풀어내는 감동적인 사변이였다.》라는 격정넘친 글줄들로 자기의 지면을 채웠다.

《경향신문》 6월 16일부는 《6.15남북공동선언채택으로 남북은 새 질서를 맞이하게 됐다. 반목과 대립, 대결로 지나온 불행한 과거력사를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는 통일의

력사로 바꾸는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하였다.

대북비난의 선봉장이라는 《월간조선》 역시 2000년 8월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지금 경천동지(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함.)할 격변기를 맞고있다. 지금 55년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오던 사상적기본틀들을 비롯한 총체적남북인식구조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그야말로 초현실적상황에 직면한것이다. **김정일**열풍은 지난 55년간 우리 사회를 떠받쳐온 기존의 인식체계를 일거에 초토화시켰다.》고 분석하였다.

6.15공동선언은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 스스로의 의사와 력량으로 이루어내겠다는 민족자주선언으로, 국토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의 통일방도와 목표를 합의한 평화통일선언으로, 7천만 겨레가 단일민족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화목과 번영을 도모해나갈것을 확인한 민족협력선언, 민족대단결선언으로 력사의 평가를 받았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2000년 6월 이틀밤 사흘낮에 이룩된 이 기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치적저력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선언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것이 아니라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지니신 철석의 통일의지와 위대한 결단, 뜨거운 애국애족의 열정과 신비한 정치지도력에 의한 필연적인 성과였다는것이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정평이였다.

이렇듯 훌륭한 6.15공동선언이 이틀밤 사흘낮의 55시간이라는 력사적순간에 채택된것은 남북관계사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외교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기할 사변이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한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대결과 불신의 얼음장이 배회하던 이 땅우에 신뢰의 정이 넘쳐흐르는 민족화합, 남북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안아온 세기적인 사변이였다.

통일로 가는 길에 덮인 반공반북의 안개를 밀어내며 민족대단결의 찬란한 아침이 밝아왔다. 참으로 2000년 6월 이 땅에 휘몰아친 민족의 환호성은 드디여 자주통일시대를 열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식민과 분단, 전쟁으로 이어졌던 지난 20세기 불행한 시련의 력사를 청산하고 조국통일을 완수하는 민족사적대전환의 출발점이 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대중《대통령》이 공동서명한 6.15공동선언으로 조국통일정국이 새롭게 활짝 열렸다. 이전의 통일운동은 남과 북, 해외 3자가 련대한 범민련운동으로 민족대단결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지만 남북의 당국까지 포괄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데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당국의 련대와 더불어 민관이 함께 하는 통일운동의 큰길이 마련되였다.

그리고 7년후 10월에는 또다시 통일의 청사진이 온 겨레의 눈앞에 펼쳐졌다.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로무현《대통령》이 합의하여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발표하였던것이다.

10.4선언은 정치군사적문제의 해결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모두 담고있다. 10.4선언은 통일성업을 이루어 내는데서 남과 북모두가 정치군사적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인식하고있고 이에 대한 해결을 바라고있음을 확인했다. 선언의 채택은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봄을 안아올수 있는 민족사적쾌거여서 온 민족의 가슴가슴에 환희와 열정의 뜨거움이 흐르게 했다.

길고긴 분단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통일의 문앞에 서있는것 같았다. 고 문익환목사의 말을 빌면 통일은 현재완료형으로 되였다.

10.4선언의 전야

남쪽국민들은 21세기 첫 《대선》에서 로무현《대통령》을 선택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리행할 정치적기반을 마련했다. 로무현《참여정부》의 출현은 우리 민족의 6.15공동선언실천의 성과가 축적된 바탕우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한》반도핵전쟁위협이 고조되면서 세계가 주시한 남쪽의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수구반통일세력과 미국의 온갖 공작을 깨뜨리고 온 겨레의 요구인 6.15공동선언을 살리는 정치지형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력량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이것은 세계 도처에서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는 미국 부쉬정권의 기도에 맞선 국민적선거전쟁에서 남쪽유권자들이 승리했음을 말해주었다. 그것은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을 다시한번 보여주었으며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로무현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첫 내외기자회견을 열어 《갈등과 분렬의 시대

가 끝나고 7천만 온 겨레가 하나되는 대통합시대가 시작됐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당선자의 이런 희망찬 표명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민의를 대변한것이였다.

이런 《참여정부》의 정치개혁이 궤도에 오르면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등 로무현《대통령》시기에 7천만겨레의 소원인 평화통일의 문이 열릴것으로, 새 력사를 쓰며 미래를 열어갈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

력사적인 6월평양상봉이후 7년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하려는 겨레의 뜨거운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분출된 나날이였다. 이 나날에 남쪽국민들의 반외세운동이 세차게 벌어진것은 사회력사발전의 당연한 흐름이였다.

대중의 의식속에 잠재되여있던 반미성향은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녀중생살해사건을 계기로 하여 한차례 거대한 폭발력을 분출했다.

보수성향의 씽크 탱크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더그 벤도는 녀중생참사사고를 낸 미군의 재판권과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한 미군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수 있다.》며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인 국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보수성향의 격주간지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인터네트에서 《한국과

리혼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미국의 보호를 원하는 국가는 미국이 명령하는것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썼다. 이것이 녀중생살해사건에 대해 남쪽국민들에게 준 미국의 오만한 대답이였다.

2002년 11월 26일에 시작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된 초불시위에는 연인원 500만명이 참가했다. 초불로 밝힌 민족의 자존심이였다.

이 힘의 분출을 보면서 미국도 놀라고 전세계도 놀랐다. 남쪽국민의 반미성향은 지난 50여년의 세월동안 이글거리는 암장처럼 살아있었다. 남녀로소 가림없이 그들의 손에 들려졌던 수백만개의 초불속에서 읽어낸 남쪽국민들의 소망은 바로 《전쟁없는 자주통일》, 《자주와 평화》의 실현이였다.

이런 의미에서 남쪽전역에서 타오른 초불시위는 6.15의 산아라고 할수 있었다.

2005년은 부쉬행정부의 재집권으로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내외적우려와 비관적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작되였다. 라이스미국무장관은 북을 가리켜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규정하며 부쉬의 《악의 축》론을 이어갔다. 이는 부쉬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북은 2기 부쉬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6자회담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

무기보유 및 증산방침》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2.10핵보유에 관한 외무성성명이 그것이였다. 선언은 세기의 대지진인양《2005년 코리아 쇼크(조선충격)》로 온 세계를 뒤흔들고 인류를 격동시키였다.

남과 북을 가림없이 우리 민족모두는 100년전, 1905년의《시일야방성대곡》을 핵강국의 자주선언으로 바꾼 극적인 운명의 비약을 체험했다. 민족의 가슴속에 세기를 두고 응어리진 약소국의 치욕, 피할수 없는 운명의 속박처럼 여겼던 지정학적숙명에 종지부를 찍고《한》반도 3천리강토의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기적을 북의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이루어놓으신것이였다.

2.10성명은 《한》반도정세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놓았다.

북의《종말》에 대한 일정표까지 짜놓고있던 미국의 대북봉쇄압살정책은 백악관의 경악과 공포, 불안과 절망속에서 휴지장으로 되였다.

북이 미국의 핵공격에 맞대응할수 있는 핵억제력을 갖고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미국의 대북핵공격위협은 사실상 이때에 이미 전략적효용성을 상실한것으로 되고말았다.

2.10성명발표이후 라이스미국무장관과 힐국무부차관보의《한》, 중, 일 방문 등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와 외교적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였으며 부쉬대통령도 중국과

로씨야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부쉬행정부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한》반도 주변국가들을 끌어넣기 위해 외교적 력량을 총동원했지만 로무현《정권》의 외면과 중국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의 씁쓸함만을 맛보아야 했다.

그리하여 미국이 북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2.10성명발표이후 북미간의 첨예한 대결국면은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환되였다. 미국이 항복의 흰기발을 올린것이였다. 디트라니북핵담당 특사가 5월 13일 유엔주재 북대사관을 방문하여 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며, 북을 공격하지 않을것을 담보하며, 6자회담의 틀안에서 북미직접협상을 진행할것을 제안하면서 북미간 대화와 협상의 물고가 본격화되였던것이다.

그 결과 4차 6자회담에서는 우여곡절끝에 경수로제공(핵의 평화적리용권 보장), 핵무기포기와 대북적대정책포기의 맞교환,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해결로 요약되는 9.19베이징공동성명이 발표되였고 6자가 모두 합의의 증인이 되였다. 북이 일관하게 주장해온 원칙이 자랑스럽게 관철되게 되였다. 그것은 내용으로 보아 미국의 선핵포기로선의 폐기를 의미하는것이였다.

2.10성명은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10성명발표이후 세계앞에 드러난 미국의 취약성과 북의 강대성은 남측에게 소신껏 대화와 협상로선을 밀고나가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성명의 영향력아래 10개월동안 동결상태에 놓여있

었던 남북당국관계가 정상화되였을뿐아니라 한단계 발전을 예고하는 정치적환경과 조건도 마련되였다. 6.15평양민족통일대축전, 8.15서울민족대축전과 북측 고위당국인사의 현충원방문, 장관급회담정상화, 《아리랑》공연참관단 평양방문 등은 남북관계정상화와 발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2.10성명은 남과 북모두에게 미국과의 력학관계에서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계기로 되였다. 《한》반도비핵화와 남북관계진전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창출한것이였다. 남과 북은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적절히 활용해 남북관계에서 큰 성과를 이룩했다.

한편 북미관계를 볼 때 부쉬행정부는 어쩔수없이 9.19공동성명에 합의할수밖에 없었지만 체질적으로 대북적대의식이 강한 부쉬행정부로서는 공동성명을 충실히 리행할 의지와 의사가 전혀 없었다.

미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봤던것은 적어도 부쉬행정부에서만은 통하지 않는 분석방법이였다.

부쉬행정부는 라이스를 위시한 그리스도교근본주의자들과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체이니와 람스펠드그룹이 함께 움직여가고있었다. 체이니와 람스펠드는 석유리권의 대변자들이였다. 그런 면에서 부쉬행정부는 지극히 정신적인것과 지극히 물질적인것의 비정상적결합이라고 볼수 있었다. 북에 대해

부쉬는 《자유》와 《민주주의》문제를 주로 거론하고 체이니는 《북위협》론을 거들며 미국군산복합체의 리권을 챙기려고 했다. 이들은 북을 압박하고 결국은 붕괴시키겠다는 립장에선 서로 합치되였다. 문제는 이들 두 세력이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단합되여있었다는것이다.

게다가 CIA와 국무부에 포진되여있는 실무전략가들도 대북적대정책의 포기는 곧 《한》반도전체에 대한 영향력 상실로 련결될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갖고있었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9.19공동성명도 미국립장에서는 미국이 바라는 북미관계의 로정도가 아니였기때문에 림시봉합적인 방법을 쓴것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 곧바로 북의 《위조지페》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제재가 시작되였음을 선포했다.

하지만 미국이 6자회담의 틀을 깨면서까지 스스로 도장을 찍은 9.19공동성명을 로골적으로 부정할수만도 없었다. 미국이 처한 딜레마였던것이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었다.

여기에서 2006년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의 핵심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남쪽의 《중앙일보》 2002년 12월 24일부는 로무현후보의 당선소식은 《부쉬의 아침잠을 벌떡 깨우는 경고음이였다.》며 당시 미국이 6.15통일시대를 이어나갈 로무현《대통령》의

당선을 얼마나 원치 않았는지를 한마디로 전하였다.

까면 깔수록 매운 양파같이 다층적으로 중첩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서 대북금융제재와 《인권》공세는 북을 경제적으로 곤난하게 만들고 북내부를 흔들어보자는것도 하나의 목적이였지만 보다 주요하게는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압박하겠다는데에 초점이 있었다.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서 핵심은 다름아닌 화해협력적인 남북관계의 파탄에 있었다. 남북대결을 첨예화시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흐름들을 저지하고 6.15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자는것이 2006년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핵심이였다. 대북금융제재문제는 곧 남북경협에 대한 제동장치였으며 대북《인권》공세는 북쪽에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 대북《인권문제》를 내걸고 로무현《정부》와 시민단체들을 압박하여 남북간 화해협력관계의 전제로 만들어놓아 화해를 대결에로 돌려놓자는 속심이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북《인권》대회를 서울에서 조직하고 여기에 남쪽 친미보수세력들을 총동원했다.

여기에서 버시보우미대사는 사령탑인 백악관을 대신해 현장에서 대북압박작업을 총괄지휘하는 현장사무소장역할을 하였다. 버시보우대사는 《북의 인권개선을 위해 (남쪽국민이) 행동할 시기》라고 촉구하는 등 공격적인 활동을 전개

했으며 《대북경협접근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개성공단건설 등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한 배경은 버시보우대사의 지위와 관련이 있었다. 미국무부는 대사의 등급을 몇단계로 나누는데 버시보우대사는 두번째 높은 지위인 《Carrier Ambassador》였다. 미국에서 이 등급에 속하는 외교관은 10여명안팎에 불과하다.

지위도 지위이지만 버시보우대사가 당시 미국무부내의 라이스-힐-버시보우로 이어지는 이전 쏘련, 동유럽붕괴전문가 그룹의 일원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라이스-힐-버시보우그룹이 무엇을 추구하고있었느냐 하는것이다. 이들은 모두 체제개혁전문가이며 버시보우대사는 이전 쏘련과 동유럽국가들의 붕괴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리력을 가지고있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북이 이전 쏘련과 동유럽국가들처럼 변화해야 한다고 력설하고 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외교적관례를 벗어난 주《한》미대사의 행동은 미국이 남북관계를 대결의 장으로 끌어가는데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은 대북군사적압박까지 병행하여 《북 옥죄이기》를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로무현정부 옥죄이기》를 동시에 노리는 《두마리 토끼잡기》전략을 구사한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남쪽《정권》에 대한 미 행정부의 압력도 미국의 《로무현정부 옥죄이기》의 일환이였다. 《자유무역협정》은 남쪽국민들에게 장미빛미래를 선전하고있지만 그 본질적내용은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 특히 금융종속을 심화시키는것일뿐이다. 왜냐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의 물질적 기초가 재조성, 강화되기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남북경협을 통해 북과의 협력을 계속하고있는 로무현《정부》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남북간 민족공조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자유무역협상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유무역협정》 무관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언급한것은 그러한 미국의 전략적기도를 드러내놓은것이였다.

군사분야는 더욱 심각했다. 로무현《대통령》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북아시아분쟁에 휘말리지 않을것》이라며 반대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여러가지 압박을 통해 관철시켰다. 이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전략내에 남측을 포섭하는것이기도 하였다.

수직적《한》미동맹을 수평적관계로 재정립하려는 로무현《정부》의 의지를 꺾어놓는 미국의 이런 행보는 남북협력을 통해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를 지향한다는 6.15정신에 반하

는것이며 동시에 남북의 협력과 평화적공존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반세기이상 지속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호혜적인 평화공간을 마련한다는 공동선언의 취지에도 반대되는것이였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대남, 대북압박은 분명히 《6.15죽이기》로 되는것이다.

미국은 대북압박과 로무현에 대한 포섭전략이라는 묘한 이중주를 통해 《6.15죽이기》를 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협력분위기는 적극화되였다. 나아가서 남북협력은 미국이 통제할수 없는 속도와 범위로 나아갔다. 2005년의 6.15, 8.15대회를 통해 남북당국과 민간이 공동으로 행사를 치른것이나 6자회담공간에서 남북의 외교적협력, 유무상통식으로 확대되고있는 남북경협과 핫라인(《대통령》의 집무실과 직통련결된 통신선)개설 등의 군사적상호신뢰조치들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한》반도에서 발휘하던 영향력을 감소시킬 부정적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을 몰고온 힘은 남북협력리념을 공식화한 6.15공동선언의 정신이였다. 남북협력이 강화될수록 또 한편에서는 민족자주의식이 성장했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수록 반미감정도 상승했다. 미국으로서는 시급히 제동을 걸어야 할 사안으로 부상했다.

북의 웹싸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에서는 미국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은 22%

에 불과했으나 6.15공동선언이후에는 각계각층이 미국을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있고 64%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나갈것을 주장하고있다.》고 소개했다.

심지어는 북이 아니라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날로 높아가고있는 반면 《한》미동맹강화를 주장하는 세력은 불과 35%로 6.15이전보다 무려 25%나 줄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당시 남의 당국자들속에서조차 미국은 《한》반도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론조들이 나오고있어 미국측에서 《한》미관계의 전략적기초가 허물어지고 있거나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렬이 생기고있다고 아우성치고있는 형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남쪽의 한 연구원은 《대북적대의식이 지배하던 지난 60년 동안 우리 정부는 늘 미국을 지지했고 미국의 정책을 말없이 추종해왔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로 대북적대의식이 약화되자 미국에 대한 충성심 또한 현저히 낮아졌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다시금 국내에서 대북적대의식을 확대시켜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로 복귀하고싶은 유혹을 느끼고있다. 미국이 쓸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 대북공격과 압박에 나서고있는 리유는 그것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6.15죽이기》에 나섰던것은 당시 미국의 하위체제에서 벗어나려는 남쪽《정권》의 정책적기점이 바로 6.15이였기 때문이였다.

결국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에 따라 남쪽의 정치현실에서 민족공조와 외세공조의 대립과 대결이 그 어느때보다 거세여질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은 화해협력적인 남북관계를 그대로 두고서는 자신들의 존립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부쉬행정부는 당시의 상황을 타개, 변화시키는데서 《한》미공조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다시말하여 한편으로는 로무현《정부》를 회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로무현《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공격을 통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게 필수적이라고 확신하고있었다.

한편 남쪽의 친미보수세력들은 2006년에도 남북관계의 전진이 확대된다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지반이 붕괴될것을 두려워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사활을 걸었던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그 어느해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정세에 직면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6.15공동선언지지세력은 어떠한 립장을 가져야 했던가. 6.15공동선언정신을 확고히 세우는 과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며 이 과제를 달성하자면 가장 중요한것이 민족공조의 정신이다.

특히 로무현《정권》은 과거 남북관계의 력사를 교훈으로 삼아 미국의 압력과 회유에 동요하지 말고 민족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하는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공조의 원칙속에 남쪽의 당국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남북화해협력의 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나가는것은 로무현《대통령》에게 부과된 제일의 과제였다. 그러나 수직적《한》미관계속에서, 더우기는 임기말에 이른 로무현《대통령》에게는 그러한 과제를 실행할 힘이 없는것 같았다.

이것이 10.4공동선언전야의 《한》미간에 조성되였던 정세흐름의 핵심이였다.

이러한 정세흐름속에서 미국현지시간으로 2006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에 《한》반도의 북쪽에서 10여발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미싸일발사시험이 진행되였다. 왜 7월 4일을 선택했을가?

언제인가 드골이 브레쥬네브를 방문하였는데 날자가 바로 나뽈레옹이 150여년전에 모스크바에 입성한 그날이였다고 한다. 그것은 쏘련에 대한 프랑스의 야유였다. 다른것이 있다면 나뽈레옹이 말을 탔다면 드골은 비행기를 탔다는것뿐이였다.

빠리에서 북쪽으로 약 200리 가면 《흔들리는 숲》이라고 불리우는 산림이 있는데 1차대전시기 도이췰란드가 패망했을 때 이 숲속을 지나간 철도의 객차안에서 프랑스가 항복조인을 받아냈다. 그런데 2차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이번에는 다른데도 아닌 바로 그 숲속 렬차안에서 프랑스한테서

항복서를 받아냈다.

역시 북이 미싸일발사시험의 시점을 미국독립기념일로 선택한것은 미국에 대한 자기들의 초강경적립장을 나타낸 하나의 상징이였으며 동시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야유였다고 본다.

북의 미싸일발사가 있은 후인 7월 5—7일사이에 남쪽 국민들이 인터네트에 올린 주목되는 반영을 보면 한 주민은 닉명으로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북의 탄도미싸일+북의 핵이다. 북의 핵은 미래전쟁의 핵심이다. 북이 이 기술을 갖는 날이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날이다. 우리의 미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손에 달려있다. 강성대국으로 가는 첩경이다.》, 《대단하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여가고있는 상황에서 북은 정말 대단하다. 미국에 맞서는 자주외교, 정말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민족의 생존권을 미국에 넘겨주려고 하는데 북은 대단하다.》고 했으며 북이 정말 멋지다, 북이 미싸일발사하니까 미국이랑 일본이 바싹 긴장한다, 내심 통쾌하다고 하였다.

북이 미싸일시험을 하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보면 주객이 전도된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군사력을 강화하는것은 자기 나라를 적들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계속되는 대화제의를 거절하고 함께

약속한 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코앞에서 최신형무기와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전쟁연습을 하고있는 적을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있을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결국 북이 미싸일발사시험을 하게 된 요인은 9.19베이징공동성명을 일방적으로 어긴 미국에게 있으며 군사적대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장을 파탄낸 미국이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것이 순서였다.

미국은 자국의 리익이 관철될 때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유엔의 간판도 필요없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이다. 세계적인 유일패권을 위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배권강화를 위해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북고립압살정책을 펴고있는 미국이다.

북과의 민족대단결로 《한》반도통일을 지향하는 남쪽《정권》이라면 대북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립장일수 없다. 현재의 긴장국면이 격화되여 만에 하나라도 북미사이의 물리전이 벌어지면 남과 북은 운명공동체가 될수밖에 없다. 한때 남쪽에서 베스트 셀러였던 소설 《무궁화꽃이 피였습니다》의 주제사상은 그것을 강조한것이였다.

2007년 6.15를 전후한 시점에서 《한》반도정세가 또다시 급변하고있었다.

6.15공동선언발표 7돐을 하루 앞둔 14일 미국에 의해 마카오의 중국계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

되여있던 북의 자금전액이 미국의 련방준비은행(FRB)으로 송금되고 1주일후에 북미대화의 미국측 대표인 미국무부의 힐차관보가 평양을 전격방문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60년 북미대결에서 북이 련속 승리하고있음을 또다시 확증해주었다.

2007년 북은 《한》반도정세의 대전환을 위한 공세에 박차를 가하였다. 세계는 력사발전의 주도권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손에 쥐여져있다고 일제히 평가했다.

결국 6.15공동선언의 토양에서 《정권》을 장악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주장한 로무현《대통령》이 취할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후의 선택은 평양행이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었다. 정말로 정세의 대변화가 예상되는 2007년 하반기라 할수 있었던것이다.

2.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청사진

력사적인 10월남북수뇌상봉, 10.4선언의 발표

세계는 또다시 조국통일의 길을 넓게 열 남북수뇌상봉을 앞두고 《한》반도정세를 주목했다.

2007년 10월 2일 국경절련휴를 맞은 중국언론들의 관심은 온통 남북수뇌상봉소식에 모아졌다. 신화통신과 CCTV는 남북수뇌상봉소식을 시시각각 속보로 전하고있었다.

중국외교부는 이에 앞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안정에 기여할 남북수뇌상봉을 적극 지지한다는 립장을 밝혔다.

로씨야도 이번 남북수뇌상봉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립장을 피력했고 일본의 후꾸다정부도 공개적인 지지립장을 피력했다.

미국도 일부 우려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지립장을 피력했다. 미국무부는 같은 날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간에는 따로 만나서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고 밝히면서 회담에 대한 지지립장을 확인했다. 미백악관대변인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남북지도자들의 만남에 대해 우리는 이번 수뇌상봉에서 도출될 결과를 지켜볼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상봉이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것으로 믿는다고 밝혔고 유럽련합(EU)도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유럽련합은 성명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로무현대통령 사이의 이번 수뇌상봉이 한반도에 신뢰와 자신감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7개 유럽련합 성원국외에도 뛰르끼예, 마께도니아 등 가입후보국,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등 잠재후보국, 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유럽자유무역련합소속 회원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야, 아제르바이쟌, 그루지야도 립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AP와 AFP, 로이터, 교도, 이따르－따쓰 등 통신사들, 영국 BBC, 도이췰란드 제네프, 프랑스 르 피가로 등 유럽 언론 그리고 알 자제라 등 중동언론들도 남북수뇌상봉을 주요국제뉴스로 보도하며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수뇌들이 만난다며 그 력사적, 정치적의미를 조명했다.

남북수뇌상봉을 전세계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지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음이 분명해졌다.

이렇듯 세계가 들끓는 가운데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남북수뇌상봉이 진행되였다. 땅우에는 6.15통일시대

7년이 년륜으로 새겨지고 10월의 푸르른 하늘에는 겨레의 통일념원이 뭉게구름으로 떠돌던 이 나라 3천리에 또다시 환희로 물결칠 력사의 순간이 다가왔다.

2007년 10월 2일 로무현《대통령》은 남북분단의 상징인 노란색의 군사분계선을 밟는 남쪽의 첫 《대통령》으로 기록되였다. 바로 《한》반도허리를 자른 《금단의 선》을 넘었던 것이다.

이때 로무현《대통령》은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간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것이다. 장벽은 무너질것이다. 저의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로무현《대통령》일행을 태운 수십대의 대규모방북차량행렬 모습은 장관을 이루기에 충분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휴전선을 넘어선 남측일행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개성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여명이, 평양에서는 시민들의 꽃물결 속에 인민문화궁전앞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동방례의지국의 례의범절에 맞게 가족을 대하는것처럼 따뜻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했다. 국방위원장께서는

평양의 4.25문화회관광장에 나오시여 그들을 직접 영접했다.

이날 일본 NHK방송이 정오뉴스에서 평양현지중계를 통해 4.25문화회관광장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로무현《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는 모습을 정규방송도중에 긴급속보로 시시각각 실황중계로 내보내는 등 상봉상황이 방송을 통해 전세계로 퍼졌다.

이에 대하여 남쪽의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깊은 감동을 안고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동구밖 마을 입구에서부터 집대문, 사랑방문지방에 이르기까지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우리 민족의 옛 풍습을 보는듯 하다.》라고 썼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로무현《대통령》앞에 처음으로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의장대(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을 진행하도록 했다. 2000년 남북수뇌상봉때는 평양공항에서 의장대의 사열만 진행되였으며 분렬행진을 받은것은 로무현《대통령》이 처음이였다. 이에 반해 북이 외국국빈을 맞을 때 해당 국의 국기를 올리고 해당 국 국가와 북애국가를 연주한 뒤 21발의 례포를 울리는것과 같은 의식은 없었다. 국방위원장께서는 남측《대통령》을 외국의 국빈이 아니라 한민족, 한집안의 귀한 손님으로 대우한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외세에 의해 강토가 량단됐는데 동족끼리 외국인행세를 하겠느냐는것이 국방위원장의 립장이였다.

이러한 영접행사는 로무현《대통령》과 남측대표단을 한 민족으로서 배려하고 위해주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믿음과 립장으로부터 시발된것이였다. 원래 남북간의 왕래를 다른 나라와의 왕래처럼 외교적절차나 행사에 맞추는것을 일체 금하고 마음속에 휴전선이 들어앉은 사람을 제일 싫어했다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이였다.

온 겨레는 한민족, 한피줄이라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일관된 립장을 남북수뇌상봉기간중에 나온 발언에서도 확인할수 있었다. 대표적인 실례가 두 수뇌분의 회담과정에서 남측《대통령》이 수뇌상봉의 정례화를 제안한것에 대한 국방위원장의 답변이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친척집에 갈 때 정례적으로 가는가, 수시로 놀러 가는것이다, 국가간 관계에서는 정례적이지만 남북관계에서는 맞지 않는다, 수시로 만나는게 맞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역시 국방위원장께서는 남측일행을 애틋한 혈육의 정으로 대했던것이다. 결국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립장이 수용되여 10.4선언에는 수뇌들이 수시로 만나는것이 명시되였다.

어떻게 보면 《정례적》이냐, 《수시로》이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정례적》이라는 단어안에 담겨있는 분렬고정화의 의미를 경계했던것이다.

당시 남쪽 통일부 장관은 라지오인터뷰에서 《실제로 남북

수뇌간의 만남이라고 하는것을 형식과 절차를 뛰여넘자는것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견해였다.》며 《이것이 국제적인 관행인 국가와 국가간의 수뇌상봉이 아니니까 오히려 편하게 수시로 일이 있으면 만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이였다.》고 국방위원장의 뜻을 나름대로 설명했다.

사람들은 10.4수뇌상봉의 후일담가운데서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따뜻한 동포애적배려를 느낄수 있었다. 로무현《대통령》이 10월 3일 진행된 수뇌상봉끝에 《퇴임후에도 북을 다시한번 방문하고싶다.》고 청을 드리자 국방위원장께서는 얼마든지 환영한다, 무료로 와도 된다고 하며 그의 청을 쾌히 승낙하시였다.

2007년 10월수뇌상봉의 훌륭한 결과물로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낳은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족적리익을 앞세우는 확고한 립장 그리고 통일과 평화를 위한 통큰 결단이였다는것이 정평이였다. 10월수뇌상봉에서는 구체적으로 론의해야 할 실무적인 의제들이 많이 제기되였고 합의되였다. 이에 대해 《자주민보》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그 많은 의제들을 다 틀어쥐고 단신으로 협상에 림했으며 이것은 국방위원장이 수뇌상봉 의제전반을 꿰뚫고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시간표를 완전히 장악하고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였다고 평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 전한바와 같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수뇌상봉과정에 시종일관 뜨겁고 폭넓은 민족애, 세계를 주름잡는 정치실력, 단번에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인격으로 로무현《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통일에 대한 남북의 전폭적인 합의를 보게 했다는것을 력사는 인정하고있다.

사실상 집권이후 민족공조와 외세와의 공조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했던 남측의 우유부단한 정책성향은 6.15공동선언의 리행과 남북관계발전이 늦어진 원인을 조성하기도 했다. 남측 《대통령》의 이러한 립장은 애당초 회담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려고 했던데서 드러났다.

그래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10월 3일 하루만 해도 남측 《대통령》과 3시간 51분동안 진지하고 솔직하게 담화를 하면서 그를 설득시켰다는것을 북에서 발간된 자료들이 공개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께서는 세부적표현에 이르기까지 선언문작성을 직접 지도하시였다고 했다. 그런데로부터 북에서는 10.4선언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통일의지의 결정체라고 인식하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통큰 결단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바꿔놓는 탁월한 정치수완을 보여주었다.

10.4선언 4항에서는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3자 또는 4자안을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제기한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분단과 랭전적대립은 민족적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이다. 《한》반도평화는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극복해야 가능하다.

선언의 4항은 국제적측면에서 랭전의 결과이자 원인이였던 6.25전쟁의 정전상태를 영구적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북, 남, 미 3자 또는 북, 남, 미, 중 4자정상회담의 국제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의 페기를 위한 선언이기때문에 정전협정에 구애될수밖에 없다. 종전선언의 실제적당사자는 북과 미국이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데다 여전히 전시작전지휘권을 갖지 못하여 군사주권이 없는 남측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남북수뇌상봉에서는 종전선언문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남과 북을 주체로 내세웠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이와 같은 결단은 남측을 포함하는 종전선언을 먼저 제안하여 우리민족끼리정신에 맞게 남측이 하루빨리 주권을 회복하여 《한》반도문제에 책임있게 나설것을 촉구한것으로 분석된다. 종전선언의 협상이 열리게 될 때 우리민족끼리정신에 따라 남과 북이 손을 잡게 되면 협상의 구도는 미국 대 남과 북이 될것이다.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의 통일을 안아오겠다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강한 통일의지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안아오겠다는 로무현《대통령》의 정치적지향은 결국 2박3일간의 상봉과 회담끝에 6.15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킨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탄생시켰다. 10.4선언은 큰 틀의 6.15공동선언을 보다 구체적이고 진취적으로 실현시킬 리행방도를 마련한것으로서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였다.

2007년 10월의 남북수뇌회담과 10.4선언발표는 우리 민족이 주도하는 《한》반도, 동북아시아시대가 열릴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10.4선언발표로 우리 민족이 6.15공동선언 7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통일에로의 길을 활짝 열어놓을 실천적담보를 마련하게 되였기때문이다.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발표한 10.4선언은 ▲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자주적원칙의 재확인 ▲ 낮은 단계 통일과 민족통일기구수립을 위한 제도적기반 구축 ▲ 남북간 군사적신뢰 구축과 《한》반도평화체제수립을 위한 전기 마련 ▲ 민족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대책 ▲ 남북교류협력의 전면화 ▲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주의협력 등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총

8개 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선언의 리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남과 북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수뇌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분단된 우리 민족앞에는 6.15공동선언을 통해 조국통일의 큰 방향이 설정된데 기반을 두고 10.4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현 단계의 행동내용을 담은 실천강령이 천명된것이다.

10.4선언의 특징은 ▲ 6.15공동선언에 기초를 두어 과거 남북관계를 계승하고있다는 점 ▲ 남북총리회담개최, 량측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추진, 수시로 남북수뇌회담 개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수립 등 통일로 진입하는 직전 단계의 조치들이 들어있다는 점이며 ▲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렬거하고 시한을 설정하여 자의적해석을 막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진전을 가져오게 한다는 점 등을 꼽을수 있다.

선언의 내용을 조항에 따라 간명하게 정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2항—6.15공동선언이 밝힌 조국통일의 원칙과 방법 재확인,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조치 제시

10.4선언에 통일방안의 확정, 민족통일기구의 수립과 같은 획기적인 합의가 명시되여있지는 않지만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통일문제를 제일 첫자리에 제시하고있다.

또한 1항에서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관계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우리민족끼리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을 저해해 왔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항에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정비》하고 《남북관계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넘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량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여》 통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정치적기초를 마련하게 되였다.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대화마당들은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련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구성하여야 할 민족통일기구의 초석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10.4선언의 5항과 6항에는 남북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있다. 6.15공동선언도 4항에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것을 밝혔다. 6.15공동선언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당면하게는 10.4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는것이 곧 민족적립장이라고 할수 있다.

10.4선언발표이후 로무현 전 《대통령》은 이번 선언의 가장 핵심적성과로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을 꼽으며 여전히 다른 말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남쪽의 언론과 《한》 반도문제전문가들도 선언의 앞부분인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부분보다는 《평화와 번영》에 초점을 맞춰 분석과 전망을 론의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선언에 밝혀진 합의사항들을 실천하려면 그 실천을 제약하는 법률적, 제도적장치의 정비가 필수불가결하다. 남과 북사이의 접촉조차 범죄시하는 남쪽의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악법이 계속 존재하는 여건에서는 언제 가도 교류와 협력을 전진시켜나갈수 없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을것이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보아 10.4선언의 기본내용들은 남쪽의 평화론리보다 북의 강력한 통일론리가 관철된 결과 확정된 것이라고 리해해도 무리가 없을것이다.

3, 4항—남북사이의 군사적신뢰조치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 합의

3항에서는 남북간 군사적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국방장관급

회담을 그해 11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사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7년을 돌아보면 군사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와 비교해서도 교류와 협력이 더디였다. 그리고 경제분야의 교류, 협력사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막히는 문제들의 요인을 파고들면 최종귀결점은 군사적 신뢰가 없는 문제였다.

따라서 3항에서 남북간 군사적긴장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해결책으로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보장조치문제 등 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국방장관급회담을 그해 11월에 개최하기로 한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졌다. 이는 분단의 경계선을 긋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평화공존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이며 남북이 함께 평화를 지킬수 있는 상호 군사적신뢰구축을 위한 커다란 전진이였다.

4항의 핵심내용은 앞에서 얼마간 언급한바 있는 종전선언의 추진이다.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장을 분석해보면 그 목적과 당사자, 장소와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 직접 관련된 3, 4자정상들이 ▲ 《한》반도지역에서 ▲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지적되여있다.

지금까지도 《한》반도질서는 정전협정에 의해 규정되는

정전체제다. 10.4선언 4항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한것은 6.25전쟁을 완전히 끝장내고 《한》반도평화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시대적요구앞에서 평화협정의 전 단계조치로 종전선언을 선택한것으로 볼수 있다.

근 6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정전 또는 휴전상태에 놓여있는 전쟁의 공식종료와 《한》반도평화구축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위한 3, 4자수뇌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한것은 《한》반도문제에서 남쪽《정권》의 역할을 높일수 있는 계기로 되였을뿐만아니라 《한》반도평화를 위해 한걸음을 내딛게 될것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였다.

결국 북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남북수뇌상봉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여 《한》반도평화문제에 우리 민족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도록 했으며 단합한 민족의 드높은 국제적위상을 그려볼수 있게 했다.

5항—민족경제공동체수립을 위한 구체적방안 제시

10.4선언에서 특징적인 내용은 남북 량측의 수뇌들이 민족경제의 모습에 대해, 나아가 민족경제의 목표와 운영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족경제발전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중요한 성과였다.

민족경제에 대해 6.15공동선언 4항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었다. 이것이 더욱 구체화되여 10.4선언은 5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라는 남북경제협력의 기본원칙이 합의된것이다.

더우기 10.4선언은 전문에서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을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자주통일의 정신에 립각해 추진하기로 한것이며 10.4선언의 다양한 경제협력방안이 남북간의 단순한 교역증가가 아닌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것이라 볼수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족대단결을 위한 통큰 결단은 5항에서도 발현되였다.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가 바로 그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북쪽 해주항의 활용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에 관한 합의를 함께 담고있다.

국방위원장께서는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 북측의 전략적중요지대를 평화협력특구로 내놓는 결단으로 남북군사적장벽을 먼저 허물어버리려고 했다. 사실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남과 북의 군대가 실제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를 수호할것을 합의한다는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였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통큰 결단은 이미전에 금강산지역을 남쪽국민들에게 관광지로 제공한 데서도 세인의 감탄을 불러일으킨바가 있었다.

이런 중요한 곳을 남쪽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것은 그만큼 남쪽과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북의 의지를 표현한것으로 볼수 있다.

5항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하나는 10.4선언이전에는 남북경제협력사항가운데 실무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관급회담으로 진행되던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4선언에서는 2단계 격상시킨 부총리급회담으로 개최하기로 한 점이다. 이는 남북경제협력이 기존의 수준을 뛰여넘어 새로운 단계로 나갈것을 합의한것이였다.

6, 7항—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인도적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6항에서는 남북이 다방면적인 사회문화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것을 담고있다. 이는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속에서 살아온 남북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백두산—서울직항로개설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렬차운행은 민간급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갈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것이였다.

또한 7항에서는 인도주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면서 리산가족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할것을 명시했다.

이는 리산가족의 상시적상봉을 보장함으로써 리산가족의 소망을 실제 이뤄내는 동시에 우리 민족고유의 미풍량속인 상부상조를 인도주의협력사업의 원칙으로 내세움으로써 남북은 다같이 한민족임을 강조한것이라 할수 있다.

8항—민족공조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나가려는 의미있는 합의

8항에서 남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리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리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것은 남북이 각각 맺고있는 현재의 국제적관계를 민족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협력, 조절해 남북이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8항은 분단상황으로 인해 불리익 내지 침해를 받을수 있는 동포들의 립장에 서서 그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것을 선언의 중요한 내용으로 넣음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국가적, 민족적차원에서 보호하고 천만해외동포를 확고히 통일의 력량으로 내세워주었다.

이렇게 남북이 대외관계와 해외동포문제에서 공조를 취하기로 한것은 향후 통일국가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확인함과 아울러 남북관계가 통일을 예비하는 단계로 발전하고있음을 상징하는것이였다.

마지막으로 10.4선언은 남북장관급회담을 총리회담으로 격상시키고 남북수뇌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제도화하려 했다.

이런 견지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평화와 통일에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10.4선언은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의 새로운 리정표를 제시한 력사적문건이라고 할만 하다.

10.4선언은 조국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현 단계에서 꼭 합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모두 담고있으며 그 합의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여서 그것이 성과적으로 리행될 때

통일의 결정적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라고 온 겨레는 확신했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대장정에서도 의미있는 걸음을 내디디였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통일조국건설과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훌륭한 설계도를 가슴에 안을수 있게 된것이다.

6.15미국위원회는 《2000년 남북수뇌상봉이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의 려명을 보게 한 거대한 력사의 꿈틀거림이였다면 이번 2007년 남북수뇌상봉은 민족번영과 평화, 통일을 향한 한단계 높은 힘찬 발걸음》이라며 《우리 민족에게 가슴벅찬 희망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그려준 이번 수뇌상봉의 결과는 이미 미주땅 동포사회에도 통일의 뜨거운 열풍을 일으켜주고있다.》면서 10.4선언을 뜨겁게 환영했다.

6.15일본위원회도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며 조국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선언이 발표된 민족적사변에 대하여 커다란 민족적긍지감을 가지고 열렬히 지지환영한다고 밝혔다. 6.15유럽지역위원회 역시 해외동포들의 통일념원을 담아 열렬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로무현《대통령》은 10.4수뇌상봉의 결과물인 공동선언을 가리켜 《짐을 다 싸기 어려울 정도의 보따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남북수뇌상봉의 성과에 뿌듯해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10월 4일 이렇게 기쁜 마음을 안고 귀환하는 로무현《대통령》에게 칠보산송이버섯 최상등품 4t을 선물했다. 당시 남쪽시세로 치면 8억원어치에 달하는 엄청난 량이였다. 그 송이버섯은 남쪽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 재계인사, 예술계인사, 종교계인사, 학계인사들 3 700여명에게 나누어졌다. 선물송이를 맛본 인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자연의 향기가 강하고 맛이 독특하다는것이였다.

2박3일의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기간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면대하는 남측 로무현《대통령》의 태도는 눈에 뜨이게 각별했다.

그의 평양방문 첫날인 2일 저녁 목란관에서는 공식환영만찬이 있었다. 이날 시간이 흐르는데 따라 만찬장의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남측《대통령》이 술잔을 들고 사회를 보는 자리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남북간에 평화가 잘되고 경제도 잘되려면 빠뜨릴수 없는 일이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건강하셔야 한다.》고 말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합시다.》 하며 《위하여!》를 선창했다. 그러자 만찬참석자들도 모두 뒤따라 일어나 《위하여!》를 웨친 뒤 박수를 쳤다.

력사적인 10월수뇌상봉의 격동의 파도가 사라지지 않고 있던 10월 11일 로무현《대통령》은 청와대 록지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수뇌상봉에서 직접 본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국정상황을 꿰뚫어보는 능력과 이북체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진 카리스마있는 지도자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지도자상이 《아주 인상적이였고 과연 진짜 령도자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평양상봉기간 느꼈던 자기의 감동을 솔직히 말했다.

이와 함께 로무현《대통령》은 평양의 모습에 대하여 《지식이라든지 기술 또는 국민적인 어떤 열정이라고 할가,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자세라든지 부지런한 자세, 의욕, 그런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국민적력량의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았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아주 빠른 속도의 발전이 가능한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느꼈다.》고 자기의 소감을 솔직히 토로했다.

로무현《대통령》의 **김정일**국방위원장과의 상봉은 국정파탄의 책임을 짊어지고 안팎으로 궁지에 몰려 집권말기를 간신히 보내고있었던 그에게 있어서 더없는 행운이였다. 특히 국방위원장의 따뜻한 영접과 10.4선언의 발표는 그가 《대통령》임기를 무난히 마칠수 있는 운명전환의 계기를 맞이할수 있게 했다.

남측의 한 수행원은 로무현 전 《대통령》에게 차례진 이러한 행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로무현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너무 힘들어하니 항간에서 점을 쳐보았다. 점괘에 의하

면 그는 실수를 련발하여 쓰러지다가 나중에 천인을 만나 기를 회복하는 팔자라고 했다. 그 점이 신통히도 들어맞았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수뇌회담을 마련해주신 덕으로 로무현대통령의 기가 살아났다. 이 약기운은 임기말까지 가리라고 본다.》

돌이켜보면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었던 로무현 전 《대통령》 개인을 보아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그의 정치행로에서 다시 만날수 없을 귀인중의 귀인이였다.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민족이 륭성하고 번영하려면 령도의 구심점이 현명하고 위대해야 한다.

정력적인 사색과 심혈, 불면불휴의 투쟁으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나가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0.4선언을 통해 조국의 통일운동에서 위대한 구심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통일사상, 통일의지, 통일경륜은 조국통일의 력사적성취를 담보하는 생명력이라는것이 민족의 가슴마다에 뚜렷이 각인되였다.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바른 인식

언어는 언제나 시대적이고 력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이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통하는 기본정신이며 그 핵은 곧 민족자주정신으로 알려져있다.

바로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남과 북, 해외의 각계 동포들이 지지하고 따를수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으로 내세운 시대의 등불이라는데 그것이 가지는 시대성과 력사성이 있다.

노아의 홍수에서 구조된 생명들처럼 공동의 운명이 되였을 때 우리는 《한배에 탔다.》고 말한다. 망망대해에서 한배에 타고 항행하는 사람들은 닥쳐오는 운명의 시련에 대해 단합된 힘으로 대항하고 난관을 헤쳐나갈수밖에 없다.

여기에 철학이 있다. 그건 여러가지 말로 할수 있겠지만 중요한것은 그들이 서로 신뢰하고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는데 있다. 동서고금에 외세란 자기의 리해관계를 떠나서 남을 도와준 전례가 없다. 그 어떤 동맹도 혈맹보다 굳건할수

없다. 민족내부의 사정이 제아무리 복잡하고 풀기 어려워도 그건 집안일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 신념의 근저에는 분단으로 인해서 생겨난 체제상차이나 사상, 리념의 차이보다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이 비할바 없이 중요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가 제시된것은 통일실현문제에서 사변적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로부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바라느냐 아니면 영구분렬과 전쟁을 추구하느냐 하는것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지금이야말로 민족구성원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명백히 할 때이다.

여기서는 남과 북이 따로 없고 정권당국과 민간, 진보와 보수, 계급과 계층의 차이가 문제로 될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최우선적인 지위에 올려놓고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마음다짐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쌍방의 정권당국은 정견과 리해득실을 떠나 한배에 탄 사람들처럼 민족적신뢰와 단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려는 진실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05년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건강상태가 악화되여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나가는 북측대표단이 병문안을 하고 자신의 문안인사를 전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전에 민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고 회고하시면서 특사조의방문단을 파견하여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통큰 결단도 보여주었다.

남쪽의 《KBS》, 《MBC》, 《련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는 경색된 정세속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하여 친필로 서명된 조전과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 특사조의방문단을 보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때 북의 특사조의방문단을 맞이한 남쪽국민들은 화환의 댕기에 《〈**김정일**〉이라고 쓴 큰 글자를 보니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면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풀어나가려는 국방위원장의 뜻과 의지를 깊은 감동속에 받아들였다.

2009년에 들어와서 리명박《정권》은 무슨 심산에서인지 남북관계를 에각화시키면서 북을 자극하는 언동을 본격화하였다. 그런 속에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였을 때 악화된 남북관계로 하여 남측으로서는 사실상 어떤

결과도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북쪽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남쪽의 현대그룹과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하고 남측인원들의 군사분계선륙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며 또한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백두산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실행조치들을 전폭적으로 합의했다.

이러한 예상을 뒤집어엎은 결과는 더 말할것 없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과 민족대단결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것이였다. 북측은 이렇게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자기의 적극적인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국의 분렬주의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자면 민족의 힘이 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민족의 대단결을 강화해야 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보다 감화력이 큰 사상적무기는 없다는것이 명백히 되였다.

북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통일원칙이라고 할수 있는 자주에로의 강한 주장은 2000년대 들어 우리 민족끼리의 슬로간으로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등장하였던것이다.

남북의 수뇌들이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는 그 첫 조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못박았으며 그리고 2007년 10.4선언의 서문에서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우리 민족끼리가 통일리념으로서 전민족적인 합의를 보게 되였음을 확인했다.

현실적으로 우리 민족끼리는 근 8년에 걸친 통일시대의 저류를 이루는 기본리념으로 정립, 성과적으로 구현되여왔다.

그런데 지난 5년동안 남쪽《정권》당국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정책에 의해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공격이 점점 그 도수를 높여 자행되면서 그 실행이 중단되여왔다.

남쪽의 리명박《정권》당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핵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배타적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라고 몰아붙이면서 《배타적민족주의로는 남북관계를 해결할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끼리〉구호만 가지고 되는것이 아니》라고 말그대로 횡설수설했다.

여기에 또 남쪽당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강연회에서 《대통령》특별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지난 10년간 우리끼리 다투게 만들었다.》, 《우리 민족끼리는 시대착오적인 리념》이라는 말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거부하는 자기들의 립장을 분명히 했다.

남쪽 리명박《정권》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은 한민족, 한나라가 외세의 강요에 의해 분단된 남북관계를 두 나라로 갈라진 국제관계로 정착시키려는 정치적의사를 로골적으로 드러내왔다는데 있다.

그러한 행태의 한 표현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한 자주냐 페쇄냐 하는 론쟁이다.

그 론점을 요약하면 통일이 자주적이여야 한다는것은 곧 통일이 우리끼리의 힘으로만 해결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우리 민족끼리가 자주의 원칙을 말하는것이지만 주변국들과의 적절한 협력없이는 우리 민족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북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가 자칫하면 우리 민족의 힘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불가피하게 주변국가들과의 문제를 배제한 론리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

그와 같은 론점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서 근본핵인 자주문제를 이른바 《닫긴 자주》로 외곡하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끼리를 부정하는 《정권》당국의 부당한 정책에 물을 대줄 위험성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것이다.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로무현《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상봉하였다. 그 력사적인 사변을 가리켜 남측에서는 남북정상들이 만나는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고 북측에서는 북남수뇌들이 만나는 최고위급회담이

라고 말한다. 력사적인 6.15상봉에 대해서도 남측은 《정상회담》이라고 하였고 북측은 최고위급회담이라고 하였다.

남측과 북측에서 이렇게 하나의 현실을 두고 각각 《정상회담》과 최고위급회담이라고 다르게 부르는데는 같은 현실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인식차이가 내재해있다. 그것은 단순히 분단시대의 언어습관에서 생겨난 차이가 아니다. 남측과 북측의 그 인식차이는 서로 다른 정책에서 생겨난것이다.

오늘의 남북관계는 두 나라로 갈라진 국제관계가 아니라 한민족, 한나라를 지향하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이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나라이름을 쓰지 않고 남측과 북측이라는 민족내부관계에서 쓰는 특수명칭을 쓴다.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로무현《대통령》이 만나는 최고정치회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상들이 국제관례에 따라 만나는 국제관계의 외교정치행위 즉 정상회담(summit talks)이 아니라 민족내부의 남측과 북측 최고지도자들이 민족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는 최고정치회담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남쪽《정권》이 민족내부관계와 국제관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정상회담》이라는 잘못된 말을 쓰고있는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쪽《정권》이 《정상회담》이라는 말을 고집하는 까닭은 민족내부관계를 두

나라로 갈라진 국제관계로 변형시키려는 의도적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만일 남쪽《정권》의 정치적 의도대로 현재 분단체제로 되여있는 민족내부관계가 두 나라로 갈라진 국제관계로 공인된다면 그것은 나라의 분단 상태를 정당화,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통일문제에 치명적사태를 불러오게 된다.

이것이 남쪽에서 사용하는 《정상회담》이라는 네 글자의 말에 깃들어있는 심중한 의미이다. 이 문제를 좀더 파고들면 《한》반도의 통일과 국제관계 다시말하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는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과의 국제관계문제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에 귀착된다.

차분히 설명을 해보자.

우리 민족끼리란 민족공동의 요구를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압력이나 간섭을 허용함이 없이 민족자신의 리익에 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이 놓여진 실정에 맞게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와 깊이 련계되여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유관국들과의 관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것이 북의 통일론리이고 주장이다.

김일성주석께서도 1993년 신년사에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여 해결하여야 할 민족적문제인 동시에 유관국

들도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하여야 할 국제적문제라고 하시였다.

《한》반도가 분렬된 경위와 통일이 지연된 원인을 따져본다면 그것은 거의 절대적으로 외세와 관련되여있다.

통일문제가 국제문제와 관련되여있는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유관국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끼리와 국제관계문제, 이 두 문제중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하는데서 옳바른 인식과 립장을 가지는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 힘이 들어 주저앉아 한숨을 쉬면서 《앞산아, 당겨다오. 뒤산아, 밀어다오.》 하고 소리쳤지만 일어날수 없었다. 《에잇, 할수 없다. 오금아, 일어나라.》 하고 소리치며 힘을 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일어서서 자기 길을 갈수 있었다.

조상적부터 전해오는 한낱 옛이야기를 국가건설이나 민족문제해결의 대강으로 삼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하지만 이 작은 이야기에는 확실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큰 진리가 담겨져있다. 무슨 일이든지 제힘을 믿고 제힘을 발동해야 성사될수 있다는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유관국들과의 관계문제를 제대로 풀려고 해도 우리 민족의 힘이 강해야 하고 그러자면 남북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민족내부의 력량을 통일에로 동원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는 국제문제도 민족의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자는것이다.

10.4선언 8항에 명기된 남과 북이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리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는 바로 이와 같은 지향을 반영한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문구이다. 민족의 힘을 합쳐 통일성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저 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족사적소명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져있는 기념비적선언이라고 평할수 있다.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오늘 우리 민족끼리는 우리 민족의 생존방식이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유일한 출로이며 민족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라는것, 그러므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민족운명개척의 좌우명으로, 조국통일의 생명선으로 간직하고 나가야 한다는 북의 론리와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전민족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있다. 이것은 정견과 주의주장이 어떻든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당장의 정치적, 제도적통일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반도의 랭전적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화해협력, 민족복리의 공존공영을 이루는것은 실제 통일의 길을 다질수 있는 가장 실효성있는 방식이다. 남과 북이 평화와 화해를 기반으로 인적, 물적교류와 협력을 이루어나간다면 그것은 민족적잠재력을 통합, 증대시킬것이고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교류, 보다 많은 협력은 결과적으로 대결과 반목이 서로 손해볼것이

많음을 깨닫게 만들고 이는 공존공영을 확고히 하는 확실한 담보가 되는것이다. 화해와 협력으로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주고받으며 돕고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사실상의 통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민족끼리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시기 통일운동권에서는 민족대단결이라는 개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민족공조라는 개념도 많이 쓰고있다. 공조라는 말의 사전적의미는 서로 도와준다는 뜻이다. 민족공조라는 말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도와준다는 뜻이다.

민족공조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와 관련된 민족문제, 통일문제에서 외세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며 그 길에서 남과 북은 언제나 마음을 합치고 보조를 같이하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족공조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발양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그 실제적행동이다.

그렇기때문에 6.15, 10.4선언을 리행하는데서 성공의 비결은 민족공조에 있으며 민족공조는 통일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화해,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민족공조는 심화발전되고 공고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게 된다. 민족공조가 실현되는 과정은 우리 민족끼리 화해,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족대단결의 전략적목표를 달성해가는 일련의 사회력사적발전

과정이다. 그 최고발전단계를 민족대단결이라고 부른다. 이로부터 민족공조는 민족대단결의 낮은 단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다.

단일민족으로서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경우 민족이 주인이 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고 통일의 문을 여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공조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한다는것은 필연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친미보수세력들은 구시대적인 대결관념과 외세의존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보다 외세를 중시하고 민족공조보다 외세와의 공조를 우선시하고있다. 오늘의 《한미일의 공조체계》의 지속적인 유지책동이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그것은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랭전시기의 《한미일 3각군사동맹》과 큰 차이가 없는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보다 공세적이고 침략적인 자세를 취하고있다는것뿐이다.

미국과의 공조는 반북공조이며 분렬공조이며 전쟁공조이다. 여기에서 핵심문제는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립장과 의지이다.

미군이 남쪽을 강점한지 근 70년이 되여오는 오늘 《한》반도의 남쪽에서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것은 조국통일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는 긍정적인 정세발전의 한 측면으로서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주목을 끌고있다.

남쪽국민들속에서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반미감정이 급격히 고조되고 특히 10.4선언에 의해 남북간의 정치군사적쟁점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였으며 그것이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투쟁으로 발전하는데 대해 미국은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있다. 자칫 잘못하면 세계의 면전에서 미군이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백악관과 국방부안에서 그리고 미국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속에서 지배적인 견해로 되여가고있다.

지난 시기 국제사회에서 《한》반도평화보장조치로서의 미군철수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남쪽국민들이 원하기때문에》 미군철수를 하지 못한다고 변명하여온 미국으로서는 이제 남쪽강점의 마지막명분까지 잃어버리게 될 처지에 봉착하여 남쪽정세발전에 불안을 느끼게 된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런 정세하에서 미국은 최후발악적인 대안으로 남쪽에 대한 영구강점을 실현하며 《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데로 나서게 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한》반도에서 남쪽주둔 미군의 재배치에 박차를 가하면서 백수십억US$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남쪽에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그러한 미국의 기도를 립증하였다.

남쪽주둔 미군재배치는 지상무력을 중시하던 재래식작전방법에서 벗어나 원거리에서의 타격능력을 높이고 해공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사태발전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공조로 《한》반도 남쪽에 대한 미국의 지배에 마침표를 찍는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과제로 됨을 립증하고있다.

이것은 민족공조와 외세공조가 량립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단의 비극을 외세에 의거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이상 어리석은짓은 없을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한 민족의 단합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통일운동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중시, 민족제일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북측은 주장해왔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2007년 10월 남북수뇌상봉때 로무현《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에 갔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0월 4일 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민족중시가 북측의 전형적인 협상원칙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번에 북측은 7개 부문별회의에서 일제히 《왜 남측은 민족중시립장을 취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전면적압박》을 가했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로무현《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을 핑게대고 개성공업지구건설을 늦추는것은 민족중시립장이 없기때문이라고 면박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한 북측의 립장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리해된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력사적인 2000년 6월평양상봉때에 남측성원들에게 2000년대에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으로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울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북과 남이 합치면 우리는 큰 나라로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주변에는 더 큰 나라들이 많다, 아시아와 세계적인 판도가 있지만 우리 민족이 살아갈 곳은 오직 조선땅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과 남이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 땅에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 민족적자존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수 없다, 과거 우리 민족이 일본놈들에게 예속되여있었고 그리고 남쪽사람들이 지금까지 미국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면서 찾은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키워야 할것은 무엇인가, 바로 민족적자존심인것이다, 이제부터 북과 남이 합쳐 민족적자존심을 키우자, 우리는 자존심을 가지고 민족의 슬기와 영예를 세상에 빛내여나가야 한다, 자존심이 곧 힘이다, 자존심이 없으면 대국들이 우리를 약소국가로 업수이보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할것이라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내보이시였었다.

깊은 철학적론리로 째여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이러한 견해는 바로 국방위원장의 불변의 신조이고 민족중시, 민족제일의 립장이다.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절대화하면서 다른 민족을 깔보는 민족적교만성이 아니며 민족적증오와 배척을 설교하는 부르죠아민족주의, 민족배타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며 협력할수 있게 하는 최대공약수이며 온 겨레를 자주통일의 길로 떠밀어주는 추동력이다.

우리 민족이 통일할수 있는 힘도 우리 민족제일주의에 있고 외세와 극우보수세력의 분렬책동을 막아낼수 있는 방벽도 우리 민족제일주의에 있다.

민족적각성과 자존심도 없이 침략적인 외세의 정책을 꿰뚫어보지 못하거나 그에 굴종하고 의존하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말하는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짓이다.

현 남쪽당국의 생각과 뜻을 대변하고있는 우익수구세력들은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한다. 또한 도이췰란드통일을 이루는데 동서도이췰란드당국간의 대화는 보조적역할에 불과하였다는 경험을 경청하여야 한다고 력설한다.

그러한 자세는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고 동족과 합쳐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립장이 아니라는것이 명백하다. 그것이 가져올것은 분단의 고착화 내지 영속화라는 비참한 운명뿐이다.

북에서는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 때에만 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릴수 있고 민족대단결의 드넓은 광장이 마련될수 있으며 합작과 교류의 궤도가 자주통일의 종착역을 향하여 뻗어갈수 있다.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면 분단의 어둠이 물러가고 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온다. 이것은 그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민족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라고 단언하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다같이 지지하고 받들어나가야 할 민족적기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결론을 내리면 그가 누구이든 우리 민족끼리를 외면하는 사람은 신성한 민족대렬에 서있을 자리가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관통되여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이 없이는 어떠한 남북관계의 발전도 있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화해와 협력, 통일에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사명이고 력사의 순리이다.

력사의 증명

우리 민족끼리의 약동하는 생명력에 의해 분단의 장벽에 금이 가고 한피줄을 이은 겨레의 심장들이 하나로 련결되여 민족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드높아졌다. 통일되고 번영하는 앞날을 위한 겨레의 지향과 열망이 삼천리를 진감하였다. 이것이 6.15시대의 특징이며 6.15시대에 사는 민족구성원들의 변화된 의식과 행동방식이다.

6.15남북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으로 통일운동이 남북을 통털어 포괄하는 전민족적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개되였다. 민간통일운동의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남북정권의 상층련대까지 이룸으로써 명실공히 남북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 등 모든 계급, 계층을 아우르는 온 겨레가 통일단결에 나설수 있게 된것이다.

이것은 통일이 미래가 아니라 남북공동선언들을 기점으로 실현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한다. 리산가족상봉, 남북장관급회담 그리고 북측 고위인사들의 서울방문 등은 통일이 착실하게 그리고 발빠르게 실현되고있음을 보여

주었다. 비전향장기수 63명의 북으로의 대거송환과 같은 통일이 되여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6.15공동선언에 따라 실현되기도 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장을 펼쳐온 훌륭한 경험들이였다.

남북사이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전진하는 통일대화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통일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키는것은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서로 속을 터놓고 마주앉아 대화와 협상을 해나가면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수 있다.

지난 시기 남북 량측은 수차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한바 있었지만 미국과 남측 당국의 긴장격화행위로 말미암아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응분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부터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한 남북대화는 이에 토대해 밝은 전망을 내다볼수 있었다.

10.4선언은 2항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념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량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남북의 정치대화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대화의 앞길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있을수 있고 또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되였지만 남북간에 정치대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열려졌다는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환영했다. 이에 대한 북측의 립장 역시 전폭적으로 환영하는것이였다. 북은 남북대화는 소수 당국자들과 특정한 계급, 계층의 독점물로 되여서는 안되며 그것은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모을수 있는 폭넓은 대화, 전민족적인 대화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루차 강조해온것으로 기억된다. 구체적으로 남북대화에는 남북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각계각층 인사들, 해외동포들이 광범하게 참가해야 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쌍무적, 다무적인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이 북측의 생각이였다.

남북수뇌들이 10.4선언에서 합의한 2항은 이와 같은 북측의 생각과 부합된다.

10.4선언에서는 남북의 수뇌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것을 비롯하여 총리회담과 군사고위급회담, 부총리급의 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같은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를 포함한 대화마당들은 앞으로 북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의 련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구성될 민족통일기구의 산실로 될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그러한 민족적기대감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10.4선언이 기초하고있는 6.15선언이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사태발전은 남북대화에서 훌륭한 성과가 이룩되리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남북당국사이에 2007년 6월까지 21차의 상급회담과 40여차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및 각 부문별 분과회의와 실무접촉 그리고 10여차의 남북군사당국자들사이의 회담 및 실무접촉을 비롯하여 무려 100여차의 회담과 접촉이 진행되였다. 1971년부터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난 29년간 346회의 회담에서 남북은 겨우 35건의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6.15공동선언발표이후부터 2004년까지의 4년동안에 남북은 118회에 걸쳐 회담을 진행하고 96건이나 되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남북회담들은 불신과 론쟁으로 일관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의 정신에서 문제를 타결하는 회담,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는 회담으로 지향되였다. 이것은 남북대화력사에서 전례없는 기적이였다.

남북대화와 접촉들은 미국과 남쪽의 수구반통일세력들의 방해와 도전으로 말미암아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가져다준 생명력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나갔으며 그 과정에 적지 않은 훌륭한 합의들을 이룩했다.

이것은 대화가 대결의 한 공간으로 리용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지난날의 정략적인 대화들과는 구별되는것이였다.

1990년대에 있은 남북고위급회담이 8차의 본회담과 수십차례의 분과회의와 실무접촉을 거쳐 겨우 한개의 합의문건을 이루어냈다면 6.15이후의 남북장관급회담은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진통을 겪긴 했어도 그런 속에서 거의 매번 합의문건을 채택하였다.

6.15이전에는 단 한차례의 남북적십자예술단 및 고향방문단교환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무려 14년이라는 세월 25차의 적십자예비회담, 10차의 본회담, 3차의 실무대표접촉을 비롯하여 수십차의 회담과 접촉을 하였다면 6.15이후 7년남짓한 기간에 9차의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16차에 걸치는 리산가족상봉과 7차의 화상상봉을 성사시킬수 있었다. 이것은 6.15통일시대에 와서 남북대화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결실있는 대화로 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남북사이에 각계각층의 통일행사가 활발히 벌어졌다. 넓어진 래왕의 땅길, 하늘길, 바다길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남과 북의 각계층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웨치는 련대련합의 메아리는 백두에서 한나까지 우렁차게 울려갔다.

민족자주의 바람에 우리 민족끼리의 돛을 달고 통일의

배를 더 힘차게 몰아가자고 호소하는 대표들, 박수갈채가 그칠줄 모르는 회의장이였다. 겨레모두가 마음과 마음을 합치고 가슴과 가슴을 이어 돛폭을 이룰 때 통일의 배는 그 어떤 외세의 암초도 물거품처럼 깨치며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는 희망이 넘쳐흘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남북로동자통일대회를 계기로 계층별 통일대회의 막이 열렸다. 그 기세는 막혔던 보물이 터진것 같았다.

민족분단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남북농민통일대회도 볼만 했다.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남북녀성통일대회 그리고 남북교육자대회와 민족작가대회를 비롯한 남과 북의 계층별단체대표자회의가 평양과 금강산에서 열려 통일을 위한 남북 각계층들의 조직적련대련합의 기초가 다져졌다.

대회장들에서의 뜨거운 통일열기가 그대로 피부에 와닿았고 드높은 통일열망과 기상을 힘있게 표현하던 남북대표들의 모습도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금강산을 뒤흔들며 삼천리강산에 메아리치던 남북대표들의 통일함성 또한 귀전에 쟁쟁히 들려온다.

어떤 회합을 통해서도 남과 북의 대표들은 떨어져 살수 없는 한피줄, 한형제임을 가슴깊이 절감했다.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을 실현하는 길에 놓아진 통일의 징검다리들이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이것이 모든 대회장들에 차넘친 기본정신이였다.

전민족적통일운동련대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되여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당국과 민간이 따로없이 남북의 7천만이 함께 하는 거족적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평양상봉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대하가 삼천리에 도도히 굽이치는 가운데 남북의 왕래가 활발히 진행되였다. 이전에는 전대협의 나어린 단발머리의 대표였던 림수경씨가 사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한것이 《죄》가 되여 철창속에 들어갔다면 6.15의 통일대로를 따라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으로 가고오면서 화해와 협력, 단합을 도모했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대해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2004년 5월말까지의 기간에 북에서 남쪽을 방문한 인원수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전까지의 10년간에 비해 근 5배, 같은 기간 남쪽에서 북쪽을 다녀간 인원수는 금강산관광객을 빼고 4.5배 늘어난것으로 된다.》고 전하였다.

그런가 하면 금강산관광길이 열린이래 2005년 7월까지 금강산을 다녀간 남쪽관광객수는 100만명이상에 달했다. 이를 두고 남쪽의 언론들은 《6.15공동선언이후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의 기운은 막을수 없는 대세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는데서 사회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부정할수 없다.

《한》반도는 3면이 바다와 닿아있고 내륙이 시작되는 출발지여서 남북경협은 륙로와 해로를 동시에 열게 하는 천혜의 조건을 제공한다. 부산에서 시작되는 21세기의 신실크로드가 개설돼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유럽시장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면 그동안 꿈꿨던 륙로에로의 유럽행이 가능해질것이다.

남북경협은 동북아시아경제권의 시발이기도 하다. 남북경협과 통일이 시급한 까닭은 남과 북의 륙로가 뚫리는 시점에서 동북아시아경제쁠럭이 형성되기때문이다.

남과 북의 륙로가 뚫리고 항만, 도로, 철도, 운하 등 사회간접자본들이 속속 확충된다면 동북아시아경제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상당부분이 《한》반도를 중추로 삼을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북이 리득을 보면 남도 리득을 얻어야 한다는 상호주의적인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6.15공동선언의 4항에는 북과 남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밝혀져있으며 10.4선언의 5항과 6항에는 북과 남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있다. 6.15공동선언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당면하게는 10.4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자는것이 곧 북측의 립장이라고 할수 있다.

북이 생각하는 남북의 이러한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비정치, 비군사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생각과 립장을 정리하면 정치군사적문제가 해결되여나가면 사회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가 마련되게 되고 또 사회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여나가면 정치군사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된다는것이다.

일례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길을 연 렬차시험운행은《한》반도의 대동맥을 다시 이어줌으로써 민족의 공영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것이라고 평가되였다.

2007년에 평화와 통일의 기관차가 분단의 장벽을 뚫고 경의선과 동해선철길을 달렸다. 남북의 각계 대표들이 한차량에 동승해 남측 문산역에서 북측 개성역, 북측 금강산청년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 서로 손을 잡고 철도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리 겨레는 이날 남, 북, 해외 어디에 있든 같은 렬차에 평화통일의 소망을 싣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남북을 오갔을

것이다.

반세기만에 실현된 남북철도개통은 비록 1회성의 잠정적조치였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추진해온 철도련결사업이 끝내 현실화된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통일리정표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실천의 소중한 성과로 기록되였다.

이와 함께 남북은 동서해선철도 및 도로련결사업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10m폭에 2.4km구간에 걸쳐 동해선림시도로와 서해선림시도로를 완공함으로써 금강산륙로관광과 개성공단건설을 실현하였다.

민족분단의 표적물인 콩크리트장벽을 가로질러 철도와 도로가 련결된 현실은 분단의 철조망과 지뢰밭을 뚫고 통일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쾌거였다.

그뿐만아니라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북선수들의 공동입장, 부산과 대구에서의 통일열풍, 제주도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북측 국립교향악단과 남측 KBS교향악단, MBC공연단의 서울과 평양에서의 공연, 남쪽의 톱 싱어였던 조용필씨와 서울오페라가극단의 평양방문공연 등도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결실된 이삭들이였다. 또한 남북단청자료전시 및 학술토론회,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의 범죄성에 대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와 공동자료전시회,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공동학술토론회,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평양토론회 등 수많은 문화, 학술교류들도

남북공동선언리행의 길에서 얻은 열매들이였다.

총체적으로 6.15통일시대의 이 경이적인 사변을 놓고 남쪽에서도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남쪽의 소떼가 무리지어 북으로 가고 남북의 연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노래와 춤을 추며 민족의 온정을 나누고있다. 북에서 남쪽에서 진행하는 국제경기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여 수많은 군중들앞에서 남북의 체육선수단을 함께 응원하기도 한다. 그뿐인가. 남북민간단체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대회와 문화교류, 단군릉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오고있다. 통일의 보물이 터진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민족끼리가 삼천리강산에 메아리치고 자주통일의 열풍이 몰아쳤다.

그 함성, 그 열풍에 밀려 우리 민족을 무겁게 짓누르고있던 분단의 먹구름이 흩어져버린다.

어떤 개인이건 단체이건 노예아닌 자주적인민으로서 통일된 《한》반도에서 떳떳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돛을 달고 달려나가야 한다.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사이의 련대련합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이 력사의 진리를 웅변으로 말해주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력량이 통일의 거세찬 물고를 튼 이상 그 누구도 민족의 통일행진을 가로막을수 없을것이라고 본다.

3. 《한》반도평화와 안정에 대한 로정도

평화와 통일

민족의 분단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얼어붙은듯이 꼼짝 안하던 《한》반도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였다. 《한》반도의 정세는 분명 해빙시대로부터 평화시대로 옮겨가는 조짐을 보이였다.

10.4선언의 중요내용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북의 평화에 대한 의지의 확인이였다. 10.4선언발표이후 남북의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였다. 남북은 각기 스스로가 이룩한 귀중한 성과물들을 다시는 재더미로 만들어버릴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에 따라 평화에로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질것이다.

이같은 전망은 남의 일부 강경론자, 대결주의자들이 주장하는것처럼 환상이 결코 아니였다. 그것이 랭철한 현실분석에 립각한 판단이였기때문이다.

10.4선언의 발표로 누구나 《한》반도평화를 정착시키는데서 력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있다고 느꼈다.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를 정착시키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립장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 우리의 인식은 뚜렷해야 한다. 그러했을 때 《한》반도평화를 실현할수 있고 자주와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할수 있다.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깃드는 외형적평온이 아니다.

정전협정체결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항시적으로 전쟁위험에 시달려왔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렬된 속에서 반세기이상 지속된 《평화》는 사실상 고도의 군사적, 정치적긴장상태가 지속되는 첨예한 북미대결속에서 순간에 깨여져나갈수 있는 불안정한 평화, 핵전쟁발발의 분화구앞에 서있는 위험천만한 평화이다.

불안정한 평화는 항상 전쟁과 같은 폭력발생의 잠재력을 내포하고있으며 《한》반도의 경우 1953년 정전이 성립된 이후 남북이 유지해온 대치상태는 바로 불안정한 평화의 개념속에 포함된다. 정전이래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군사적대치상태를 계속 유지해왔으며 동시에 고도의 긴장상태를 지속해오고있다. 정전은 그자체가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전쟁의 중지상태의 련속에 불과한것으로 언제나 전쟁으로 터질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있는것이다.

《한》반도에서는 웬만한 군사적충돌도 전쟁을 유발할수 있다. 그것은 이 크지 않은 땅우에서 그리고 그리 넓지 않은

동서해역에서 북을 상대로 미국을 비롯해 남쪽과 일본이 한동아리가 되여 맞붙는 핵전쟁으로 확대될것이다. 이것은 전쟁의 당사자들이 가지고있는 지리적린접성, 전략적상충성, 정치경제적리해관계의 얽힘, 군사동맹관계의 의무 등으로부터 구성되는 불가피한 전쟁구조이다.

미국과 남쪽, 미국과 일본은 각기의 군사동맹을 체결하고있고 일본과 남쪽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이 군사동맹으로 간접적으로 련결되여있다. 전쟁발생시에는 미군의 작전을 남쪽과 일본이 동맹관계로서 직접 협동해야 하므로 남쪽과 일본의 군사합동작전은 기정사실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고보면 지구상의 다른 갈등과 무장충돌지역들에 비해 《한》반도는 평화와 안정이 파괴될 위험성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더구나 단순히 분단국가였다는 사실 하나를 놓고 안이하게 과거의 동서도이췰란드와 《한》반도를 동일시하는 견해는 평화와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도이췰란드와 《한》반도사이에는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차이점이 존재하고있었다는것을 깨닫지 못한 단견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도이췰란드교포인 송두률씨는 그 근거로 《한》반도문제에 도이췰란드를 4개 전승련합국이 안정되게 분할관리하기로 했던 1944년의 런던합의(London Pro-

tocol)도 없고 유럽전역에 대한 평화헌장으로 인식되였던 헬싱키협정(Helsinki Accords)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사이에는 분단된 동서도이췰란드의 관계를 규정하고 관리하면서 정치적차원의 관계를 확립한 동서도이췰란드기본조약과 같은 《한》반도판의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도 1992년에 남북간의 오랜 적대와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며 남북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공존공영을 통한 민족공동체를 건설해나가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의 노력으로 탄생시켰다.

그리고 북의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남의 김대중《대통령》과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하여 창출된 6.15공동선언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사에 굵은 획선을 긋고 6.15통일시대를 열었다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10.4선언이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으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발표한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인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남쪽에서는 이 선언에 기존의 중요 남북간 합의에 포함되였던 군사적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관한 항목이 전혀 포함되여있지 않다는 비판

아닌 비방이 횡행하고있다. 즉 남북간의 교류, 협력단계를 넘어 통일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인 《한》반도평화실현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꼬집고있다.

그러한 비난이 무식의 소치라기보다 반북반통일론자들의 악의의 훼방인것이 분명하지만 이 문제의 해명이 6.15공동선언의 민족사적의의를 바로 리해시키는 동시에 10.4선언의 력사성을 부각시키는 의미를 갖고있기때문에 간명하게 풀어보려고 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재미교포 문명자기자와의 담화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속에 6.15공동선언에 평화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에 관한 내용이 함축되여 밝혀져있다. 그 담화에 의하면 회담때에 대미관계문제를 꺼내면 남측에서 매우 난처해하였을것이라는것, 어떤 의제를 토의하겠는가 하는것을 사전에 합의할 때 남측에서 제기하는 《평화공존》문제와 《평화정착》문제를 토의하려면 자연히 주변국들문제가 거론되기때문에 그 문제는 피하는것이 좋다, 우리가 제 코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있으면서 주변국들문제까지 론의하겠는가, 그러므로 1단계에서는 우리 민족문제를 조선사람들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한다는것만 합의보고 그 다음단계에서 주변국들문제를 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는것이며 그래서 그 문제는 회

담때 론의되지 않았고 공동선언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와 결정적으로 관련된다. 앞에서 10.4선언발표전야의 정세를 론의하면서 언급된바 있지만 다시말하면 6.15때와는 달리 미국의 2기 부쉬정권에 이르러 북의 대미압박은 련속 가증되면서 대미관계에서 주목할만 한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정세변화로 해서 2000년 당시에 언급하지 못한 《한》반도평화문제가 10.4선언에는 들어가게 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우여곡절속에서도 력사는 발전하며 시대는 전진하는 법이다. 10.4선언이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으로서 《한》반도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정도라고 력사의 평가를 받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를 더 짚어보아야 한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평화인가, 통일을 위한 평화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칫 평화문제가 현재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분단고정화, 영구화로 이어져 부정적인것이 되는것이다.

오늘의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위기가 외세에 의한 분단에 근원을 두고있다는 점을 념두에 둘 때 그런 분단을 그대로 둔채 평화적관리를 위한 평화란 공고할수도, 도대체 존재할수도 없는것이며 사상루각에 불과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경우 진정한 평화는 통일을 지향하는것으로 될 때 정착될수 있고 공고화될수 있는것이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수도 있는가? 통일인가? 평화인가? 이런 질문도 있다.

평화와 통일, 그것은 둘중에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량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국가에 있어서 통일은 지상의 명제다. 이런 론리대로 가면 평화를 통일에 우선시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먼저 성취하지 않고는 통일도 성취할수 없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가 먼저 정착되여야 한다는것이 평화통일전략의 내용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가 선행되여야 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에는 《한》반도의 평화구조가 선행되여야 한다.

그것은 남과 북이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는 립장에 확고히 서서 10.4선언 3항과 4항의 합의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는가 어떤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때 남북간에 진행되는 모든 접촉과 교류는 자연히 남과 북사이의 평화를 보장하게 될것이며 분단의 합법화가 아니라 통일의 종점으로 향하게 될것이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이름의

10.4선언을 생각할 때마다 지구상에서 랭전이 종식된지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랭전의 《외로운 땅》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초긴장상황을 극복할 평화질서구상의 제의에 대해 우리는 깊이 되새겨보지 않을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은 하나의 민족을 갈라놓는 상처를 지구상의 몇곳에 남겨놓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여러 련합국에 분할점령되였던 오스트리아가 1947년 중립주의의 통일국가로 재생했다. 전후 분할되였던 도이췰란드는 동부의 사회주의국가와 서부의 자본주의국가로 공존하는 《두개 도이췰란드》의 길을 걷다가 1990년에 서도이췰란드주도의 흡수통일의 형태로 통일하였다. 아시아에서는 남북웰남이 오래동안 계속된 내전끝에 1976년 하나의 사회주의국가로 통일되였다.

아직도 분단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전쟁재발의 끊임없는 위험이 늘 민족적삶을 위협하는 랭전의 집결처로 《한》반도가 남아있을뿐이다. 《한》반도에서는 평화의 시계가 수십년간 정지해있었다.

1972년 7월 4일, 남북사이에 긴장완화와 통일의지를 밝히는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으로 멈춰있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듯 보였었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정략화한 남쪽 《정권》의 통일의지결여로 해서 성명발표이후 얼마 안 가서 시계는 다시 그 움직임을 정지해버렸다.

1980년대 이르러 상황은 본격적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대결구조를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적움직임이 1984년에 들어서면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날로 증대하는 전쟁위협이 《한》반도정세의 첨예화를 극한적상황에까지 몰고간 결과로 전쟁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모색이 불가피하게 됐던것이다. 변증법적표현으로 말하면 평화에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질적변화를 나타냈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변화의 시발은 1984년초, 북이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질서를 구축하자는 제의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 대화를 요청한 공개적제기로 시작되였다.

북은 정부(정무원)와 최고인민회의(국회) 각기의 결의를 담은 공식서한을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에 발송하였다. 그 서한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위협이 일촉즉발의 상태에까지 악화되였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북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공식서한은 이 고압적위기를 풀고저 하는 의욕을 천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분단된 남북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겠다는것이였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한 북의 구상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북과 미국이 6.25전쟁(1950—1953년)의 정전협정 조인당사자로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것으로써 정전협정을 대치하는것이다. 북은 그전에는 평화조약체결이전에 정전협정이 정한대로 《한》반도에서 유엔기발을 앞세운 모든 외국군대(사실상은 남《한》의 미국군대뿐이다.)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의에서 북은 그 태도를 바꾸어 미국군대의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평화조약협상 과정의 의제로 삼아도 좋다는 신축성있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중요한 진전이며 미국으로서도 체면을 유지할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였다.

미국과의 제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면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이 상호 불가침선언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평화적통일을 위한 민족회의개최에까지 진전심화시켜나가자는것이였다. 북은 그후 더욱 태도를 완화하였다. 즉 미국이 북의 진의를 의심해서 평화조약체결이 어렵다고 한다면 북은 남쪽을 향한 군사적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성의의 표시로서 먼저 남북사이에 불가침선언(협정)을 선행시켜도 좋다고 하였다. 북은 오래동안 남《한》의 군대가 미국인의 작전지휘권하에 있으므로 군사적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 태도를 바꾸어 대등한 상대로 취급한다는 표시였다.

제안당사자인 북의 의도는 《한》반도의 군사위기구조를 평화구조로 바꾸기를 원한다는것이였다. 북의 3자회담제의는

단순한 평화공세가 아니였다. 오히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나라들과의 정치, 경제적접촉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조성하려는 진정한 화해의 신호라는 해석이 유력했다.

당시 진행된 《한》반도관계 국제회의들에서 표시된 외국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로 이 점에 일치해있었다. 평양을 방문하고 그쪽의 지도층들과 여러차례 대화를 가진 서방세계 학자들의 결론도 그러했다.

그러나 남과 미국은 이 제의를 거부하였다. 미국은 북의 성의를 불신하고있었으며 북에 대해서는 오직 힘에 의한 압력을 가함으로써만 굴복시킬수 있다는 본래의 립장을 고집했다.

《한》반도의 평화의 시계는 이번에도 정지된 시간을 움직이게 할수 없었다. 평화의 시계는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포기와 평화협정의 체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구축으로 된다는것을 호소하면서 서있을수밖에 없었던것이다.

6.15통일시대에 들어와 《한》반도평화정착문제는 6.15공동선언에서 뿜어져나오는 변화의 에너지를 받아 활발히 론의되고 드디여 10.4선언을 통해 가능성을 지닌 현안으로 상정되였다.

10.4선언을 실행할 첫해인 2008년 북의 새해공동사설은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천명했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진 주인도 우리 민족이라는 립장에서 그 누구도 《한》반도의 주인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책임과 역할을 대신할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문제를 외세의 손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민족은 순간에 전쟁의 화염속에 휘말려들수 있다.

오늘의 전쟁은 결코 과거와는 다르다. 그야말로 제2의 6.25전쟁은 남북공멸의 싸움판이 될것이다. 이것은 현실이고 하나의 력사법칙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평화가 과거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우리가 살고있는것이 사실이다.

전쟁을 막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평화정착에 관한 합의들을 성실히 리행하여 평화협정의 체결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구축을 실현하는것으로 되는것이다.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

2010년 8월 27일 《MBC》 TV 9시 《뉴스 데스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름끼치는 보도를 랭정한 목소리로 내보내였다.

… 어제 끝난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한》미련합군은 휴전선을 넘어 전쟁개시 두달만에 평양을 포위했습니다. 평양 포위작전은 미군이 주도했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제거연습도 실시했습니다. 열흘간 진행됐던 이번 연습은 평양을 수복한 뒤 자유화시키는 과정으로 끝을 맺었는데 통일부와 경찰청 등도 참여했습니다. …

보도는 첫구절부터가 섬뜩할 정도로 레사일로 지나칠수 없는 심각한 내용이였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위기의 극점에 놓여있다.

이 전환기적과도기에 남과 북은 서로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의 길을 튼 6.15공동선언과 이를 진척시키는 구체적내용을 담은 실천강령인 10.4평화번영선언을 한층 더 받들고

구현하여 외세에 의해 강제분단된 《한》반도가 이제는 자주적으로 이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마무리해야 할 결정적시대를 맞이한것이다.

그러나 북과 합심합력하여 이 민족사적책무를 리행해야 할 리명박《정권》은 력사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거스르면서 배반의 력사를 향해 돌진하고있다. 이 결과 《한》반도는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이 아니라 마치 1950년 6.25전쟁이전상태로 진입한듯 전쟁위협이 가중되고있다.

리명박《정권》 5년은 오로지 반북대결과 10.4선언부정으로 일관한탓에 남북수뇌들이 심혈을 기울여 성취한 10.4선언은 형태만 남았다. 남북관계는 통일을 향해 단 한 발걸음이라도 나아가기는커녕 분단사상 최악의 상태로 뒤걸음질쳤다. 《한》반도에는 예기치 못했던 우발적사건으로도 어느 순간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상황이 조성돼 지속되고있었다.

남쪽에 《실용정권》이 들어서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용도폐기할 때부터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넘어서서 전쟁의 서막을 열고있었다. 남쪽《정권》당국자의 행태에는 연평도무력충돌과 같은 국지전이 이미 배태되여있었던셈이다.

《호국》훈련이 펼쳐지는 가운데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포격전이 전개되여 해상의 함선들끼리가 아닌 륙지와 륙지사이의 무력충돌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즈음하여 미국국방부와 국무부가 비상근무를 하고 전세계가 《한》

반도에서 전쟁발발이 림박했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있었다. 《한》반도는 화급한 전쟁위기로 빠져들어갔었다.

다행스럽게도 북측이 맞대응을 하지 않은 인내성으로 하여 전면전쟁의 위기는 비껴지나갔지만 남측은 이후에도 단독무력시위를 지속적으로 벌렸다. 호전광으로 지목을 받은 리명박《대통령》은 막대한 응징, 군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11월 23일), 가차없는 대반격(12월 23일),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수 없다(12월 27일)는 위험수위가 높은 발언을 늘어놓으며 마치 전쟁을 이미 결정한듯이 정세를 막다른 벼랑끝으로 몰아갔다.

남쪽의 《말》지는 이미 년전에 연평도해상에서의 무장충돌을 가상한 제2의 6.25전쟁도발씨나리오를 《〈자유를 위한 희생〉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선보인적이 있었다.

《200×년 11월 12일 새벽 4시, 한반도연안으로 진출한 미태평양함대의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로부터 레이다공격용〈EA-6B〉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동북쪽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로부터 한시간후 오산, 군산, 수원의 미공군기지로부터 〈F-117〉스텔스공격기, 〈F-15〉전투폭격기, 〈E-3A〉조기경보기, 〈EF-111A〉전자전기 등이 꼬리를 물고 날아올랐다.

드디여 〈자유를 위한 희생〉작전이 시작된것이다.

… 미군순양함이 공해상에서 항행하던 북화물선을 나포

하고 북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미국이 대북해상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연평도해상에서 북방한계선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사이에 류혈적인 무장충돌이 벌어진다. 부쉬는 미군에 〈데프콘 3〉을 발동하고 대북타격명령을 내린다. …》

때도 지역도 꼭 들어맞힌 《말》지의 씨나리오는 결코 가상이 아니였다. 제2의 6.25전쟁에 대해 적시에 날린 심중한 경종이였다.

연평도사태는 남쪽《정권》이 남북간 전쟁의 안전변이라고 할수 있는 10.4선언의 실행을 거부하고 북쪽을 공격하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한것이 주요원인이였다.

남북은 10.4선언 5항에서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0.4선언이후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정전체제종식과 평화체제구축리행계획을 론의했다.

만일 10.4선언대로 서해의 《북방한계선》일대를 평화지대화했다면 연평도사건과 같은 위험천만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는게 중론이였다.

정전후 서해상에서의 남북간의 충돌은 연평도사건이전에도 있었다. 특히 꽃게잡이철이 되면 량측 해군이 서로 신경을 세우고 때에 따라 충돌사건도 일어났던 그 근원은 《북방한계선》을 령해선으로 간주하는 남측과 불법선으로 여기는

북측의 립장차이에 있었다.

6.15선언이 발표되기 전해인 1999년 연평해전과 그후인 2002년의 서해교전도 그렇게 해서 발생했던것이다.

남측의 현 당국자가 집권초기부터 10.4선언에 대해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방한계선》을 포기한 《용공리적문서》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악질적으로 반대한것도 론난이 많은 《북방한계선》에 준거를 둔것이였다.

이에 관해서 강정구교수는 《2002년 서해교전때 북의 북방한계선침범을 〈정당한 월선〉》으로 주장했다고 해서 립건되는 곡경을 치렀다. 기소된 내용을 보면 강교수는 분명히 《북방한계선》의 적법성을 부정했다.

1953년 8월 교전일방인 미군측은 타방인 북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서해해상에 《북방한계선》, 일명 《클라크선》이라는 남북사이의 차단경계선을 설정하였다.

이것은 복잡한 수역에서의 경계선인 경우 마땅히 쌍방사이에 원칙적인 합의를 거쳐 설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례에 위배되는것이였다. 《북방한계선》이 일방적으로 설정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1990년대 판문점 북미장령급회담때 미군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바 있다.

정전협정 13항 ㄴ목에는 서해의 황해도와 경기도경계선의 연장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섬들가운데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5개 섬은 유엔군측의 군사통제하에 두지만

나머지 모든 섬들과 수역은 북측의 군사통제하에 둔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이 정전협정의 요구에도 배치되는 계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북방한계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양법에도 저촉되고 있음이 또한 지적되고있다. 국제해양법협약들에는 해상경계선확정과 관련한 등거리원칙, 공정성의 원칙, 자연연장성의 원칙을 비롯하여 해상분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포괄되여있다. 《북방한계선》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러한 해양법협약의 원칙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어 불법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고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에 대한 남측의 기존관례화는 북측의 주장대로 부정된다.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의 분쟁은 그동안 서해상에서 여러차례의 무장충돌사태를 빚어냈고 남측에 의해 의도적인 무장도발의 빌미로 악용되여왔다. 최근에 와서 서해해상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 민족의 당면한 핵심과제는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구조를 공고히 정착화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당국의 대북적대시정책기조에 따라 펼쳐진 세부

적인 대북정책들은 결국 남북관계를 전면대결과 파탄상태로 몰고가 전쟁위기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천안》호침몰사건이다. 이 사건을 두고 6.15, 10.4선언지지자들은 《한》반도의 력사 방향인 평화체제구축 가로막기의 전형이라고 비평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사이 근해에서는 남쪽의 해군구잠함 《천안》호가 갑자기 두동강이 나면서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침몰사건으로 하여 1 200t짜리 《천안》호에 승선했던 《한국》군 104명중 46명이 죽거나 실종되였다.

《천안》호침몰사고가 터지자 남쪽당국은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을수 없는 조사결과와 증거자료를 내대고 사고원인을 북쪽해군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단정한 후 유엔안보리사회에 상정, 지자제선거에 악용, 전쟁부추기기 등 위험한 행보를 보였다.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미국은 북이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부산스럽게 남쪽을 지원해나섰다.

남쪽당국자들은 《〈천안〉함을 잊지 말자.》, 《연평도를 잊지 말자.》며 반북대결을 고취한다. 연평도포격사건도 본질은 남쪽 호전적극우세력의 전쟁유인획책으로 해서 빚어진 사건이라고 볼수 있다. 《한국》판 《잊지 말자》시리즈인셈이다.

전쟁에 이골이 난 미국정치사의 갈피에는 《잊지 말자》 시리즈라는 전쟁유인모략이 기록되여있다.

그럼 미국이 《잊지 말자》시리즈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 제 리속을 챙긴 다음에야 진범이 밝혀진 사례를 짚어본다.

《〈메인〉호를 잊지 말자.》

1898년 당시의 에스빠냐령 꾸바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편승한 미국은 미국인보호를 리유로 전함 《메인》호를 아바나항에 보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 전함이 폭파되고 260명의 미국인이 희생되였다.

당시 미국의 신문들은 미전함폭파가 에스빠냐의 음모라고 단정하고 에스빠냐정부가 미국인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며 과장보도했다.

이것이 《〈메인〉호를 잊지 말자.》는 대합창이 되여 에스빠냐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된 끝에 국민여론이 에스빠냐에 대한 군사제재쪽으로 치달았다.

1898년 4월 미국은 에스빠냐에 선전포고를 했고 당시 딸라박스였던 꾸바(세계 제1의 사탕산지)뿐아니라 필리핀, 괌도, 뿌에르또 리꼬를 눈깜박할 사이에 먹어치웠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미국—에스빠냐전쟁이 시작된지 70년이 지난 1969년 미전함폭파의 진범이 놀랍게도 에스빠냐사람이 아닌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알라모를 잊지 말자.》

1835년에 지금의 미국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메히꼬령이였던 텍사스로 이주한 미국인들이 미국의 사촉아래 텍사스의 독립운동을 일으켜 메히꼬군과 전투상태에 있었다.

당연히 미국은 독립의용군을 지원했지만 미국의 의용군은 알라모로 쫓겼다. 의용군은 몇차례나 전황을 미군에게 전하고 원군을 기다렸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하며 의용군의 전멸을 기다렸다.

그리고 메히꼬군이 알라모를 떠난 뒤 살해된 의용군의 참상을 과대선전하며 《알라모를 잊지 말자.》는 여론을 부추겨 메히꼬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 결과 미국은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어를 점령하여 메히꼬의 52%에 해당하는 광활한 령토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진주만을 잊지 말자.》

1941년 11월 27일 하와이의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루즈벨트대통령으로부터 《일본군에 선제공격을 당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받았다. 함대사령관은 2척의 항공모함과 신예함 19척을 먼바다로 이동시키고 낡은 함정 16척만 진주만에 남겨두었다. 일본군전투기들이 접근공격하기 쉽게 이 함정들을 직선으로 배치하고 더 나아가 레이다를 못쓰게 만드는 등 일본군의 잠수함이 입항할수 있도록 진주만의

통로를 완전히 열어놓기도 했다. 그런 다음 12월 7일 일본군의 공격을 기다렸다.

일본의 진주만기습통지를 받았을 때의 루즈벨트대통령은 랭정한 표정이였다.

이처럼 일본군의 공격을 성공리에 유인한 미국은 2 400명의 미군을 죽인 일본군이 《미국을 감쪽같이 속이고 공습했다.》는 뉴스를 날렸다. 이 뉴스는 《진주만을 잊지 말자.》는 격문으로 돌변하여 당시 전쟁반대였던 미국여론을 뒤집고도 남음이 있었다.

9.11사태이후 미국인의 아랍인증오심이 폭발하여 아프가니스탄전쟁선포를 낳았듯이 진주만공습직후 《일본타도!》의 함성이 미국전역에 메아리쳤다. 드디여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러한 전쟁유인모략의 일단이 후날 《도라(호랑이) 도라 도라》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여 인기를 끌기도 했다.

력사는 다람쥐 채바퀴 돌듯 되풀이되는가보다.

진주만공습으로부터 꼬박 60년이 지난 2001년 《잊지 말자》시리즈 《세계무역쎈터를 잊지 말자》, 《라덴을 잊지 말자》는 미국전역에 물결치며 미국특유의 《민족주의》를 고양시켰다. 《라덴을 잊지 말자》는 구호는 미국에서 일어난 돌발사태의 책임을 모두 아랍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미국정부는 라덴을 9.11사태의 범인으로 락인찍고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라덴을 잊지 말자》는 구호를 내건 반테로전쟁을 통해 세계지배의 틀을 다지고 있었다.

과학발전을 자처하는 미국이 9.11사태에 대한 과학적인 수사도 생략한채 덮어놓고 아프가니스탄을 맹폭했다. 9.11사태의 진범이 언제 밝혀질지 모르나 미국은 《라덴이라는 악마》를 리용하여 국익을 챙겼다.

일방주의로 포장된 이 미국식민족주의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낳고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북, 이라크 등과의 전면전을 부르는 사태로 변화되여간것이다.

9.11사태 5일후 부쉬는 국제테로조직에 대항하는 미국을 《십자군》에 견주고 이른바 《깡패국가》, 《악의 축 국가》를 상대로 십자군원정의 열정을 불태워나갔다. 라덴을 때려잡는다는 명분으로 탈리반정권을 붕괴시킨 다음 미국의 마음에 안 드는 《깡패국가》들을 차례차례 족칠셈이였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이긴 미국인들은 성조기를 휘두르며 《God Bless America》(미국국가)를 찬송하고있다. 마치 태평양전쟁때 일본인들이 히노마루를 휘날리며 기미가요를 불렀듯이…

미국인들은 미국의 지배계급이 《잊지 말자》시리즈로 자국 군산복합체의 리익을 높여주는 내막도 모르고 여기에

박수를 치고있다.

이러한 모략이 《한》반도의 서해에서 재현되였던것이다.

남쪽의 해군함선 《천안》호가 두동강이 나 침몰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은것은 미국이였다.

얼마전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난 전 일본수상 하또야마는 《천안》호사건이 오끼나와미군기지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수 없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였다고 실토하였다.

비록 저렬한 수준의 모략이긴 하지만 미국은 《천안》호 침몰을 사건화함으로써 일본의 하또야마내각을 붕괴시켰고 후덴마기지의 미국이전을 추진하던 일본의 탈미시도를 즉각 중단시킬수 있었다.

오끼나와에는 지리적으로 대만과 제일 가까운 미군의 출격기지인 후덴마비행장을 비롯하여 주일미군무력과 시설의 75%가 집중되여있을뿐아니라 미해병대의 아시아, 태평양방면주력이 둥지를 틀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에 있어서 오끼나와 후덴마비행장의 이설문제는 미일동맹의 운명,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운명과 관련된 관건적문제로 상정되여있었다.

오끼나와의 후덴마미군비행장이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미국이 이 기지를 견지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위기》를 립증할만 한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다는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천안》호사건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바쁘게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군과의 조정밑에 《북조선으로부터의 장래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것을 미군에 지시함으로써 《북조선위협론》과 그에 따르는 지역의 《안보불안》이 극도에 달한듯이 여론을 오도하였다. 힐러리국무장관의 서울과 도꾜방문 역시 《한》반도의 《매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설득 쇼》였다.

그리하여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미일사이에 말썽이 많던 오끼나와미군기지이설문제는 미국의 의도대로 전격타결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당면하여 남쪽에 대한 대량의 무기판매와 《한》반도 서해에로의 미항공모함진출구실을 마련하였고 2012년에 계획된 《한국》에서의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연기하려는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천안》호사건은 미행정부의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북조선에 대한 투자환경을 파괴하고 북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질식시켜보려는 저들의 《전략적인내》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였던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전쟁연습을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군사적포위망을 강화하고는 미—일—《한》, 미—일—오스트랄리아, 미—웰남, 미—인디아와의 중국겨냥 군사협력과 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었다.

《천안》호사건은 미국에게 비록 단기적이긴 하지만 1석 3조의 효과를 낸 만병통치약이 된셈이다.

《〈천안〉함, 자작극이였다! 미언론인 폭로에 경악!!》, 이것은 《네이버》 2010년 6월 1일에 실렸던 말그대로 충격적인 기사의 제목이다.

《그동안 〈천안〉함관련 포스트를 끄적여오면서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있었는데 리명박은 〈천안〉함침몰참사를 지방선거 등에 악용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미국의 언론인 웨인 멧슨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 우리는 극우주의자 리명박과 포장지만 바꾼 진보주의자 오바마에 의한 전쟁음모앞에 놓여있는 참담한 현실이 되였습니다. 리명박이나 한나라당이 〈전쟁불사〉를 웨치는 리유가 명백해졌는데 웨인 멧슨의 뉴스를 청취하고있다가 보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 한반도에서 리명박정권으로부터 미국과 함께 일본의 묵인하에 전쟁으로 치닫는 참으로 위험한 음모가 진행되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있다. 한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우리 민족은 인류력사의 최대위기를 경험하게 될것이다.

이 대목에 이르러 다시한번 반미는 평화요, 친미는 전쟁이며 10.4선언리행은 평화요, 선언백지화는 전쟁이라는 말을

깊이 새겨본다. 평화정착에서의 실패는 곧 전쟁이며 전쟁은 파국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지면 민족공멸로 이어질것이 뻔하다.

이런 전쟁을 막는 길은 반전평화를 위한 온 민족의 단결에 있다. 민족대단결을 보장하고있는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평화와 세계평화를 지키는 민족의 생명줄임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준다. 이 깨달음은 7천만겨레가 6.15, 10.4선언을 철저히 관철할 때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제거하고 민족의 생명을 지키며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반드시 이룰수 있다는 확신을 담고있다.

10.4《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한》반도에서 《우발적》군사충돌을 예방할 안전변이다.

10.4선언은 군사적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문을 넓게 열어놓았다.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하나는 심리적인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측면이 있다.

선언은 2항에서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며 남북관계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명기하였다. 남북간 상호리해와 존중을 토대로 신뢰를 증진해나가는것은 남북관계발전의 기본임을 확인한것이다.

남북간에 이미 여러차례 합의(1992년의 기본합의서 등)한

사안이지만 6.15공동선언발표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경험에 비추어볼 때 남북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신뢰관계가 보다 확고히 확립되여야 한다는 점에 남북은 공감하였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것은 물론 서로 다른 쌍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것이였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군사적문제에서 쌍방의 신뢰가 필요하다.

선언은 3항에서 남과 북이 군사적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군사적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3항은 전쟁행위반대, 불가침의무준수에 대한 남북쌍방의 공유된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군사적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협의를 위해 11월중 국방장관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이 쌍방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거나 통일에로의 과정을 용이하게 진척시키기 위해 대화와 협상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이 공유되여야만 협상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에 따라 대화와 협상에 림하는 남북쌍방의 당국자들은 진지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상대방을 불신하는 태도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테이블에서 론의해야 할 쟁점들이 확실하게,

성실하게 제시되여야 하며 동시에 타협에 대한 융통성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남북이 협상자체를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쌍방간에 걸려있는 제반 쟁점들을 해결하려는 공동의지를 갖는 일이라고 볼수 있다. 이럴 때 협상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로 효률적으로 가닿게 될수 있을것이다.

강조하는 뜻에서 다시말하면 협의된 조치가 체제안보의 위협으로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론의나 조치이든 남북상호신뢰구축과 관련된것들은 《한》반도평화정착과 련관성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것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여나가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10.4선언의 2항과 3항은 그 문맥의 흐름으로 미루어 남북쌍방이 《한》반도평화체제수립에 대한 남북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협상의 뜻을 충분히 보여준것이 아니냐는 해석으로 읽힌다.

그리고 10.4선언은 평화체제구축문제가 《한》반도비핵화와 함께 민족의 공존공영과 직결되는 핵심사안인만큼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문제를 주변국에 맡겨서는 안되며 분단과 대결을 청산해야 할 최고책임자로서 남북의 수뇌들이 물고를 터야 한다는데 공감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한》반도긴장완화 및 군사적신뢰구축은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며 향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은 국방장관회담(2000년 9월) 등을 통해 서해충돌방지조치와 군사분계선지역 선전중지 등 초보적수준의 신뢰구축기반을 마련해갔다.

10월평양상봉기간 남북쌍방은 다시금 남북수뇌의 결단으로 국방장관회담재개 등 남북간 군사분야협력증진에 합의했다.

그리하여 그해 11월에 재개된 남북국방장관회담은 1차회담후 약 7년만에 남북의 국방장관이 마주앉아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 론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되였으며 《한》반도평화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간것으로 평가되였다.

평화가 있어야 민족의 공동번영은 물론 통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10.4선언에 따라 확고한 평화의 토대를 마련해나간것은 시대적요청과 민족적념원에 부응한것이였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도화하자면 총소리만 나지 않았지 법적으로는 물론 사실상 전시상태인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과거 동서도이췰란드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남북간에 전쟁을 치른 관계이므로 전쟁의 일시적중단을 뜻하는 정전협정에 의한 불안한 관계가 하루빨리 정리되여야 이 땅에 평화

를 정착시킬수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데서 가장 중심적이고 선차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다.

이미 언급이 되였지만 10.4선언의 4항은 남과 북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수뇌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4항의 요점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한》반도평화의 실질적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여 관련 당사국간 협의를 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그간 관계국과 론의하여온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것이다.

《한》반도상에 전쟁의 위험이 항상 존속하는 까닭은 6.25전쟁을 전투행위로서 일단 끝맺게 한 정전협정이 정전후 5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쟁당사자들사이의 평화적존재 및 관계를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하나의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관계를 정상화하는 평화협정이 이처럼 장구한 기간 체결되지 않은 사실은 세계전쟁사상 전무후무하다.

오늘도 155mile 군사분계선에는 남북의 군대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있고 남쪽의 전국토가 미국의 군사기지화되여있

으며 남쪽땅은 가히 세계무기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촉즉발의 시기에 강토는 순식간에 재더미로 변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군사적대립상황을 그대로 두고 통일을 운운하는것은 총을 잡고 화해하자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남북문제에서 중요한것은 군사적문제로 되며 여기에서 또 중요한것은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것이다. 아직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는것은 상식으로 되여있다.

랭전이 종식된지도 오래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첨예한 긴장이 계속되여온 《한》반도, 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곧 통일을 위한 노력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여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구조의 정착이 선결되여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통일로 가는 길에서 법적, 제도적의미를 갖는 평화협정에 대해 고찰해본다.

일반적으로 평화협정(treaties of peace)은 전쟁을 끝내려하는 교전당사자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전쟁을 끝내는 방식에는 적대행위의 중지, 정복, 평화협정의 체결등이 있으나 평화협정의 체결이 가장 바람직하게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라 할수 있다. 이는 적대적인 교전당사자의

주장과 리익을 정확한 용어로 분명히 정리할수 있기때문이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정인 경우 그 협정의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평화협정 또는 평화조약으로 정의된다.

평화협정은 불가침조약과 구별된다. 물론 량자는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평화협정이 불가침조약과 함께 하나의 조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화협정은 전쟁상태를 전제로 전시에 체결된다는 점에서 평화시에 서로가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불가침조약과는 구별된다.

한편 평화협정은 다른 조약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그 특성이 드러난다. 첫째, 평화협정의 체결권자는 국가원수가 일반적이다. 군사령관은 평화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또한 정전협정, 그중에서도 특히 부분적정전협정의 체결권자는 군사령관이지만 평화협정은 국가원수가 체결한다. 둘째, 국가원수의 조약체결권은 국내헌법에 근거하지만 군사령관의 조약체결권은 국제법에 의해 직접 부여된다. 하지만 군사령관은 평화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셋째, 평화협정은 비준을 요하고 서명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약은 서명시에 그 내용이 확정되고 효력은 비준서의 교환후에 발생한다. 넷째, 서명되였으나 비준되지 않은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약은 비준되지 않으면 효력

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째,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정전협정이 이미 체결되여있는 경우 평화협정이 서명되였으나 비준되지 않으면 이 평화협정은 이전의 정전협정을 개정하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협정에 대한 명백한 의미규정도 《한》반도의 정전협정에 이르러서는 그 빛을 잃는다.

3년 1개월간의 전투행위를 매듭지은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조인되고 같은 날 밤 10시를 기해서 발효되였다. 이 협정은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조건부(제5조 부칙 제62항)로 되여있으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제60항: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당사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발효한 후 3개월이내에 각기의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것을 건의한다.(이 협정문은 《대한민국》은 조인당사자가 아니였고 조인쌍방대표는 《유엔군》(미군)대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였으므로 한글본의 Korea는 《한국》이 아니라 조선으로 되여있다. 법적국제조약문이므로 원문표기에 따른다.)

이 조항은 유엔총회에서 건의안으로 승인되여(1953년

8월 28일 총회결의 제711호의 Ⅲ) 1954년 4월 26일부터 제네바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일방인 유엔가맹국 15개국과 남쪽《정권》당국 그리고 타방인 조선(북), 중국, 여기에 쏘련이 참가한 정치회의가 열렸다.

의제의 중심은 정전협정 제60항의 규정대로 《한》반도의 통일방식과 외국군대의 철수였다.

통일방식에 대해서 《유엔군》측은 유엔감시하에 남북인구비례에 따른 남북동시선거를 주장했고 북측은 유엔이 전쟁당사자이므로 선거감시의 자격이 없다 하여 제네바정치회의 종료후 6개월이내에 중립국감시하의 남북인구비례에 따른 비밀보통선거의 실시를 주장했다.

외국군대의 철수문제에서는 《유엔군》측은 통일정부수립후에 《유엔군》을 철수하도록 주장했고 북측은 총선거실시전에 모든 외국군대의 《한》반도철수를 주장했다.

이와 같이 쌍방의 주장이 맞서 타협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제네바회의는 6월 15일 실패로 끝나고 막을 내렸다. 여기서부터 《한》반도의 평화정착, 평화체제구축문제는 시작된다.

더우기 1953년의 정전협정에는 정전에 대한 유효기간규정이 없기때문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고하는것을 조건으로 교전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쟁행동을 다시 개시하는것이 합법적인것으로 인정된다. 이 점에서도 《한》반도정전협정에 내재

하고있는 특수한 불안정성, 위험성이 지적된다.

이상과 같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살펴볼 때 먼저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하나는 남북 그 어느쪽도 법적으로는 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것이다. 그 두번째는 일반 국제법상 정전의 의미가 전쟁행위의 일시적정지를 의미하지 전쟁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것이다. 즉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평화상태는 회복되지 않으며 정전협정에 의해 전쟁상태가 종료되지는 않는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간의 법적인 상태는 전쟁상태이며 이런 점에서 평화협정체결의 기본적인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것이다.

남북간의 전시체제의 평화체제에로의 정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제 노력들은 그동안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되여왔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강한 념원과 상대방에 대한 강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특히 《한》반도에서처럼 한민족간의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에로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쌍방간의 평화체제구축을 이루어내고저 하는 정치적의사와 준비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이러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전쟁이후 집권층에 의해 체제수호론리, 반공론리의 광범위한 류포속에서 반체제적인것으로 규정되여 지난 수십년동안 극심한 탄압을 받아왔다.

1960년대초 북의 제의로부터 시작된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제 공방전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였다.

그러나 남쪽《정권》은 정전이후 계속되여온 대미종속성으로 인해 북의 제의에 대해 자주적인 대응을 할수 없었고 계속적인 거부로 일관하였다.

즉 남쪽당국과 미국은 평화협정체결 등 제반 협정체결에 대한 북 제의의 본질이 남쪽을 적화통일할 선결조건으로서의 미군철수에 있다고 보았기때문에 론의할 가치도 없는것으로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주목할것은 이러한 론리가 10.4선언에 대한 비판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되고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10.4선언에 명기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등 제반 합의에 훼손을 주기 위해 남쪽《정권》당국과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투적인 론법임은 우리가 수십년간의 체험을 통해 확인한바 그대로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남북이 합의하여 창출한 최상의 평화와 통일의 강령으로 돌아가는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0.4선언의 3항에서의 불가침의무의 준수와

서해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의 설치, 4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의 추진에 관한 합의들은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데서의 큰 전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를 명기한 선언의 5항은 전쟁의 불씨를 안고있는 분쟁지대에 대한 평화적리용의 단초로서 또한 항상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떠돌고있는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에로 견인할수 있는 포괄적구상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 《한》반도주변에서는 여러가지 군사적충돌사건으로 전쟁일보직전까지 긴장이 고조된 사례가 수다했던것을 세상은 알고있다.

공개적으로 보도된 사건으로도 서해 5도해역에서의 충돌, 판문점에서의 쌍방간 무력충돌 등 전쟁을 유발할지 모를 우발적충돌은 수시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및 주변에서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이거나 어쨌든 유발되는 전쟁에로의 확대를 예방 및 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목적의 제도가 항시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것을 《위기관리》라고 표현하는데 《한》반도에서처럼 위기관리체제와 장치의 적절한 가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은 드물다.

이런 맥락에서 10.4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

지대》개발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림진강과 례성강 하구 공동리용 등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내며 서해지역의 평화정착방안을 마련하여 전쟁의 위험요소를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실질적평화를 확보하는 구상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서해는 남북간 군사적충돌위험성이 높은 곳이면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있다. 이러한 서해령역에서 《북방한계선문제》 등 첨예한 군사문제를 군사적방식이 아닌 경제적공동리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서해를 군사대치구역에서 평화협력구역으로 전환하는 발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투철하고 통큰 평화의지의 반영이였다고 관측된다.

그것은 북이 안보상 중요한 지점인 해주를 비롯하여 군사력이 밀집된 서해지역을 경제협력특구로 제공한데서 충분히 감지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조성될 경우 군사적긴장을 크게 완화시킬것이라는 기대에 찬 믿음을 민족의 가슴에 안겨주었다.

서해상 특정구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해 남북어민들의 공동리익을 도모하며 이것을 군사적으로 보장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함으로써 남북간 공동번영의 기반을 확충하는 점에서도 그 의의는

매우 컸다.

이러한 평화번영구상은 10.4선언을 통해 최고위급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리행력을 확보할수 있었던것이다.

《한》반도정전협정의 취약성은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에 있어 복잡성때문에 야기되기도 한다.

정전협정은 《유엔군》을 한쪽 당사자로 그리고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또 다른쪽의 당사자로 하여 쌍방간에 체결되였다. 정전협정에서 남측이 처해있는 당사자소외와 함께 전쟁기간에 남쪽군대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사실은 평화협정론의에서 남쪽의 대미종속성을 강하게 규제하는 근거가 되여왔다. 남쪽《정권》당국의 당사자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리유중의 하나다.

그동안 북은 정전협정의 조인일방인 미국이 《한》반도평화협정의 한쪽 당사자로 되여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평화협정에 책임있는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북의 주장은 국제법상으로나 현실상황을 보나 설득력있는 공감대를 이루고있다.

그런데 10.4선언에는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속에 남과 북의 수뇌를 포함시켜 지정하고있다.

10.4선언에서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놓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주체도 북과 남이고 관련수뇌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는 주체도 북과 남이라는것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그 어떤 변화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북의 립장을 표현한것이라고 리해된다. 이 역시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제시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족적이며 대국적인 립장의 표출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남쪽《정권》은 이에 대해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현 정전체제를 준수하고 남북간 기존합의 및 국제조약을 지켜나감으로써 대비해나갈것이라고 자기의 립장을 표명했었다. 이것은 10.4선언에 대한 옳바른 해석이 아니며 과거 남쪽《정권》당국의 기존립장을 되풀이한것이였다.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견지에서 보면 그것은 뒤집어진 론리이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눈치보기로 비판되여도 변명할수 없을것이다.

10.4선언은 부정될수 없다

《한》반도는 철저하게 20세기 전쟁의 세계질서에 편입되였고 민족의 운명은 강대국의 전쟁놀음에 의해 결정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결과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사의 비극을 겪었으며 아직도 랭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적인 분쟁지역으로 남아있다. 남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있는 우리 현실의 한 단면이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하는것이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전쟁을 준비한다면 평화가 아닌 전쟁이 우리를 맞이할것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을 살펴볼 때 10.4선언을 리행하지 않고는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란 불가능하다.

10.4선언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느냐 아니면 영구분렬과 전쟁을 추구하느냐 하는것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대와 력사앞에 10.4선언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명백히 할 때이다.

그런데 슬프다. 6.15공동선언도 10.4선언도 랭전의 얼음장안에 갇혀 꽁꽁 얼어붙었다. 분렬주의의 망언이 란무하고 전쟁의 위험수위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정권내부에서 정책조정체계의 핵심은 정책의 확고한 지향점이다. 우선적으로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국내정치적으로 그러한 전략적목표를 공유할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정리된 립장이 있어야 정권내부의 정책적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리명박《정권》에서 증폭되고있는 반북대결정책, 북이라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자극적발언, 원색적비방의 배후에는 정책목표의 부재가 작용한다는것이 분명하다. 《흡수통일》론에 대한 고질적인 집착과 대결주의적인식론 역시 알레르기적인 대응으로 나타나고있다.

2010년 《천안》호사건이후 리명박의 행보나 발언 등은 이 땅에 다시 전쟁을 불러오는듯 한감을 자아내였다. 그는 《천안》호사건에 대한 남쪽당국의 공식견해인 《5.24조치》를 바로 전쟁기념관에서 선전포고하듯 비장하게 발표하고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했다.

남쪽《정권》당국은 《5.24조치》의 연장선에서 그해 7월 25일부터 사흘간 1976년이후 최대규모의 《한》미련합해상기동전쟁연습에 최신예전투기 《F—22랩터》와 가공할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참가시키고 거기에 일본까지 끌어들였었다. 그 이후 북을 겨냥해 무려 10여차례이상 련합

또는 단독군사훈련을 벌렸다.

급기야 《호국》훈련이 벌어지는 가운데 연평도포격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국지전과 전면전의 전쟁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리명박《정권》하에서의 대북정책은 전형적인 도발적대정책이다.

만약 6.15와 10.4와 같은 민족의 평화대강을 계승한 《정권》이였다면 이러한 전쟁위기는 아예 발붙일 곳이 없었을 것이다.

리명박《정권》의 대북정책기조와 세부적인 적대도발정책 현황, 이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것인가? 이 문제는 방법론이 아닌 철학의 문제이다.

옳바른 철학을 가진 정치는 정책방향과 설계가 명백하다. 그리고 옳고그른것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분명하다. 반대로 철학의 황무지에서는 잘못된 력사관이 배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족을 반역하는 정치현실을 가져올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치의 한 분야인 통일문제를 놓고볼 때 력사발전에 부합되는 북의 6.15—10.4선언 리행로선과 력사발전에 역행하는 남의 6.15—10.4선언백지화라는 정책현실에서 명백히 립증되고있다.

10.4선언을 부정하는 남쪽《정권》당국의 《실용주의》라는 대북정책기조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잡탕식의 정책, 조합,

구사를 의미하고 기회주의의 전형이다.

리명박《정권》은 청와대를 타고앉은 초부터 10.4선언을 경제적실용주의에 맞게 재검토하겠다고 떠들어대면서 남과 북이 공들여 창출해낸 실천강령에 마구 칼질을 하고있다.

그들은 상호주의를 웨치면서 10.4선언에 대해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 《부도어음 발행》이라며 비난했다. 이것이 10.4선언을 백지화한 대결주의자들의 《실용주의》이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상호주의라는 말의 내용을 한마디로 밝히는것은 어렵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 주고받는것의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주관적이기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권》에 와서 상호주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악용되면서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말로 상징되고있다.

남쪽당국자들의 대북정책론의에서 눈에 거슬리게 자주 나타나는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화와 교류협력정책에 대해 시비를 거는데 사용되여온 용어중에서 가장 악성용어의 하나일것이다. 《왜 일방적으로 퍼주는가?》, 《왜 끌려다니는가?》, 《본때를 보여야 한다.》, 이런 비방중상의 뒤에는 의례히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붙어다닌다. 결국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결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다름아니다.

분단 근 70년, 평화위협 근 70년이라는 통탄할 민족사에 대한 한쪼각의 력사의식이라도 있다면 평화와 통일과 같은

민족문제를 사고파는 식의 《실용주의》로 대응할수 없을것이다.

그 행적으로 보아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줄수 없는 리명박은 인수위시기부터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산하로 편입시키려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이는 남북문제를 한민족내의 특수한 관계로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국제관계로 바꿔놓으려는 대결주의적발상이였다. 이런 발상에 기초해 리명박《정권》이 초기에 내건 대북정책기조는 《실용주의》, 《상호주의》, 《6.15와 10.4선언 사문화》, 《북인권쟁점화》, 《한미군사동맹의 포괄전략동맹화》 등이였다.

6.15와 10.4선언 사문화기조다. 6.15공동선언은 분단 55년만에 남북수뇌가 만나 이뤄낸 민족통일대강이라 할수 있고 10.4선언은 평화, 군사문제를 포함해 전자에 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구체화한 또 하나의 민족평화대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10.4선언을 백지화, 사문화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 동시에 북에 대한 적대도발정책을 로골화한 징표로 된다.

남쪽당국자는 집권하자마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고 하면서 이전 《정권》이 북과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무효이며 리행할 의무가 없다고 공언하였다.

10.4선언발표 1돐을 맞은 그때부터 이미 남쪽에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무효화하려는 리명박《정권》과 《한나라당》(당시)을 비롯한 정치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들이 적라라하게 나타나고있었다.

남쪽당국은 6.15공동선언발표 8돐, 10.4선언발표 1돐과 관련한 민간단체들의 기념행사를 도외시하였을뿐아니라 청와대는 6.15기념행사에 통일부관계자가 명색상 참가하여 하게 된 연설문에서 6.15이후 이룩된 남북관계성과들을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삭제시켰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10.4선언발표 1돐때 기념행사는 보이코트하고 북침전쟁연습장을 찾아감으로써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북을 남쪽사회의 주적으로 여기는 《한나라당》은 북을 통일에 대한 주체로 보지 않을뿐아니라 상호신뢰와 존중은커녕 리명박《정권》과 더불어 북을 더욱 자극하고 《한》반도랭전상태를 지속시키려는 정치적도발들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10.4선언리행을 더욱 방해하고 차단했다. 퍼주고 끌려다닌다, 이런 비난은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의 전매특허였다.

《한나라당》은 더우기 2005년 《보안법》폐지운동이 격화되였던 시기 단식과 장외투쟁을 벌리며 끝까지 《보안법》을 사수하려 하였고 그로 인해 《보안법》은 여전히 살아남아 필요한 때마다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크게 일조하고있다.

《한나라당》과 더불어 뉴라이트전국련합은 리명박《정권》의 출현으로 더욱 힘을 얻고 조직세를 확장하고나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교과서외곡과 6.15, 10.4선언반대운동을 벌리면서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정권》에 힘을 불어넣어주었다.

남과 북사이에 불신과 대결의 분위기가 고조되는가 아니면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가 앙양되는가에 따라 남북관계는 전혀 상반되는 종착점에 가닿게 된다.

현 남쪽당국은 집권기간 남북공동선언에 도전하고 반북대결정책만 추구하면서 남북관계를 최악의 계선까지 끌고갔다.

현 남쪽당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무효화, 백지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통일의 원칙과 그를 위한 핵심문제인 상호신뢰와 존중문제를 다룬 1항과 2항은 아주 큰 의의를 가지고있다. 하지만 10.4선언이 발표된지 1년도 되지 못한 시점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리명박과 《한나라당》은 남과 북의 통일을 열어주는 10.4선언을 전면부정해왔다. 선언에 지적되여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상호신뢰구축은 리명박《정권》의 등장으로 그 시작부터 절벽에 부딪쳤다.

이미 오래전에 락인찍힌 남쪽의 《보안법》은 통일과 량립될수 없는 반통일악법이다.

남의 력대 독재정권은《보안법》을 통치의 금과옥조로 삼아 같은 민족인 북을《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구실로 하여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통일인사들을 박해, 처형하였다.

분단랭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사주에 의해 리승만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이 악법은 60년이 훨씬 지난 오늘에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통일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 《보안법》이 철폐될 때만이 민족대단결 실현의 조건이 마련되고 통일을 위한 민족의 실질적인 노력이 가능하게 된다.

《보안법》은 이미 법이 아니라 오직 남쪽의 우익보수권력을 유지해주는 구실을 할뿐이다. 《보안법》은 남쪽에서 통일론의를 탄압하는 쇠몽둥이며 통일의 문을 걸어잠그는 자물쇠이다. 《보안법》이 있는 한 통일은 료원할수밖에 없다. 그동안 《보안법》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흘린 피는 강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보안법》을 강조하는것, 《한》미동맹을 강조하는것,《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것, 이런것이《실용주의》인가, 리념대결인가. 련방제란 말만 나와도 시비를 걸고 요즘에 와서는 북의 최고존엄에까지 상처를 입히려는 특대형도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화목과 단합,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선언이 남쪽에서의《정권》교체와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그 생명력을 다하지 못한채 죽어가고있다.

리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비핵, 개방, 3000》, 통일부폐지계획, 미국 부쉬《대통령》 방《한》시 북《인권문제》 거론 등이 있었다. 이러한것들은 모두 북을 자극하고 그동안 쌓아온 남과 북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면서 경제교류와 민간교류마저 매우 어렵게 하였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였다.

남쪽당국은 광란적인 반북대결책동과 북침전쟁소동을 벌려 남북관계를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내몰았다.

2010년 3월 《천안》호사건이후 리명박의 행보나 발언 등은 이 땅에 다시 전쟁을 불러오는듯 한 오싹함을 자아내였다. 《〈천안〉함폭침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국면에서 고려될수도 없다.》고 했다. 《천안》호가 북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였다는 해당 당국의 《조사결과》를 정말 믿는다면 그 이상 바보가 없다.

남북간의 전향적인 정치군사적합의들이 모두 무효화된 상태에서 진행된 《한》미합동북침전쟁연습과 미일《한》의 PSI참여니, 유엔제재니 하는 적대행위로 남북사이엔 한치 앞도 내다볼수 없는 군사적충돌의 위기국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남쪽당국의 PSI전면참여는 붙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였다.

실제로 북쪽사람들의 평화생명권을 가장 위협하는 당사

자는 바로 끊임없이 전쟁위협을 자행하는 미국이다. 진정 인권문제를 중요시한다면 먼저 미국에게 《한》반도평화를 담보하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를 촉구하고 이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는 남과 북모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때문이다.

평화와 전쟁은 서로 량립할수 없는 개념으로 된다.

남쪽사회의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보면 임기중 목표를《한》반도평화구도창출에 두고 평화정착화를 추구했던 김대중《대통령》은 6.15공동선언으로 평화의 획기적전기를 열어놓았다. 로무현《대통령》은 전쟁광인 부쉬정권의 대북적대시정책과 핵선제공격독트린의 회오리를 맞아 압력과 시련의 정치적위기속에서도 《한》반도평화를 위한 로정도에서 자기의 설자리를 찾았고 평화체제의 기본합의를 성사시키는데서 력사적인 한쪽 당사자로 되였다. 그것이 10.4《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였다.

그러나 리명박은 10.4선언의 평화정신에 전면역행하고 《한》미동맹을 포괄전략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 평화정착보다는 랭전적적대와 전쟁도발적인 대결로 일관했다.

《한》미군사동맹의 포괄전략동맹화는 미국의 세계지배와 동북아시아지배를 위한 전쟁전략에 남《한》이 의무적으로 편입되는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위험을 원천적으로 가지게 한다.

포괄전략군사동맹은 2009년 6.16《한》미정상회담당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공동의 리념과 가치에 기반한 량자사이의 범세계적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말한다. 북을 《주적》으로 하는 《한》반도지역동맹,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동맹, 적용범위를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중국과 로씨야를 겨냥한 지역동맹, 세계를 겨냥한 지구동맹 그리고 전통적군사안보분야외에 테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공격 등을 포함하는 포괄동맹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이는 원천적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위험을 가지고 민족자주행보를 제약하는짓이고 미군주둔 60여년이라는 민족의 수치에 대한 력사의식이 전무함을 말한다. 또 평화체제구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것이다.

《한》미 량측이 강력히 추진해오고있는 《작전계획 5029》야말로 바로 무력으로 평양을 점령하고 통일을 이룬다는 전쟁계획이다.

《작전계획 5029》는 비전쟁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MOOTW)이라는 대테로전의 일종으로 지난 2008년 12월 22일 성우회 《송년의 밤》행사에서 샤프 《한》미련합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올해 북에 대한 전면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을뿐아니라 북조선의 불안정사태, 정권교체와 같은 씨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면서 언급한 작전계획이다.

여기에는 《한국》군 특전사와 미해병특수부대 등 《한》미특수부대가 《북 자유화프로그람》이라는 이름아래 투입돼 북쪽의 주요도시 점령, 북인민군 무장해제 등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져있다. 그야말로 북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계획이다.

미국은 2005년 《작전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하려 했으나 로무현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전쟁유발가능성과 주권침해요소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아 마찰을 빚었고》 이때문에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겼다는 미국과 남쪽수구세력들의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오바마집권이후에도 이 작전계획은 그대로 가동중일뿐아니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2009년 4월 22일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의 불안정한 사태에 준비하는 작전계획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수립하고있으며 이미 이 작전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리명박《정권》이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부흥》계획이라는 북에 대한 군사점령통치계획까지 세워놓고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1950년대 리승만의 《북진무력통일》의 재판이라고 볼수 있다.

리승만에게 《한》반도평화와 평화통일의 의지가 있었다고

말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는것처럼 리명박에게서 10.4선언을 리행할것을 기대한다는것은 사실상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것과 같은 헛된 꿈이였다.

이러한 구도아래 전쟁발발의 기회만 엿보는듯 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남쪽고위군사당국자들의 호전적발언은 《한》반도를 전운이 감도는 용광로로 달구었고 연평도충돌과 같은 국지전은 이미 예비된 구도였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6.15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일에 시점을 맞춰 2011년 6월 15일에 창설식을 갖고 임무수행에 들어갔다.

언제 서해에서 또다시 대포소리가 나고 포탄이 날아가고 날아오는 대규모군사적충돌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참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서해평화정착에 관한 2007년 10.4선언이 리행되였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닐수 없다.

시간에 반비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정세는 더욱 두껍게 얼어붙고있다.

금강산관광은 단순히 절승경개를 구경하는 관광길이 아니다. 평화의 길, 통일의 가교였는데 현 《정권》이 들어서자 막혀버렸다.

그런 군사지역에 대한 경계는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다. 북의 초병 경비수칙도 례외가 아닐것이다. 민간인이든 관광객이든, 민간인으로 가장한 군인이든 안내원으로 가장한

《국가정보원》관계자이든 조선인민군의 관할인 군통제구역을 침범하면 불상사가 일어나는것이 당연한 일이다.

한 례로 박씨가 조선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곳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전해 6월 북에 억류된 뒤 풀려난 김홍술목사는 자신이 겪은 일을 함께 방북했던 《국가정보원》관계자에게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있다. 금강산은 민간인만 관광가는것이 아니라 《국정원》관계자도 정보수집차로 관광을 간다.

미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한달에 160회정도 고성능정찰기로 불법적인 대북군사정찰을 하고있다. 미국이 북상공에서 정보수집활동을 시작한것은 《푸에블로》호사건발생 이튿날인 1968년 1월 24일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달 50회에서 최근에는 150～160회 이루어지고있다. 《왕비늘(Giant Scale)계획》이라는 명칭아래 전략정찰기를 리용한 정찰비행이다.

지금도 미군은 《KH－11》군사위성과 《U－2》고공전략정찰기, 《RC－135》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 등을 동원해 24시간 정보수집 및 감시임무를 수행하고있다. 금강산특구와 린근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러하기때문에 조선인민군이 긴장의 끈을 늦출리가 없다는것은 이남의 정보기관과 군당국이 더 잘 안다.

생각을 거꾸로 해보자. 북의 관광객이 설악산린근의 군사시설통제구역을 넘어갔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것인가.

서울가운데에 있는 남산과 사당동의 수도방위사령부 군사시설은 접근을 엄금하고 유사시 발포한다. 동서해안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1월 1일에 《대북전단보내기 국민련합》이 경기도 파주시 림진각에서 분계선너머로 북의 체제와 존엄을 헐뜯는 수십만장의 삐라를 살포한것도 이러한 책동의 일환인것이다. 남쪽당국은 《삐라살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극우보수패들의 반북모략소동을 공공연히 비호두둔하는 파렴치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도발적대정책은 단순한 도발과 적대가 아니라 북죽이기를 당위적인것으로 설정하고 북의 붕괴를 유도하고 촉진하려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다. 《흡수통일》론, 《선제공격》론, 실질적인 《주적》론 부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연기, 《급변사태》시 《작전계획 5029》의 실행 … 이를 뒤받침하는 남《한》판 5029인 《부흥》계획, 3대공동체 《흡수통일구상》 등은 북쪽정권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 도발중에도 최고의 도발이다.

오늘의 상황을 두고 남쪽에서는 《남북관계의 시계바늘은 10년전 갈등국면으로 되돌아갔다.》고 평했다. 보수언론까지도 《최악의 상태》, 《남북충돌예고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있다.

그야말로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어떻게 공들인 화해의 탑이였고 얼마나 애써서 열어놓은 협력의 길이였는데 그 10년동안 갈고 닦은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질수 있단 말인가.

10.4선언 부정, 백지화에 대한 종착점은 이렇게 엄청난 지경에까지 와닿게 된것이다. 이 점에 의문부호를 붙인다면 그건 일종의 민족과 평화와 통일에 대한 모독이고 범죄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국가간의 협상결과는 약속중에서도 특별히 엄숙하고 무거운 약속이다.

일반적으로 소위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이 달라질수 있다. 외교정책도 례외는 아니다. 그러나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사이에는 결정적차이가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간 합의를 부정한다면 국제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외교는 단절적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정파의 리익보다는 국가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우선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물론 국가와 국가사이의 협약이 아니며 한민족의 특수한 관계로서의 남과 북사이에 합의된 선언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남북수뇌들이 민족의 총의를 모아 직접 서명한것이며 전민족이 쌍수를 들어 지지, 찬동한 민족대강이기때문에 무조건 리행되여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민족의 운명과 념원이 담

겨있어 국가간의 부문별협약이나 조약에 비할수 없는 무게를 가지게 되며 따라서 그것은 민족지상명령으로서 지속적으로, 절대적으로 실천되여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부정될수 없는 10.4선언을 리명박은 외면정도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무효화, 백지화했다.

가장 교활하고 가장 극단적이며 가장 무모한 반통일범죄들이 리명박집권 5년동안에 거침없이 자행되였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전면차단함으로써 민족의 숨통끊기를 서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을 가로막은것으로도 부족해 북의 최고존엄을 극심하게 모독하는 그 《정권》을 놓고 패륜정권, 민족반역세력으로 단죄하는것외에 다른 말이 더 필요없다 할것이다.

북인민들의 최고존엄에 대한 립장은 지난해 12월 대국상때 보여준 모습에서도 엿볼수 있는 한결같고 절대적인 도덕의리이며 량심이며 감정이다.

6.15, 10.4선언리행과 남북관계개선은 한날 5년짜리 남쪽《대통령》의 광기어린 대결의 마당이 아니라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과 북의 민족공동의 력량을 모아나가야 할 력사적인 장이다.

북은 그렇듯이 심각하고 첨예한 남북관계속에서도 남쪽에 정말 대범하고 아량있는 제의를 했다. 그것은 북과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것을 표명한 북의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서 천명되였다.

그 제안이 너무도 뜻밖의 놀라운것이여서 아래에 요약해서 소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정당, 단체들은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련합회의를 소집하고 현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문제들을 토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민족분렬의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 땅에 또 한해가 왔다.

새해 2011년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가 시작되는 해이다.

우리 민족이 세기가 바뀌는 분기점에서 새 세기의 지평선을 내다보며 얼마나 통일에 대한 환희와 희열에 넘쳐있었던가.

그러나 오늘에 와서 그 감격과 흥분은 간곳없이 사라지고 북남관계는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져 포탄이 오가는 험악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 민족이 세기와 년대를 넘으며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세계면전에서 서로 싸우는것은 더욱 참을수 없는 비극이고 수치이다.

예로부터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서로 불신하고 대결할 리유가 없으며 〈적〉으로는 더더욱 될수 없다.

우리 민족이 분렬된것은 외세때문이며 오늘 북남사이의 첨예한 대결도 외세의 전쟁책동의 산물이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결코 불화와 적대의 원인이 될수 없다는것은 이미 현실로 립증되였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 동족대결정책이 빚어낸 후과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미제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집권 3년사이에 6.15이후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모조리 뒤집어엎고 정세를 전쟁접경의 최극단에로 치달아오르게 하였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의 참변이 터지면 그 재난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북과 남이 서로 헐뜯으며 끝없는 대결과 론쟁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아깝다.

그러한 소모적인 싸움에 민족의 재부가 헛되이 랑비되는것도 더는 참을수 없다.

북과 남은 어떻게 하나 6.15의 흐름을 이어나가 21세

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의 비극을 끝장낼 희망의 년대로,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시대적, 민족적사명감과 책임감으로부터 온 겨레의 평화와 통일의지를 모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년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의 결단으로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중대제안을 엄숙히 천명한다.

1. 우리는 남조선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것을 정중히 제의한다.

대결의 방법으로는 결코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무력충돌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이 지난 3년간의 총화이다.

대화와 협상만이 현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출로이다.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이른 북남관계를 풀기 위해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것이다.

특히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것을 주장한다.

북과 남이 마주앉으면 오해와 불신도 풀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도들이 허심탄회하게 론의될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는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

우리는 조성된 사태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소속과 정견, 신앙의 차이와 과거를 불문하고 민족대단합의 견지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수 있음을 밝힌다.

온 민족이 목소리를 합치고 지혜와 힘을 총동원할 때 전쟁위험은 가셔지고 평화와 통일번영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3. 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갈것이다.

북과 남은 당리당략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된 문제토의에 진지하게 림해야 할것이며 최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것이다.

4. 당면하여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서로의 비방중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것을 제기한다.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은 북남관계를 해치는 불씨이며 군사적충돌을 유발할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다.

서로의 비방중상이 란무하고 자극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속에서는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고 설사 마주앉는다고 해도 순조롭게 추진될수 없다.

북과 남은 이미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들을 통하여 서로 비방중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데 대해 확약하였다.

우리는 북과 남이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대결과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을 이제부터 일체 하지 말것을 호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와 호소에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적극 호응해나서며 해내외의 온 민족과 정의와 진리,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들, 국제기구들, 진보적인민들이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주체100(2011)년 1월 5일 평양》

이러한 련합성명의 구절구절마다에서 강렬하게 표현된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북의 립장이 력사적으로 견지되여온 평화애호적인 통일정책에 뿌리를 둔것임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수 있다. 이 제의에 대하여 누구도 의심할것이 없다.

이는 누가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며 누가 통일의

걸림돌로 되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는 동시에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이 맥박치지 않는 남북관계개선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남쪽당국은 북의 성의있는 제의를 외면해버렸을뿐아니라 그 이후에도 북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

이에 조응하여 북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방위원회성명을 통해 리명박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할수밖에 없었다.

기다리는것도 때가 있고 참는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여 북이 남쪽의 리명박《정권》과는 영원히 마주앉지 않을것이며 도발행위에 대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선언한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다.

그 결과 남쪽당국의 집권종반기를 맞은 시점에서 결국 남북관계는 전면파탄 및 대결상태로 진입했고 《한》반도는 전쟁위기의 와중에 놓이게 되였다.

평화와 통일의 의미가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게 피부로 느껴진다.

남쪽《정권》의 근본적인 변화없이는 그 어떤 개선이나 전진이 있을수 없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한》반도평화체제수립과 통일을 준비하는것이라고 확신한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위험 막자

령토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또 정전후 근 60년간 상시적으로 전쟁발생위기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핵전쟁의 기폭점으로 지목되고있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필연적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핵전쟁으로 번질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전지구적규모의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아주 높은 전쟁구조를 가지고있다.

오늘 세계에서 한민족의 국토가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는것은 《한》반도뿐이다. 북과 남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우리 민족은 《둘》이라는 관념 그자체를 거부하고 《둘》로 되는 정치적구상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민족은 60여년전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그 결과로 거의 200만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령토의 통일은 이 시간까지도 실현되지 않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00회 가까운 크고작은 전쟁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지만 세계《최강》이라는 미국을

비롯한 16개 국가가 전쟁의 한쪽편이 되여 참전한 전쟁은 이 반도우에서 전개되였을뿐이다. 국제평화기구로 출범한 유엔이 평화수호의 주도자로서가 아니라 직접 침략전쟁행위의 일방 당사자로 되였던것도 이 《한》반도에서뿐이다. 지금도 유엔은 법적으로 여전히 남《한》을 지원하는 하나의 전쟁당사자로 남아있는것이다.

3년동안 계속된 전쟁이 끝난지 몇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반도우에는 전쟁의 재발을 예방하거나 평화를 담보할 법적장치가 사실상 없다. 있다면 전쟁 쌍방사이의 군사적위기를 제대로 관리할수 없는 정전협정뿐이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사후처리를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가 소집된다. 《한》반도의 군사정전위원회는 1985년말 현재 자그만치 427차회의의 실적을 가짐으로써 세계 군사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단일전쟁과 관련된 협상의 최장기록을 수립하였다.

《한》반도의 허리를 꿰질러 동서로 달리는 군사분계선은 240km의 길이와 4km의 폭(지형, 지세에 따라 1km미만인 곳도 있다.)으로서 쌍방의 군사력을 떼여놓고있다. 이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핵전쟁의 방아쇠역할을 할지도 모를 막강한 군사력이 남과 북으로 대치되여 상시림전태세로, 아니 격동상태에 놓여있다. 현재 남북 량쪽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같은 길이의 전선을 놓고 대치하는 군사력집중도에서

세계최고의 밀도를 보이고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상주적인 3만명선의 지상군병력외에 각종 전략 및 전술용핵탄두를 《한》반도의 남쪽에 배치하고있다. 미국정부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남쪽에 미국핵무기배치의 세부사항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밝힌바는 없으나 핵무기배치에 대한 사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로 되여있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박차를 가하면서 백수십억US$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반도의 남쪽지역에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2003년 《한》미년례안보협의회에서 락착된 주《한》미군 재배치는 지상무력을 중시하던 재래식작전방법에서 벗어나 원거리에서의 타격능력을 높이고 해공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이것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수행능력을 높여 반도의 북쪽을 《선제공격》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만큼 《한》반도는 고도로 가열되여있는 핵전쟁의 열점지역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국방부의 1983년《국방보고서》는 레간행정부의 《한》반도핵전략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있다. 쏘련이 중동산유지역에 개입할 경우 미국은 쏘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석유자원지대를 수중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동북아시아의

동맹국군사력과 함께 북조선을 공격하고 북조선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한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팀 스피리트》가 바로 이런 상황을 가상한것이라고 보도되였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전략이였다. 이 민족은 불행하게도 외세에 의해 분단되여있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중동과 그곳의 석유자원쟁탈전을 위한 미쏘의 패권싸움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핵폭탄으로 초토화되여야 할 리유는 없는것이다.

미국국방부 보고에서 《… 동북아시아의 동맹국군사력과 함께 북조선을 공격한다는 전략의 동맹국군대》란 중국도 일본도 아닌, 다름아닌 남《한》군대를 지목한것이라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적론리로도 추측이 가능하다.

《한》반도에 상존해온 핵전쟁위협에 관해서는 근 30년전의 일이지만 서울을 방문한 에드워드 마이어 미국륙군참모총장의 공개적발언이 립증해준다.

《한국의 경우 핵무기의 사용을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야전군사령관 즉 한미련합군 사령관이 량국의 대통령에게 핵무기사용을 건의한다. 한국에서의 핵무기사용은 가맹국 15개국 정부와 일일이 합의해야 하는 북대서양동맹(NATO)의 경우처럼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다.》(1983년 1월 23일 서울발 AP, UPI통신 회견기사)

마이어의 발언이 깨닫게 해주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전쟁전략의 요점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사용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되여있으며 6.25전쟁당시 맥아더가 원자탄을 사용해보려는 구상을 했다가 트루맨대통령에 의해서(물론 영국을 비롯한 서방동맹국들의 압력때문이였지만) 파면당한 그런 경우와는 달리 주《한》미군사령관이 핵탄사용의 결정권을 쥐고있다.

1983년 9월 동북아시아의 쏘련 최고기밀방위전략기지상공을 거쳐 싸할린상공에서 끝난 KAL기격추사건은 순간적으로 미쏘 량국의 동북아시아지역 핵군사력을 일촉즉발의 림전태세로 가동케 했다. 당시 남쪽지역안에 배비되여있는 미국 핵전력이 가동했으리라는것은 초보적군사지식에 속한다.

《한》반도상의 군사적긴장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가 반도상에 배치된 외국핵무기의 철거임은 너무나 명백해진다.

《한》반도는 세계적핵전쟁의 가장 허수룩한 방아쇠로 되여있다.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험성이 고전압으로 충전되여있는 세계의 핵폭발점이다.

세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핵전쟁위기를 1968년 80여명의 승무원들과 함께 미국의 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미국이 얕보는 《5등 국가 북조선》해군에 의해서 북령해내에서 나포된 사건이라든가, 미국의 전파탐지정찰기 《EC—

121》기가 역시 북령공에서 격추된 사건 같은 중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핵전쟁위협하에 놓여있는 우리 땅, 우리 민족의 불안한 처지를 비로소 인식하였을것이다.

미국의 그 전자첩보기와 첩보함사건은 그 당시 미국정부의 핵보복도 불사한다는 위협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위험을 일촉즉발의 막바지에까지 이르게 하였었다.

1980년대 미《한》의 《팀 스피리트》군사훈련을 보면 아예 공공연하게 북을 지칭하는 핵선제공격이 분명히 포함되여있었다. 그 이후 미국의 정부당국자와 언론이 얼마나 북폭격, 북선제공격, 북핵공격을 운운하였는지 일일이 기억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던것이 1990년대부터는 《북핵문제》라는 새로운 쟁점이 북미대결의 성격을 규정지으면서 미국의 핵선제공격독트린이 출현되고 전쟁위기가 심화되였다.

북핵문제의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패권주의에 있다. 미국 같은 강대국이 핵을 보유하면 정당하고 북과 같은 작은 나라가 핵을 보유하면 범죄로 된다는 론리는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다. 미국이라는 제국의 패권이 관철되는 체제를 《평화체제》라 하고 그 《평화》를 위협하는 북의 투쟁에 대해 《비평화》적이라고 문제시하는것은 그 또한 인류량심을 저버린 위선의 론자들뿐이다.

이런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량자의 대결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20년이상 지속되여왔다. 랭전체제해체로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에 제동을 걸수 있는 국제적전쟁억제력이 사라지자 미국은 핵무기를 앞세워 북에 대해 로골적으로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군사적압살정책을 펼쳤다.

1990년대이후 미국의 대북군사적압살정책의 특징은 핵선제공격전략이라는데 있다. 미국은 북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핵전쟁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할수 있는 군사적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갔다.

미국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2002년 10월 7일)는 지난 여름 부쉬행정부가 마련한 선제공격방안의 한 목표물로 북측의 대량살상무기를 상정하고 남쪽 《정권》당국과의 사전협의없이 기습공격을 통해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방안이 미국국방부에서 검토됐다고 보도했다. 부쉬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의 첫 대상국가가 북이라는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1957년부터 북을 겨냥한 핵무기를 남쪽에 배치한 미국은 1976년부터 매년 북을 대상으로 핵전쟁연습들을 진행하였다. 《련합전시증원연습》, 《을지 포커스 렌즈》, 《독수리》 등 핵전쟁연습들이 년례적으로 진행되였다. 미국군사당국이 남쪽에서 년례적으로 실행해온 대규모의 북침

핵선제공격연습은 《한》반도의 군사적대결상태를 격화시키고 정세를 전쟁발발의 위험한 국면에로 바싹 몰아가군 하였다. 이밖에도 미국은 《한》반도주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남쪽해역에 핵잠수함이나 핵항공모함을 수시로 끌어들이고있다. 북침전쟁연습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집중적발로이고 현실적인 전쟁의 근원이다. 건국이래 단 하루도 미국의 전쟁위협에서 벗어날 날이 없었던 북이였다.

2002년 미국언론에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부쉬행정부의 선제공격방침을 재확인하였다. 같은 시기 미국 안보전문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가 정보자유법에 의거해 정부로부터 받은 미군의 비밀해제문서를 통해서 1998년 상반기에 전쟁씨나리오에 따라 미국 플로리다폭격장에서 북을 대상지역으로 한 핵폭탄투하모의훈련까지 실행했던 사실을 공개해 충격을 주었다.

리영희교수는 북핵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은 1994년 6월 15일로 날자까지 결정해 군사행동을 위해 총미군전력의 7할을 한반도에 배치한 사태가 있었다.》며 《그 심각성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우리 국민만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서 리교수는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자신의 판단으로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이 가능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국 같은 상황은 선례가 없다. 유럽에서는 10여개국의 동의를 받지만 한반도에서는 선제사용하고 사후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

며 랭전세력에 맞서는 평화운동을 력설했었다.

북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은 급작스럽게 불거진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1994년 녕변핵시설에 대한 정밀폭격이 실행직전에 중단된바 있었고 2003년 《참여정부》출범을 전후하여 또 한번 북폭론에 대한 론난을 일으킨바 있었다.

당시와 지금의 상황에 차이가 있다면 당시는 이 사실을 알고있던이들이 매우 극소수였다는데 있고 지금은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할수 있다는것이다. 오히려 그런 상황은 당시보다 더욱 악화되였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쪽보수언론들은 끊임없이 《한》반도안보불안의 원인이 북의 《남침》위협때문인것처럼 호도해왔고 그러면서 대북강경제재를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처방이 잘못되여도 한참 잘못된것이다.

눈을 돌려 《한》반도주변국들이 우려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4차 6자회담에서 체결한 9.19공동성명은 모두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항과 2항을 살펴보면 문제의 본질을 확인할수 있다.

1항에서는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핵계획들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리행할것》을 공약했고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확언하였다.》고 명시하고있다.

2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쌍무적정책들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있다.

9.19공동성명 어디에도 북의 《남침》을 우려한 내용은 찾아볼수 없다. 거꾸로 미국이 북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적되여있는데 이는 곧 《한》반도에서의 안보불안의 원인이 북의 핵보유가 아니라 미국의 북침에 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기도 하다. 《남침》은 이미 쟁점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안보문제는 미국이 북으로 쳐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실제로 남쪽의 국민들 대다수가 북의 《남침》보다 미국의 북침을 더 우려하는것으로 확인되고있다.

《한》반도정세가 가장 첨예하게 치달아올랐던 북의 1차 핵시험당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구소가 북핵시험이후 가장 불안한 부분을 질문한 결과 《미국의 북폭격》이 19.2%였다. 《미국의 북선제공격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30.2%나 되였다. 남쪽에 대한 북쪽의 핵공격보다 북쪽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이 더

큰 우려를 자아냈다.

《뉴욕 타임스》 2002년 12월 29일부에 게재된 《아시아의 분렬이 한반도위기를 심화시키고있다》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만약 한반도를 둘러싼 야만적인 지배권다툼의 력사를 잠시 눈감을수 있다면, 만약 서울이 보호받을수 있다면, 만약 아시아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기구가 있었다면 한반도에서 촉발되고있는 이 위기는 일시적일지라도 재빠르게 해결될수 있을텐데 … 북조선이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있는 넝변은 부쉬미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되던 선제공격론을 집행할 가장 완벽한 곳일지도 모른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한 고위관리는 8 000개의 폐연료봉에서 핵무기제조용플루토니움을 추출할수 있는 북조선의 현재의 핵재처리쎈터를 언급, 〈건물 하나만 무너뜨리면 되는데…〉라고 말했다. 넝변은 외진 곳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원도 짐을 꾸려 떠날것을 요구받았다. 정교한 공격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때를 놓치면 그 건물을 산산쪼각내다가 핵물질이 나라전역으로 류출될수 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덧붙였다. 〈그렇게 될수만 있다면…〉 쉽지 않은 문제다. 단순히 비무장지대 북쪽에 집중되여있는 북조선측 1만 1 000개의 포문이 일제히 남쪽을 향해 열릴지 모른다는것때문만이 아니다.》

신문은 미국이 자기의 선제공격독트린을 실행하려면 미국주도의 강력한 동북아시아군사동맹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미일《한》 3각군사동맹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나토》로 기능할것임을 시사하였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두 하위동맹자인 남《한》과 일본의 군사적협동체제를 현재에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미《한》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두변으로 하는 2등변3각형의 간접적형태로 련결시키며 장차 조건이 성숙된 단계에서 완벽한 3변3각형으로 마무리지으려는 장기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3각군사동맹의 완결을 위해서는 일본내의 정치적변화가 선행되여야 한다. 일본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 군사력을 국가정책이나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에 묶여있다. 이 평화헌법의 엄연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력하에 일본의 우익세력은 이미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중 중국을 제외하면 최강의 륙해공군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남《한》과 일본의 군사동맹관계를 완결하려면 먼저 이 평화헌법을 일본우익의 군사대국화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뜯어고쳐야 한다. 일본의 력대 보수정권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그 목적과 목표를 거리낌없이 공언해왔다.

그러는 동안에도 미국이 중간에서 조정하는 《한》일 쌍방

군대의 각종 협력관계는 자국민과 주변나라들의 반발을 무마내지 우회하면서 급속도로 촉진되여 현재 매우 밀착된 협동관계수준에 이르고있는듯이 보인다.

일본이 아직까지는 군사대국화의 바로메터로 되여있는 국민총생산(GNP) 1%내의 군비예산원칙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그 법적한계를 지키고있는것으로 되여있으나 방대한 일본경제의 생산력규모를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는 그 한계자체가 유명무실한것으로 된지 오래다. 그나마도 일본정계의 보수화경향과 미국정부의 끈질긴 압력으로 일본정부와 집권당이 군사비 GNP 1% 원칙을 페기하는 날은 바로 눈앞에 다가온것 같다.

그들은 금년초에 일본군대의 해외파견이 평화헌법이나 여태까지의 불파견공약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언명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사이에 일본군사력의 제일차적행동지역을 《한》반도(남쪽)로 하는 소위 극동유사구상을 확정해놓고있다.

미국은 1980년대에는 일본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상대적 침체라는 경제현상을 바탕으로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했으나 이제 경제력회복과 일본의 거품경제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일본경계론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미일뉴대정책으로 기울어졌다. 1996년 4월 량국간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신안보공동선언》, 이를 뒤받침하는 1997년 9월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 《한》반도와 린근지역(대만을 지칭한것임.)의 유사시에 일본자위대의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자위대법 및 유사시법 재정비 등은 이를 잘 반영하고있다. 더 나아가 북의 《로동1》호미싸일개발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전역미싸일방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최신무기생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있다.

일본의 방대한 경제력과 생산력 및 최고도의 과학기술력량의 뒤받침으로 증강된 일본군사력은 《한》반도의 분단된 두 부분의 한쪽을 부축해주고 다른 한쪽을 억누르는 물리적힘으로 작용할것이다. 일본보수집권당과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현상고수 다시말해서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를 고착화하며 나아가 반도의 절반이라도 타고앉는데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1960년대에 북쪽에 비해서 형편없이 렬세였던 남쪽의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강행시켜 일본에 그 부담을 떠맡긴 결과 일본의 보수정권과 그것을 구성하는 재벌, 실업가, 군부, 국수주의적사상가와 리론가들은 《한》반도를 일본의 뒤뜰로 여기게끔 되였다. 즉 《한》반도의 남쪽을 그들의 옛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지배권이 행사되여야 할 아시아에서의 유일한 지역으로

당연시하고있다.

일본지배세력의 사상경향은 날로 국수주의, 대국주의, 팽창주의, 아시아지도자의식으로 경화되여가고있다. 왕년의 아시아패권시대를 그리워하는 그들이 제일 만만하게 주무를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는 상대가 남《한》이다.

2006년에 아소 다로 일본외상은 미국에서 한 연설에서 《일본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했다. 야스구니진쟈참배와 과거사외곡, 독도문제 등에 대한 《한》반도의 북과 남, 중국 등 동북아시아국민들의 비판을 《편협한 민족주의》로 몰아붙인것이다. 과거 일제시절 1만명이상의 《한국》인이 강제징용된 아소탄광집안의 후손답다.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일본군부의 사상과 전략을 대표하는 일본군사잡지 《군사연구》는 《한》반도를 그들의 생명선이라고 규정하고있다. 19세기 말엽의 일본제국주의군부의 사상이 그대로 재현되고있다.

이것이 일본내 극우정치인들과 군부가 내뿜는 집단적광기이다. 야마또민족이 《최고》이며 현대의 《대동아공영권》이 실현된 아시아를 최고의 선으로 내세우고있다.

여기에다 남쪽의 우익보수집단뿐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식자들은 그 옛날 《개량된 민족주의》를 떠들며 친일을 했던

사람들처럼 북과 군사적대결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는것을 국가안보전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미일《한》 3각군사동맹은 현실화되고있다. 미국과 일본은 자마와 요꼬다, 요꼬스까가 사실상 미국의 동북아시아 륙해공군사령탑으로 재탄생하는 주일미군재편을 마쳤다.

현실은 심각하다. 일본의 한 지식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설마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리가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예전부터 꾸준히 전쟁을 준비해왔고 명령만 떨어진다면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것입니다.》

요꼬스까는 과거 북에 나포된《푸에블로》호의 모항이였던 곳이며 지금도 동해공해상에서 미싸일기지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는 이지스순양함이 출항하고 《한반도유사시》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을 주임무로 하는 미7함대의 기지이다.

격추된 《EC—121》은 1964년에 일본 요꼬다기지에 배치되여 여기서 북을 향해 리륙했었다.

북의 공군조종사에 의해 15m의 근거리에서 20분동안이나 추격을 당했던 미싸일발사감시기인 《RC—135》도 오끼나와의 가데나공군기지에 배치되여있다. 이 전자정찰기는 미국에 3대밖에 없는데 2대가 여기에 배치됐다. 《RC—135》

는 적외선감수장치로 미싸일을 추적하며 탄도와 성능분석, 발사지점과 탄착지점을 밝혀낼수 있다고 한다.

《한》반도를 겨누고있는 미일군사동맹의 실체가 피부로 느껴진다. 분명한것은 미일의 주요표적이 48시간안에 도착할수 있는 《한》반도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의 침략적성격과 함께 과거 식민지통치시절을 그리워하는 일본의 복고주의와 오늘 뻐젓이 드러내고있는 군국주의,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둔 《한》일간의 로골적인 군사적 협동관계는 그것이 어떤 형태이건 불안스러운 눈초리로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

미일《한》 3각군사동맹의 실상과 그 위험성에 대하여 좀 상세하게 언급이 된감은 있지만 이것이 결코 장황할수만은 없다. 미일《한》 3각군사동맹의 검은 화살표는 확실히 《한》반도를 향하고있고 그 과녁이 같은 민족이 살고있는 북쪽임을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일본의 새로운 군사적지배를 차단할수 있는 길은 다만 그들의 도움이 필요없는 남북민족의 화해와 협력,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공조뿐이다. 여기에서도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10.4선언을 리행해야 할 절박감을 페부로 느껴야 할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핵문제》를 구실로 《한》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으며 남쪽의 친미보수세력들을 부추겨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있다.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에 따라 남쪽의 군부는 군사교리를 이전의《대북억제력확보》로부터《대북선제공격》으로 바꾸었으며 그에 따라《북핵시설을 기습선제타격》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북침《작전계획》을 수립해놓고있다.

남쪽당국은 군대를《선제공격》위주로 확대개편하였으며《F—15K》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무인정찰기, 지하관통용 합동정밀유도탄 등 최신전쟁장비들을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키 리졸브》,《을지 프리덤 가디언》,《독수리》,《호국》등 각종 명목의 대규모《한》미합동군사연습들을 년례행사처럼 벌려놓고있다. 각종 전쟁장비들을 총동원한《합동화력시범》훈련과 일본 오끼나와의 미해병대까지 끌어들여 전례없는 대규모적인 련합상륙훈련을 벌리는 등 북침전쟁연습에 몰두하면서《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이《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런 전쟁연습소동의 와중에서 한발의 포탄이 바라지 않는 전쟁을 불러올수도 있다.

북의 인민군이 중국, 로씨야와 합동군사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들은 기억조차 없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질서를 주도하면서 커다란 전쟁들을 앞장에서

일으키고있는 미국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월남전쟁이나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지금껏 개입한 전쟁마다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도 실패를 거듭하고있다.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59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지 않고있으며 1994년에 북과 체결하였던 북미기본합의서마저 파기해버렸다.

《한》반도에 조성된 지금의 정세는 미국과 공조하여 그들이 바라는 대결과 전쟁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민족공조로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는가 하는것을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여기에서 친미는 전쟁이고 반미는 평화이며 10.4선언 부정은 전쟁이고 10.4선언리행은 평화라는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4. 10.4선언과 선군

국사중의 국사가 군사라는것이 흘러온 력사와 복잡다단한 오늘의 현정세가 보여주고있는 피의 교훈이고 진리이다.

강력한 군사력은 자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 않는 불굴의 기개를 발휘하게 한다. 이것은 민족의 거대한 정신적재부로 된다. 따라서 선군과 정치의 결합은 가장 정당하고 합법칙적이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탄생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펼치신 선군정치가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군정치는 6.15자주통일시대를 안아오고 통일의 새시대를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고 위력한 보검이라고 말할수 있다.

무엇보다도 선군정치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10.4선언을 마련했다.

조국통일의 견지에서 보면 6.15공동선언의 탄생과 클린톤정권말기의 북미관계의 진전도 선군정치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볼수 있겠다. 또한 6.15공동선언에 의해서 마련된 민족자주, 화해, 교류, 협력기운의 전례없는 앙양 등과 같은 엄청난 변화들 역시 그렇다고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있는대로 6.15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조국통일운동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변이였다. 이것은 현실로 립증되고있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시아정세 특히 북미

간의 조성된 객관정세의 흐름을 주동적으로 올라타고 6.15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옥동자를 탄생시켰다. 이어서 7년뒤에 10.4선언이라는 두번째 옥동자를 낳았다.

북의 선군정치의 힘에 의한 미국의 대북붕괴전략의 파탄이야말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낳게 한 원동력이였으며 남북간의 대결과 긴장을 화해와 협력으로 확고히 돌려세운 힘이였던것이다.

력사적인 평양상봉당시 남북수뇌들이 조선인민군의 환영열병례를 받는 장면은 의례적인 환영례식인 동시에 북쪽 사람들에게는 바로 총창우에 통일도 있고 자주와 평화가 있으며 6.15, 10.4선언이 선군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탄생하였다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것이라고 생각되였다.

8년세월 도도히 흘러온 6.15시대를 추동해온것은 남과 북, 해외 7천만겨레의 드높은 통일열기와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그 원천이겠지만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들의 반6.15공세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어야 했다.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반6.15공세는 대북전쟁책동과 군사훈련, 북의 농축우라니움《핵개발설》, 《인권》문제조작, 대북지원저지 등으로 전개되여왔다.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은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차단하고 화해와 협력, 단합을 대결과 긴장, 분렬로 되돌리려고 하여왔으며 결국 그 화살은

6.15와 10.4선언파탄에 집중되였다. 이런 반6.15공세를 뚫고 6.15를 리행, 추동해온 힘이 바로 북의 선군정치였다.

선군과 남북공동선언들은 남쪽국민들의 의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그것은 북이 더이상 적이 아니라 횡포한 미국에 맞서는 주대있고 힘있는 동족, 동포라는것을 실감하게 되였다. 북의 선군정치가 우리 민족의 힘이고 6.15, 10.4를 떠밀어주고있으며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있다는것을 알게 된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 민족은 힘있는 민족이며 미국에게 굴종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자각이 급속도로 확산되였으며 이것은 그동안 우리 민족끼리 6.15시대를 펼쳐가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선군에 대해 해외동포들은 일정한 인식과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 남쪽국민들은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군사선행, 군사위주의 선군정치가 평화의 담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옳바른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다.

북의 선군은 전쟁을 위한 선군인가, 평화를 위한 선군인가. 력사의 증언을 들어보자.

이전 쏘련이 해체된 이후 1993~1994년에 《한》반도는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당시 미국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계획을 세우고 주《한》미국인의 소개령까지 내렸었다.

그때 북은 처음으로 3기의 장거리미싸일을 발사하는 등

미국을 압박하여 미국의 공격을 막아냈다.

뉴욕 북미회담을 며칠 앞둔 1993년 5월 29일 태평양상에 있는 괌도와 하와이주변 공해상의 섬들을 향하여 《한》반도의 북쪽으로부터 3발의 《로동1》호 다단식탄도미싸일이 날아갔다.

미싸일들은 발사되자마자 일본렬도를 날아넘어 지정된 목표에 정확히 명중되였다.

북의 미싸일발사에 대하여 미국잡지 《타임》(1994년 2월 7일)은 《일미의 군사전문가들은 같은 악몽에 시달리고있다. 방어수단이 없이 공포에 떨고있는 사이에 핵탄두를 탑재한 중거리미싸일 〈로동1〉호가 북조선의 기지로부터 발사되여 굉음을 울리며 조선동해를 가로질러 불과 몇분후에 도꾜와 요꼬스까, 오사까의 상공에서 불덩어리가 되여 폭발하는 악몽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금까지의 우려중에 가장 명백한 우려이다.》고 하면서 북미싸일의 위력앞에 떨고있는 일미군사관계자들의 모습을 기술하였다.

미국의 강권외교의 상징인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이나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보다 속도가 몇배나 더 빠르고 명중률이 높은 북미싸일의 성능을 정찰위성을 통하여 알게 된 미국으로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당시 일본의 한 출판물은 미국의 요격미싸일 《패트리오트》의 속도는 마하 3인데 비해 북미싸일의 속도는 마하 10이고 그

명중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였다. 사실이 그렇다면 과학기술적 견지에서 미국이 날아오는 북미싸일을 요격할수 없었던것은 당연하였다.

북미싸일의 발사는 미싸일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마음대로 미싸일공격을 가하고도 보복을 받지 않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오늘의 북은 1950년대의 북이 아니라 나라의 자주권을 짓밟고 신성한 령토를 침범하는 적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든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무자비하게 타격소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그에 필요한 위력한 수단까지 가지고있는 사회주의 강국이라고 봐야 한다.

재일군사외교평론가 김명철씨는 자기의 글에서 《사실 북조선은 1993년 5월 29일 처음 다단식미싸일발사시험을 했는데 훌륭하게 성공했다. 그중 두발은 일본렬도를 넘어 한발은 하와이앞바다에, 다른 한발은 괌도앞바다에 착탄했다. 북조선은 이것으로 충분한 데타를 얻었다.》라고 평했다.

여기에서 《충분한 데타》란 북미싸일의 위력을 시험검증했다는 뜻으로서 일단 유사시에는 미국이 북의 보복타격의 반경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전쟁을 막은것은 미국에게 막심한 타격을 가할수 있는 북의 군사력임을 알수 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남의 극우세력들이 그렇게 우려

하는 북의 미싸일이 오히려 전쟁을 막아내고 94년 제네바 합의라는 북미타협을 이끌어냈던것이다.

력사적사실에서 우리는 북의 미싸일개발이 전쟁을 하려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으려는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주년을 앞두고 인공위성《광명성1》호를 쏴올려 선군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것도 같은 맥락에서 리해해야 할것이다.

《광명성1》호의 성과적인 발사는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98년 또다시 닥친 전쟁위기에서도 미국의 결론은 북에 대한 공격계획의 포기였다.

미국신문《져널 오브 코미스 앤드 코미셜》은《북조선에서 최근에 진행한 3계단미싸일에 의한 위성발사는 북조선이 미국 전지역을 공격할수 있는 수단을 이미 가지고있다는것을 시사하고있다.》고 지적했으며《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지는 미국이《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자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뿐아니라 아직까지 북조선미싸일을 막을만 한 정도로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북조선은 작은 나라이지만 로씨야보다 더 위험한 적수》라고 강조했다.

제2의 조선전쟁을 막아낸것은 중국정부도 로씨야정부도 UN도 아니였다. 전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한것은 북의 자위적군사력이였던것이다.《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불바다의

위험에서 구해낸것, 그것이 선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북의 미싸일발사시험과 위력한 중, 장거리미싸일보유문제에 대해 갖은 시비와 제재를 다해왔다.

사실 미국과 남쪽당국 또 일본까지도 군사훈련을 할 때 북을 향해 미싸일을 쏜다. 이런 훈련은 한해두해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되고있다. 이런 행위야말로 《한》반도에 전쟁을 몰고올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라는것은 북의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으로 보아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북의 선군정치 즉 미국의 전쟁을 위한 물리력, 방대한 군사력을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사방어체계를 북이 구축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 벌써 초토화되였을것이다. 북에 그런 전쟁억제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서슴지 않고 단순한 군사적공격이 아니라 남과 북의 대부분의 도시와 사람들을 괴멸시켰을것이다. 미국은 《한》반도라는 땅이 필요하지 《한》반도에 살고있는 우리 민족이 필요하지 않기때문이다.

결론은 명백하다. 북의 힘이 없었다면 미국은 이미 북을 공격하였을것이며 《한》반도전체를 주저없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했을것이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지배하고 자본은 일본이 살판치는 영낙없는 하와이의 비애만이 이 땅

을 유령처럼 떠돌고있을것이다. 이는 찬란했던 우리 민족 반만년의 력사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침략적속성과 그것이 반영된 군사정책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재부를 략탈하는것이다.

그런 미국과 맞서 자신의 안위는 물론이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북이 전쟁억제력을 보유하는것은 누구의 눈에도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다. 북의 미싸일은 최소한 그것을 보장해준다. 따라서 남쪽《정권》과 언론은 북이 미싸일을 발사했다면 비난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 사리에 맞는다.

북의 미싸일은 전쟁의 수단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평화의 보루다. 이 말에 모든것이 함축되여있다. 선군정치만이《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려주고있다.

멀리 앞을 내다보고 자위적인 억제력을 마련한것은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였다.

북의 노래중에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는 가사가 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평화관이며 평화에 대한 철학이다. 북선군정치의 평화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얼마나 위력한것인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것은 북이 2006년 10월 우리 민족

최초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력사적사변을 통하여 확증되였다. 북의 핵시험이 진행된 2006년 10월 9일은 단군이래 장장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나라 력사에 가장 격동적인 날로 빛나게 각인되였다. 이러한 북핵시험은 북의 군사력의 한 부분을 보여준것이였으며 북이 미국의 압살을 물리치고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하게 한것은 바로 선군정치이다.

당시 세계의 관측통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북은 대륙간탄도미싸일에 장착할수 있는 크기의 핵폭탄을 시험에 사용함으로써 미본토타격능력을 갖추고있음을 시위하였다. 그리고 핵시험장소를 미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여 미국의 최첨단 정찰감시체계가 북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는것을 깨닫게 하였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북의 담력에 기가 꺾인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이 핵시험에 그처럼 당혹해한것은 핵시험에서 북군사력의 진면모의 일부가 내비쳐졌기때문이다. 개발과정의 실험이 아니라 완성된 핵무기를 사용해보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것이나 사전준비기간을 별로 가지지 않고 핵시험을 한것은 미국이 상상하고있는것과 달리 실전배비된 핵무기를 보유하고있음을 보여준것이다.

북은 1998년 인공위성발사로 세계에서 6개국만 가지고있다는 대륙간탄도미싸일능력을 과시하면서 선제공격권이 미국에만 있지 않다는것을 증명했고 2005년 2.10성명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표하고 6자회담에 소극적인 미국의 의자를 잡아당기게 해 9.19성명발표로 이어지게 하였다. 최근엔 대미압박의 수위를 높여내고있다. 북과 이라크의 결정적차이가 여기에 있다.

약육강식의 절대법칙이 존재하는 현실사회에서 북을 함부로 침공할수 없는것은 강력한 선군의 힘이 있기때문이며 이 선군의 힘이 미제의 전쟁기도를 막아내고 《한》반도평화를 유지하고있다.

미국이 북침을 념두에 두고 지금까지 마음놓고 입버릇처럼 떠들어온 《한반도유사시》에 주《한》미군은 말할것도 없고 미국본토까지도 안전할수 없게 되였음을 미국이 깨닫기 시작한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그렇게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남의 이전 통일부 장관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평화통일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어느 한 토론회의 연설에서 당국의 선핵포기주장이 《지난 10년동안 발전시켜온 평화체제론의를 근본적으로 막아버렸다.》고 하면서 남쪽 당국의 그릇된 대북정책을 비판하였다.

남쪽당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양보할수 없는 조건으로 내세우고있는 선핵포기주장은 북의 처지에서는 전혀 받아들일수 없는것이다.

《한》반도주변은 군사적으로 가장 밀도높은 대결상태에 있다. 남쪽의 국민은 미국의 핵폭탄을 깔고앉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북에다는 핵을 포기하라고 한다. 조금만이라도 공정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남쪽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기지로 되여있는것이 당연한 일이고 북은 핵무기를 가지고있으면 안된다는 주장이 억지스럽게 느껴질것이다.

몇해전 리비아가 핵개발을 인정하며 그 장비를 미국에 보내 파기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관계정상화와 경제원조를 약속한 일이 있었다. 미국은 북도 리비아처럼 스스로 핵계획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남쪽《정부》당국도 북이 리비아식해법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리비아식해법이 리상적인것인양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리비아의 사례는 결코 그렇게 리해될수 없다.

리비아가 스스로 핵계획을 포기함으로써 얻은것이 지금 무엇인가. 미국은 리비아의 핵파기에 대해 환영한다는 말만 요란스럽게 하였지 경제지원은커녕 리비아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올렸던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립장을 밝히지 않고 형식적인 대화만 해왔던것이 현실이다. 그러다가 리비아의 가다피는 《쟈스민혁명》이라는 미국의 정권전복음모에 걸려 자기의 생명조차 보존할수 없었다. 이라크의 싸담 후쎄인과

같은 길을 걸은것이다. 리비아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것이지 미국과 어떤 자주적인 대화를 한게 아니였다.

이것이 선핵포기요구의 본질을 보여준 력사의 교훈이였다.

1990년대이후 《한》반도에는 미국에 의한 전쟁위기가 몇차례 반복되였다. 전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숱하게 벌어졌지만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라고 하는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지켜지고있다. 미국의 전쟁책동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힘이 있기때문이다. 이제 세상사람들은 그 힘이 북의 선군정치라는것을 뚜렷이 인식해가고있다. 북의 선군정치는 어떻게 평화를 지키고있는것일가.

북의 선군정치는 우선 미국호전광들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으로 되여 평화를 지키고있다.

북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핵우세를 파탄내고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절대무기로 삼고 그에 기초한 군사교리, 군사전략을 설정해놓고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핵우산아래 남쪽을 집어넣고 북을 겨냥하고있다. 북의 선군정치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개발과 강화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에 커다란 파렬구를 내고 그들의 전쟁기도를 결정적으로 격파하고 있다.

선제핵타격, 미싸일타격은 이젠 미군의 독점물이 아니며 미국도 북과 전쟁을 하려면 자신들의 도시가 핵으로 불바

다가 될것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였다.

미국은 자신들의 전쟁시뮬레이션에서 핵이 없는 북과의 전쟁에서는 10만의 미군이 사망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핵이 있는 북과의 전쟁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결국 패배한다는 결론을 얻을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그동안 벌려온 모든 전쟁에 대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승리여부를 점쳐왔으며 승리를 장담한 후에 전쟁을 시작하였다. 북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시뮬레이션단계에서 미리 저지하고있는 셈이다.

지금 미국이 북에 대해 적대정책을 취하면서도 이라크와는 다르다며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있는것은 이런 사정과 관계되여있다. 이라크에 포악하게 치고 들어가던 미국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지하벙커파괴용 핵무기개발이다, 미싸일방어체제구축이다, 주《한》미군재배치다, 기동전력구축이다며 란리를 펴고있지만 북앞에서는 피동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결국 북의 선군정치가 그동안 거칠것 없었던 미국의 전쟁책동에 결정적차단봉을 들이밀었고 이것으로 해서 이라크 다음은 북이라며 《한》반도에 드리운 미국이 몰고온 전쟁먹구름이 제지당하고 평화로운 푸른 하늘이 지켜지고있는 것이다.

북의 선군정치는 또한 전체 민족을 단결시킴으로써 평화를

지켜내고있다. 북의 선군정치는 평화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이기에 지배와 예속, 전쟁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자주와 단결, 평화를 지향하고있다.

분렬과 대립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간섭의 고리를 만들어주며 제국주의자들은 분렬과 대립을 조장해 상대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 틈을 리용하여 전쟁의 총구를 들이대는것을 기본전쟁교리로 삼고있다. 제국주의가 조장하는 분렬과 대립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수 있다. 내부의 계급적모순이 심화되거나 민족내부의 대결구조가 강화되는것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선군정치는 북을 단결시키고있다. 지금 북에서 령도자와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높이 발양되여 미국의 분렬공작을 파탄내고있다. 미국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만드는것도 바로 이 일심단결의 힘이다. 이처럼 선군은 전사회적일심단결을 실현하여 평화를 지키고있다.

쉽게 말해서 북의 선군정치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룩한 일심단결이 전민족적범위로 확장된것이 바로 민족대단결이다. 남과 북은 적어도 전쟁과 평화문제에 있어서는 운명공동체의식을 가지고있으며 운명공동체의식은 통일을 공동목표로 하는 민족대단결로 가시화되고있다. 이것은 평화정착과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론의하고 결정하자는 의지를 키워내면서 10.4선언을 낳게 했다.

그리하여 남북은 평화에 대한 원칙적태도를 확고히 견지해 전쟁호전세력에 대한 굴복을 통한 평온이 아니라 민족자력으로 담보하는 평화, 전쟁의 근원을 들어내는 항구적인 평화, 자주통일을 위한 평화를 추구할것을 합의한것이다.

2006년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때 북측대표의 《선군정치가 전쟁을 막고 남쪽국민들도 그 덕을 보고있다.》는 발언에 대해 리종석장관은 《누가 남쪽에서 귀측에게 우리 안전을 지켜달라고 한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반박한것으로 안다.

북이 주장하는 선군의 덕이라는것은 미국의 전쟁위협으로부터 북의 선군정치가 《한》반도평화를 유지할수 있게 해준다는것이다. 《한》반도평화는 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전체를 포괄하는 문제이므로 남쪽도 북의 선군덕을 보고있다는 주장인것이다. 지당한 말이고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남쪽국민들은 북의 선군정치가 남쪽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사실에는 쉽게 수긍하지 않는다. 북측의 이러한 주장에 친미에 찌든 관료들이나 일부 국민들은 정신나간 소리쯤으로 치부할수도 있을것이다. 왜냐하면 남쪽국민들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북을 《적화통일》의 위험세력으로 보고있기때문이다. 오히려 북의 선군정치는 군대를 우선시하는 정책이기에 일부 남쪽국민들로선 더 큰 위험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북은 누구로부터 북뿐만아니라 남쪽까지도 보호한다고 주장하는것인가. 북은 미국을 민족의 원쑤로, 북뿐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으로 규정하고있다. 그리하여 북은 북 대 남과 미국이 아닌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줄곧 주장해왔다.

북은 자신들의 군사우선의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한》반도에서 이미 전쟁이 일어났을것이라 주장하고있다. 즉 선군정치가 있기때문에 자신들이 미싸일과 핵을 비롯한 비대칭억제력을 보유할수 있었고 그 힘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 북의 주장은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설왕설래하는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현실로 립증된 력사적사실이다.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핵무기가 갖고있는 위협적인 힘, 가공할 파괴력은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수 있는것이다.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할것이 명백하다면 그럴 경우 핵무기의 속성상 둘 다 공멸할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만 사용할수 있는 《이상한 무기》인것이다. 핵무기의 정치공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공포의 균형》을 파괴할수 없기때문에 평화공존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이다. 재래식공격위협은 남아있겠지만 력사적으로 핵무장국가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진적은 없었다.

북의 핵보유와 관련해 중국의 국제관계학교수도 북이 핵시험을 통해 잃는것보다 얻는게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은 핵시험을 통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위협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리득을 얻을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공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행동론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핵무기보유는 미국의 군사적공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보증수표라고 말할수 있다.

반대로 대량살상무기가 없으면 침략을 받는다.

미국은 후쎄인대통령궁전까지 뒤져보고 미국에 저항할수 있는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 없다는것을 확인하자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미국의 침략에 대응할수 있는 자위적군사력이 없으면 미국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나라를 잃는다는것이 이라크에서 다시 확인된 교훈이였다.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남측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북의 강위력한 선군정치가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고있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마음놓고 쳐들어가도 되는 약소국만 골라 침략을 일삼아왔다. 그 회수만도 200회가 넘는다. 이런것은 이젠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인터네트를 조금만 검색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확인할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미국이 그렇게도 미워하는 북을 침략하지 못하는 리유가 무엇인가? 중국과 로씨야가 있기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다. 북이 선군정치의 든든한 기반으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춰놓고있기때문이다.

북은 정치사상적으로는 물론이고 물리적으로도 침략자들을 격퇴할수 있는 만단의 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만약 미국이 북을 공격한다면 침략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대한 기상이 놈들의 심장을 강타하고 아예 지구상에서 존재 그자체를 지워버릴것이다.

북이 이 《한》반도 조국강토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걸고 선군정치를 실현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벌써 북으로 쳐들어갔을것이다. 그렇게 되였다면 남쪽군대는 구경만 하고있을것인가? 미군의 총알받이로 활용되여 전쟁에 휘말리게 되여있는 것이다.

북이 선군정치를 강화하면 《한》반도는 그만큼 안전해지고 평화를 빨리 정착시킬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북이 핵무기를 만들던, 미싸일을 만들던, 그보다 더한것을 만들던 남쪽은 반대할 리유가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항상 존재해왔다는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길게 말할것 없이 북미간의 지난 대결사를 살펴보면 북미

대결의 과정에서 북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수 없었고 전쟁을 막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써 더욱더 자위적무장력을 강화할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결국 핵공갈을 일삼는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핵무기라는 가장 강력한 자위적수단이 북에게 필요했던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본다면 북이 주장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전쟁위협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있음이 분명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북의 물리력은 결코 남쪽의 동족을 겨냥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북이 공식적으로 밝히고있는 립장이다. 미국에 관해서는 분명히 전쟁불사의 내용을 담고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총대 즉 군력은 남쪽에 대한 전쟁위협이 아니며 그러한 의도가 없다는것을 일관하게 천명하고있음을 알수 있다. 여기에서도 10.4선언이 로무현《정권》이 북의《적화통일》에 물을 대주었다는 비방의 기만성이 로출된다. 같은 맥락에서 리명박의 10.4선언무효화, 백지화가 안고있는 부당성이 드러난다.

북미간의 대결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과 북은 모두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수밖에 없다. 남북은《한》반도를 터전으로 하는 운명공동체이기때문이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의 홈페지에 《이남국민이 입고있는

선군정치의 덕》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적이 있었다. 거기서 필자는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수차례나 조성되였지만 그때마다 북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전쟁위험이 사라지고 평화가 보장되군 하였는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조선이 입을 총손실액은 무려 21조 204억 4천만US$에 달할것이다. 결국 이북의 선군정치로 전쟁이 억제되고 평화가 보장되기때문에 이남국민은 수십조US$의 덕을 보고있다.》고 썼다.

북이 말한 남도 북의 선군의 덕을 보고있다고 하는 주장은 남쪽에서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먹혀들어가고있는것이 확실하다.

실례로 지난 2006년 7월 4일의 미싸일발사시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문제에 대한 군사적해결 즉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줄여 오히려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더욱 든든히 해주었었다. 북이 미싸일을 쏘았지만 남쪽의 주식시장은 폭락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중 전쟁을 두려워하며 전시식량비축을 위해 라면사재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제 북의 핵과 미싸일에 의한 전쟁발발이라는것은 누구도 믿지 않는 가설로 끝난것 같다.

백악관. 흐르는 정적. 동북아시아지도만을 뚫어지게 보고있는 부쉬, 국방장관, 힐 크리스토퍼.

부　　쉬: 아! 1999년. (《한》반도를 바라보는 부쉬의 입가에 탄식의 소리와 함께 북미콤뮤니케를 합의하던 클린톤과 조명록이 겹쳐진다.)

부　　쉬: 인공위성 한방에 무너지다니…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드는 부쉬)

국방장관: 결정을 할 때입니다, 각하.

힐　　: 막바지 회담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하.

부　　쉬: (힐을 무시한다.) 승산은?

국방장관: 북의 플루토니움생산량으로 봐선 20kg정도로, 개당 800g정도 나누어 생산한다면 생산가능한 핵무기는…

부　　쉬: 쉽게, 어려워, 간단히.

국방장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지, 비길지, 질지.

부　　쉬: 진다. 미국이 진다. 음…

힐　　: 어렵게 찾아온 대화정국인데… 회담이후에 좀 더 기다리시는것이…

부　　쉬: (여전히 힐을 무시한다.) 지금 개시가능한가?

국방장관: 개시는 가능합니다.

부　　쉬: 국방장관, 혹 두렵나. 무엇이 걸리나.

국방장관: 그게…

부　　쉬: 그렇지! 핵, 핵이야.

국방장관: 전… 미싸일…

부　　쉬: 기술도 없고 인공위성도 겨우 한기 쏴올린건데… 그것도 기술? 그 미싸일은…

국방장관: 우리보다 한수 우의 기술입니다.

부　　쉬: 왓?

국방장관: 우리는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한번도 적도선상에서 벗어나서 한적이 없는데 북은 한번에 자신의 령토에서 시험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부　　쉬: 그게 뭔가?

국방장관: (더 이야기해야 하나, 더 한다고 리해할가?) 적도가 아닌 위도선상에서는 공기의 류동성이 혼잡하고 자전과 공전주기를 맞추는 기술력이…

부　　쉬: 우리가 미싸일발사의 객관조건이 좋다는거 아닌가?

국방장관: (울고싶군.) 네.

부　　쉬: 그리고 미싸일이라면 우린 12 000개가 있다. 거기에 핵을 달면… 잠수함에도 달수 있고 비행기…

힐　　: 이번 회담에서 북은 핵군축을 강하게…

부　　쉬: (힐은 완전 왕따다.) 문젠 핵이야?

국방장관: 제 생각엔 핵보다 미싸일이 더… 굳이 핵이 없어도…

부　　쉬: 뭐 봐봐. 200<12 000 더 세지 않나? 다 쏟아

부어버리면…

힐　: 그래도 대화로 시간을 끌어야…

부　쉬: 날아오는 미싸일 다 쏴떨어뜨리면… MD 확률이 10%니까 만개를 쏘면 되지. 크크크…

국방장관: 근데 걸리는건 북이 쏘는것이 미싸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또 200개 미싸일중 어디에 핵이 달렸는지, 또…

부　쉬: 또 뭐?

국방장관: 북이 자기네 하늘에 쏘아올리면 뭐라 할수도 없고…

부　쉬: 그럼 자기네가 자살하는거겠지!

국방장관: 그게 인공위성궤도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전자장비인 우리 무기가 고철이…

부　쉬: 항공모함으로 북을 미리 쓸어버리면…

국방장관: (고철로 뭘 합니까? 으구) 항공모함이 근처로 가기 전에 대함미싸일공격을 받아서…

부　쉬: 슬금슬금 몰래 가면…

국방장관: 항공모함길이만 330m…

부　쉬: 평양을 집중공격하면…

국방장관: 미싸일은 다른 곳에서…

부　쉬: 전도시를 죄다 파괴하면…

국방장관: 미싸일과 방공망은 다 지하에…

부　　쉬: 우ㅡ씨!! 그래 국방장관, 너 잘났다. 어쩌란 말이야, 전쟁을 해! 말어!

국방장관: …

힐　　: 말어요, 대화가 중요해요. 회담에서 선핵포기, 핵사찰보다 더한 대화준비는…

부　　쉬: 으 짜증, 넌 나가있어, 부를 때까지 들어오지마. 국방장관, 그래도 공격하면…

국방장관: 우리 본토만 최소 20여개 주는…

부　　쉬: 음, 그러니까 우리 주가 50개지. 그중에 20개라… 50ㅡ20=40… 해볼만 한게 아닌가, 어차피…

국방장관: (정말 바보였군.) 게다가 우리 피해가… 항공모함, 주일, 주《한》, 주필미군이… 본토까지.

부　　쉬: 그래도 북《한》이 망하면 우리는 다시 재건하면… 무역쎈터도 더 멋있게 올랐잖아.

국방장관: …

부　　쉬: 당장 제재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격은 회담중 쉴 때, 일요일에.

국방장관: 하필 일요일?

부　　쉬: 그리스도교국가 일요일날 전쟁할거라 생각하겠나? 흐흐흐.

국방장관: (그 수법은 반세기전 《한국》전쟁때 쓴건데…)

부　　쉬: 힐!

힐　　: 네, 결정하셨습니까?

부　　쉬: 대화해.

힐　　: 내용은?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군축…

부　　쉬: 대화해.

힐　　: 네? 지난번 《한국》전 종전선언은…

부　　쉬: 대화해. 그리고 일요일에 쉬여. 꼭.

힐　　: 꼭 북에 선핵포기의사와 핵사찰수용의 성과를 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부　　쉬: (앵무새로 변신) 대화해.

또 다른 대목도 있었다.

보 좌 관: 각하!

부　　쉬: 뭐야!

보 좌 관: 북이 미싸일발사한지 20분이 되였다고 합니다.

부　　쉬: 우리는 뭐하고있어? 쐈어? 떨어뜨렸어? 몇개나 날아오는데?

보 좌 관: 한기입니다.

부　　쉬: 한기? 크크크, 감히 미국을 향해 미싸일을 날려? 아마도 세계최초군. 공포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겠군. 지구상에서 《한》반도를 바다로 만들어버려! 총공격! 미국의 무서움을 전세계에 공포하라! 보좌관! 미싸일이 워싱톤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 좌 관: (눈을 감은채 담담하게) 25분! 25분입니다. 말씀이 좀 기셨습니다.

부 　 쉬: 뭐?!

순식간이였다. 《한》반도의 령공을 뚫고 대기권진입 1분, 대기권타고 아메리카본토까지 20분, 워싱톤상공까지 4분. 패트리오트미싸일의 사열을 받으며 축포의 환영을 받으며 《백두산2》호, 《대포동2》호는 유유히 날았다.

백악관의 지붕을 뚫고 박혔다. 폭격으로 인한 굉음소리도 멎었다. 여기저기 떨어지는 돌쪼각소리도 멈췄다. 식은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눈을 부릅뜬 부쉬의 심장도 함께 멈췄다.

당장이라도 본토의 미싸일로 반격을 가할것 같았던 미국은 항복문서와 함께 협상문서를 워싱톤발 팍스로 날렸다.

한편 백악관에 미싸일이 떨어짐과 동시에 펜타곤으로 팍스 한장이 떨어졌다.

핵보유국 미국에게

우리 공화국의 타격을 피할 곳 지구상에 없음을 다시금 천명한다. 미국은 핵을 쓴 핵보유국이지만 우리 공화국은 핵을 쓰지 않는 핵보유국이다.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는것이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대화와 평화를 원한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공격을 해도 좋다. 우리 공화국의 다음공격이 개시될 경우 지구상에 미국이라는 지명은 사라지게 될것이다. 공화국인민과 군대의 참을성은 30분이다. 그 이상은 그 누구도 말릴수 없다.

살기를 바라는 사람의 회답을 기다린다.

핵보유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것은 북의 1차핵시험때 남쪽의 한 출판물이 미국의 핵패권전략을 강타한 북핵의 위력을 놓고 미국을 풍자한 글의 대목이다.

도대체 인구도 많지 않고 령토도 크지 않은 공화국이 1만여개의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세계《유일초대국》을 위협한다는것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상식이하의 가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다른데로 번져갔다. 북의 1차핵시험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했던 핵시험과는 달리 북의 핵개발능력에서 심중하게 류의해야 할 그들 특유의 장점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북의 핵시험이 TNT 800t규모로 히로시마급핵탄두의 1/20에 불과할 정도로 폭발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북이 핵시험을 하되 소규모핵무기를 개발, 시험하였다는것이다.

당시 미국과 남쪽의 보수언론들은 북의 핵기술수준으로 보았을 때 소형핵개발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주장은 아무런 신빙성이 없었다. 300m의 지하핵시험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북의 소형핵개발론을 뒤받침했다.

북핵시험이후 처음으로 북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의 핵전문가들이 북의 핵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였다고 밝혔다. 지그프리드 헤커 전 미국립핵연구소 소장은 15일(현지 시각) 워싱톤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방북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북의 핵시험은 소규모였지만 1차시험치고는 매우 성공적이였다.》며 《북은 애초부터 폭발력을 정밀하게 계산해 소규모로 시험했으며 나아가 폭발력을 제어할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대부분 북이 40kg 남짓의 플루토니움을 추출하였으며 10여개내외의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북의 핵무장수준을 초보적인 대형핵무기로 추산한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북핵시험에서 관측된 TNT 800t규모의 핵폭발은 플루토니움 40g규모와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산술적계산결과 북이 소형핵무기를 제조할 경우 북이 보유한 핵무기는 최대 1 000여개까지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미국에겐 그야말로 타격이다.

게다가 소형핵은 무게가 가벼운 관계로 장거리미싸일에도 장착할수 있다. 북이 이미 개발완료한것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싸일에 소형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사정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미국본토를 능히 공격할 수준이 된다는것이다. 또한 북이 이미 보유한 600여기로 추정되는 중거리미싸일에 소형핵탄두를 장착하면 600여기에 탑재되여 날아가는 핵탄두는 곧 미국의 미싸일방어체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것을 증명할것이다. 나아가 북미간 전쟁발발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들중 대형거점들, 수송기지, 항공모함전단들은 북의 핵타격에 의해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질수 있다. 이 경우 핵폭발의 규모가 TNT 800t정도로 매우 작기때문에 방사능에 의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할수 있으며 군사시설외부의 민간인피해도 없앨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의 핵시험은 미국

에 대한 확고한 경고의 의미라는것이다. 일부러 작은 규모의 핵시험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자연환경도 보호하면서 미국에 대한 실제 핵타격능력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북의 핵시험은 결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북의 의지를 보여준다. 불특정 다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전매특허였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로 민간인을 학살한 국가다. 미국은 히로시마에서 13만명이상, 나가사끼에서 6만명이상의 민간인을 원자탄으로 학살했다. 이에 대해 북은 의도적으로 핵폭발의 수준을 초소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핵공격대상을 북에 대한 적대행동을 추진하는 미군무력에 한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있다고 관측할수 있다. 이같은 북핵시험의 숨은 의미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것 같다.

10월 9일 핵시험으로 북은 인디아,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 되였다. 그러나 북의 핵보유는 인디아, 파키스탄의 핵보유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수 있다. 즉 북은 단지 지역적영향력을 갖는 핵보유국이 아니라 전 지구적영향력을 갖는 핵보유국이라는 뜻이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모두 보유한 국가는 미국, 로씨야, 중국뿐이다. 따라서 북은 미국, 로씨야, 중국에 이어 세계 핵 4강에 올라섰다고 평가되였다.

북은 미국과 대항할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실상의 유일한 핵보유국이라고 할수 있다. 이전 쏘련의 붕괴이후 미국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유엔과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꼬쏘보침공, 아프가니스탄침공, 이라크침공에 이르기까지 약소국들을 마음껏 유린해왔다. 하지만 북의 핵무장으로 이러한 미국의 독주체제에 제동이 걸리게 되였다. 그러하기에 북의 핵무장은 제국주의《력사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북의 핵무기보유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평화에 대한 위협인것인가?

평화에 대한 위협은 허울뿐이다. 국제사회(소위 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가 우려하는것은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핵으로 구축했던 국제권력 즉 패권에 대한 위협이기에 이들 국가들은 북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있는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북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것을 상당히 꺼리고있는것이다.

핵우산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유지에 유효한 전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있다. 그래서 동북아평화도 미국중심의 평화 내지 미국이 관리하는 평화가 되여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북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점하게 되면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것이다.

북은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춤으로써 미국의 전쟁위협에서

벗어나고 명실공히 핵강국으로서 초강대국의 대렬에 오르며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게 되였다.

그런데 2012년인 오늘에 와서 북이 그러한 핵의 운반수단인 자기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을 공개했다면 어떻게 될가?

김일성주석탄생 100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된 경축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싸일이 등장하여 세계를 놀래웠다. 북이 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을 만드는 세계 3대핵강국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것이다. 그 대륙간탄도미싸일은 《화성-13》이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만드는 나라는 북과 미국, 로씨야, 중국, 프랑스 다섯 나라뿐이며 그가운데 초대형발사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을 만드는 나라는 북과 로씨야, 중국밖에 없다. 미군은 수직갱도식과 잠수함발사식대륙간탄도미싸일만 있고 프랑스군은 잠수함발사식대륙간탄도미싸일만 있다.

북의 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은 세계미싸일전력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고 할만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군사정세와 력관계를 크게 변화시킨 사변이였다.

미국에 있는 통일학연구소 소장의 견해에 따르면 《화성-13》의 성능은 로씨야군 《또뽈-M》의 성능과 비슷하다는것이다. 《또뽈-M》탄두부에 장착된 단일핵탄두의 무게는 1t, 핵폭발력은 800kt, 원형확률오차는 200m이다.

열병식에서 선보인 《화성-13》의 발사차량은 《또뽈-M》의 경우와 똑같은 8축 16륜으로서 량자의 사거리도 거의 같을것으로 예측하고있다.

태양절 10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개관식에 참가한 해외동포들은 각종 자국산 미싸일들을 전시한 전략로케트실에서 이번에 공개한 《화성-13》을 보았다고 전했다. 이 점을 미루어보면 이번에 공개한 《화성-13》은 한세대전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이라는 관측이 정확할것 같다.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이미 인민군전략로케트군에 《화성-13》보다 한세대 앞선 사거리가 1만 4천km를 넘고 다탄두인 최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가 작전배치되여있다고 분석했다.

북의 산간오지에서 워싱톤D.C까지의 거리가 1만 700km, 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발사하면 30분만에 미국의 수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앞에 소개한 풍자로막이 이미 예고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태양절 100돐경축 열병식 연설에서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확정적으로 언명하시였다. 이것은 미국이 북에 핵공격을 가하는 경우 북도 보복핵공격으로 미국을 초토화할것이므로 미국의 확장된 핵억지전략은 이미 무용

지물이 되고말았다는 선언이다.

서뿔리 북에 핵공갈을 했다가 도리여 핵위협을 당하게 된 미국이 이제 할 일은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것밖에 없을것 같다.

북의 이러한 강력한, 아니 위대한 전쟁억제력이 없었다면 10.4선언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0.4선언은 그 누구에 의해 백지화되거나 무효화될수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그 리행이 차단되였을뿐이다. 북의 선군의 힘, 막강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보는 민족의 마음은 바로 그 힘에 의해 10.4선언은 기필코 리행될것이며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와 통일이 깃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믿음에 차있다.

그럴수록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있는 온 겨레는 10.4선언을 《한》반도평화와 평화통일의 로정도로 삼고 조성된 전쟁위기국면을 힘차게 헤쳐나가야 한다. 특히 반전평화운동에 기여하는 길이 민족의 생명줄인 10.4선언을 지키는데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할것이다.

5. 통일과 평화 번영을 위한 주인공이 되자

—결언을 대신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지난 일은 아름답게 추억되는것 같다. 력사적인 평양상봉, 그때의 일이 갈수록 애틋하게 되새겨지군 한다.

2000년 6월 15일 그날 우리 민족의 미래와 통일의 약속을 다짐하며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대중《대통령》이 손을 굳게 맞잡아 번쩍 들어올렸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 2007년 10월의 그날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로무현《대통령》의 화기애애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어낼 확신과 기대에 넘쳐있던 그 장면도 역시 잊을수 없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대중《대통령》, 로무현《대통령》과 온 겨레의 념원을 담아 력사적인 상봉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약속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내옴으로써 우리 민족 불멸의 금자탑을 쌓았다. 《한》반도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장을 마련한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구절구절에 슴배여있는 통일지향의 정신과 업적은 민족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져있다. 오늘 그 실천의 과제가 우리를 부른다.

오늘의 시점에서 10.4선언을 반드시 재음미해야 하는 리유가 여기에도 있다.

우리 민족을 하나로 잇기 위한 원칙과 방도 그리고 당시 주요현안문제와 전망, 남북관계의 획기적발전과 평화통일, 번영의 길을 밝힌 10.4선언은 분단조국의 력사를 바꾸어놓은

대사변, 그자체였다.

북쪽과는 상반되게 남쪽에서는 리명박《정권》 5년의 수명이 거의 다된 오늘 최악의 남북관계속에서 국민은 전쟁을 걱정하며 하루를 살아가고있다. 일상화된 안보불안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졌으며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의 꿈은 퇴색했다.

그대신 남북대결로 발생한 군사적긴장을 일방적인 《한》미동맹강화로 고조시킴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 북과 대결이나 하는 《분쟁의 화근 대한민국》의 이메지가 동북아시아에 길게 드리워졌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한》반도정세의 력사퇴행적변화는 근본적으로 리명박《정부》가 6.15공동선언의 계승을 거부하고 10.4선언을 부정하며 반북대결정책에 무턱대고 매달리면서 발생했다. 그 결과 10.4선언을 백지화한 리명박의 지난 통치기간은 역설적으로 10.4선언을 리행하지 않고는 《한》반도 문제가 단 한발자국도 전진할수 없음을 립증한 시기였다.

우리는 대결의식과 적개심으로 가득찬 남북관계속에서 10.4선언 5주년을 맞는다. 2000년 남북수뇌가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로 약속한 뒤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기를 8년, 남북관계에서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객관성이 없이 자기나름의 절대적기준을 내세워놓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변화와 발전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외에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 총격전이 사라지고 서해상에서 남북교전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체계가 작동하며 남북간 도로가 열리고 100만이상의 남쪽사람들이 금강산을 관광하고 개성공단에서 수만명의 북쪽근로자들이 남쪽상표의 제품을 생산하게 된 현상에 대해 남북관계의 발전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는 어려울것이다.

이러한 괄목할만 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것은 두말할것없이 6.15시대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의 생활력임이 틀림없다.

10.4선언발표이후 통일문제관계자들은 선언의 의의와 성격으로 첫째 남북의 자주적노력으로 탄생된것, 둘째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한것, 셋째 우리민족끼리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것, 넷째 남북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켜나가자는것, 다섯째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나감으로써 공존공영을 통한 민족공동체를 건설해나가자는것, 여섯째 평화통일의 기초를 마련할뿐만아니라 평화통일을 앞당겨 달성하자는것 등을 지적

한바가 있다.

10.4선언은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기반구축의 기틀이라 할수 있는 평화의 제도화기초를 이룩하였다. 즉 평화공존에 관한 원칙의 합의라 할수 있다. 군사적측면에서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결과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이로써 10.4선언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평화통일강령으로 높이 평가되였다.

10.4선언의 의미는 긴장완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실제로 실천하는 전기였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있는 속에서 통일강성국가에로의 민족사의 전환을 우리 민족끼리 주체가 되여 이룩해나갈데 대한 의지를 세계에 과시했다는것이다.

6.15공동선언은 그동안 강대국정치에 밀려 당위적으로만 자신들이 문제해결의 주체였던 남북이 《한》반도분단해소과정에 실질적인 주체로 나선 사변이였다. 가장 민감한 통일의 방법에 대해 남측의 련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한 공동선언 제2항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맥락을 같이해서 10.4선언에 그러한 6.15공동선언을 구현

하는데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하며 또 충분히 실행할수 있는 당면과제가 거의다 망라되고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이 통일의 리념과 방향에 대한 전민족적합의를 마련하였다면 10.4선언은 그 실현의 길우에서 주변정세나 내부정국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결코 역행하거나 일탈하지 않는 확고한 궤도를 그어놓은것이라고 생각한다.

6.15공동선언에서 확인된 분단해소를 향한 남북의 자주적노력은 2007년의 10.4선언에서 《한》반도평화체제확립을 위해 남북이 공동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데까지 발전했다.

이렇듯 10.4선언은 우리에게 현 단계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넘어서서 《한》반도랭전구조해체의 방도를 제공하고 통일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이 모든 과정에 남과 북이 다같은 주체로서 참여하고 적대적대립체가 아닌 공동협력체를 추구한다는 명제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10.4선언이 지향했던 《한》반도의 모습은 남북간 공존과 평화번영, 통일이였다.

그런 의미에서는 10.4선언이 낮은 단계의 련방제와 련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을 실지로 이루어나가기 위한 설계도라고도 할수 있을것이다.

남의 자본주의체제와 북의 사회주의체제를 그대로 둔채 통일을 실현하자는 6.15공동선언에서의 통일론합의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반세기이상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온 현재의 력사적조건에서 하루빨리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주체력량을 극대화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10.4선언은 《한》반도통일국가에로의 로정도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것은 10.4선언이 가지고 있는 력사적의의로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에서 10.4선언으로 이어지던 시절,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동족상쟁의 전쟁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척결한 공동번영의 남북관계구축의 가능성을 보았다.

6.15공동선언이 닦아놓은 길은 앞으로도 《한》반도랭전구조의 해체를 향한 험난한 려정에서 소중한 유도로가 될것이다.

그렇기에 북이건 남이건 막론하고 남북관계악화와 핵전쟁위기심화 등으로 기로에 선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길은 10.4선언의 부활밖에 없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사명이고 력사의 순리이다. 오늘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느냐 못하느냐, 평화가 정착되고 번영하는 《한》반도에 강대한 통일국가를 일떠세우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도 결국은 6.15통일시대를 계속 이어가며 10.4선언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여기에 귀착되고있다.

북은 2012년 새해공동사설에서 10.4선언발표 5주년을 맞으며 그 리행의 분위기가 온 강산에 차넘치도록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통일문제에 림하는 북의 의도를 짐작할수 있다.

사실 북은 경제발전과 군사강국과시는 평화와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확산, 고조시키는것과 정비례한다고 믿고있다.

하나의 례로 남의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1998년 《광명성》위성발사이후인 1999년부터 북의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2000년 화해와 협력, 통일의 6월이 도래했다.

공동사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판단해본다면 북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기대를 거는것보다 자체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봉쇄를 뚫고 자기식의 사회주의경제번영의 시대를 열며 그 궤도우에서 통일문제 특히 10.4선언의 리행을 든든히 쥐고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10.4선언의 리행, 이것만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룰수 있다. 10.4선언은 동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로써 해결하자는 정신이 담겨져있다. 또한 평화와 평화통일의 기본적인 사안들과 그 해결방도가 선이 굵게 또는 구체적현안으로 제시되여있는 리정표이며 로정도라 하겠다.

그래서 6.15만이 살길이고 6.15만이 통일의 길로 된 오늘의

엄숙한 시대에 우리 민족은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한》반도의 운명, 통일의 운명을 걸었다.

통일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과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와 같은 구호를 웨치며 통일투쟁에 나선적이 있었다. 그러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는 모두가 일상에서 통일에 대한 노력들을 해왔다. 그러나 리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또다시 분단원점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평화적실천도 중요하지만 남북이 전시상태라는것을 인식하여 목소리를 높여 싸워야 된다고 본다. 전쟁이 아닌 평화, 단절이 아닌 교류와 협력, 정전이 아닌 평화협정체결, 제재와 봉쇄가 아니라 인도적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요구하며 10.4선언리행에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6.15시대를 방해하던 세력은 이미 집권말기 날자세기에 접어들어갔다. 벌써 몇년전부터 《한겨레》신문의 일면 기사 《오늘이 MB제명의 날》이라고 제목을 뽑을 정도로 리명박은 남과 북, 전민족에게 환영받을수 없는 6.15시대 반역아였다.

시간을 잃으면 력사를 잃는다. 리명박《정부》에게는 화해와 협력이라든가, 평화와 통일이라든가 하는 말자체가 해당되지 않음을 경험과 직관을 통해 잘 알고있다. 결론은 2013년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할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는것이 가장 빠른 경로일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진영이

앞장서서 진력해야 한다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2013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한》반도구상을 정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2013년을 념두에 둔 전민족적인 평화개혁진영의 《한》반도구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 기본은 6.15와 10.4선언을 계승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대단결을 도모하는것일터이나 그동안 달라진 《한》반도상황을 고려하고 평화수호, 통일운동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가려내 보완하는 한단계 진보된 설계를 가지는것이다.

분단체제는 단순히 남북관계의 개선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분단체제를 온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일기회주의세력에서 번식해나와 분단을 향유하며 기득권을 형성한 친미집단과 대결하고 수구적반북담론을 일소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공존공영하며 발전하는 건강한 사회문화적풍토를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공습 한돐을 맞은 10월 8일을 전후해 미국과 이딸리아 등지에서는 대규모의 반전시위가 벌어졌었다. 8일 미국전역에서 전개된 시위를 조직한 단체는 《우리의 이름으로 전쟁은 안돼》(Not In Our Name)였다.

시위대들은 이 단체가 제안한 《저항의 서약서》에 따라 《우리들의 이름으로 다른 국가를 침공하지 말고 우리들의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폭탄을 투하하지 말것이며 우리들의 이름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을 사살하지 말것이며 우리들의 이름

으로 력사를 이름없는 무덤으로 만들지 말것》을 촉구했다.

남쪽사회에서도 《우리의 이름으로 전쟁은 안돼!》, 《우리의 이름으로 평화와 통일을!》라고 소리높이 웨쳐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반10.4세력에게 《우리의 이름으로 안돼!》 하고 심판을 내려야 한다.

북쪽사회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이 없다. 그들은 민족구성원들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가장 뜨겁게 희망하고 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의 립지에서 볼 때 평화는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이며 반전투쟁을 통해 평화수호를 이룩하여야 한다.

평화수호투쟁은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며 민족의 안전과 자주적발전,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민족공동의 위업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온 민족의 안녕과 공동의 번영,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들의 발악적도전을 짓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며 자주통일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자고 해도 전쟁의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

자주통일위업의 운명과 민족의 안전은 사생결단의 의지로 온 겨레가 평화수호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니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 나라의 평화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평화수호투쟁을 외면할수 없다.

평화수호의 성스러운 기치는 해내외의 온 겨레를 거족적인 반전평화옹호투쟁에로 부르고있다.

통일이라는 위대한 창조물은 울울창창한 애국의 숲에서만 솟아오를수 있다. 10.4선언은 하나의 선언이라기보다 애국의 퍼덕이는 넋이다.

오늘의 시대는 말로만 민족의 분렬을 걱정하고 통일을 부르짖는 우국지사가 아니라 민족분렬을 더없는 아픔으로 여기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무엇인가 특색있는 기여를 하는 참된 애국자를 부르고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길,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력사앞에, 나라와 민족, 후대들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

그 힘찬 목소리들이 겨레의 머리우에 드리운 분렬의 먹장구름을 활활 태워버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시대와 력사의 관조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여야 하며 겨레의 위업을 대하되 론객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애국애족의 자세이며 력사의 결론이다.

2012년에 보는 10.4선언

저 자 **현 정 룡**
편 집 김 혜 련
편 성 오 영 옥
표 지 김 윤 일
교 정 장 진 혁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9월 15일
발 행 주체101(2012)년 9월 20일

ㄱ-1131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414-48-5